



2

198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0. 2호

(루계 388)



차 례

| | |
|---------------------------------|----|
| 신년사 | 4 |
| 축하문 | 10 |
| 해쑥는 언덕우에서 | 13 |
| 민족문화유산계승발전의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 | 14 |
| 다듬은 말 | 18 |
| 력사를 창조하는 힘 | 19 |
| 은혜로워라 당이여 | 21 |
| 영원히 당의 부름따라 | 22 |
| 사랑의 등대불 | 23 |
| 막장에 넘치는 당의 빛발 | 24 |
| 청춘의 안목으로, 그 정열로 | 26 |
|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성의 송가 | 27 |
| 남조선작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 30 |
| 이웃에서 온 사람 | 32 |
| 참대숲은 설레인다 | 41 |
| 이 땅에 수천갈래 길은 많아도... | 51 |
| 만 수 대 (외 2 편)... | 52 |

| | |
|----------------------------|----|
| 금요로동 | 52 |
| 다시 오리 | 53 |
| 불빛 | 54 |
| 들끓는 나날에 | 55 |
| 청산땅의 새세대들 | 56 |
| 다락밭 | 60 |
| 미래의 숨은 영웅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 63 |
| 혁명임무에 대한 생각 | 66 |
| 갈매기 | 67 |
| 새벽길 | 76 |

김일성 신년사

(1980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원대한 포부를 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첫해의 새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은 높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신심도 드높이 1980년대의 첫 진군을 시작하고있습니다. 1980년대는 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번영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력사적인 전변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시기로 될것입니다.

나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총련의 여러 대표단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고있는 6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1970년대의 마지막을 빛나게 장식한 지난해의 투쟁성과를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1979년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켰으며 연간계획을 훨씬 앞당겨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공업총생산액은 1978년에 비하여 115%로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채취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석탄과 광물 생산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안주지구탄광들을 비롯한 대규모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중소규모탄광들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였으며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습니다.

전력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다른 공업부문의 로동계급도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공업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생산의 높은 장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지난해에 1978년에 비하여 전력생산은 114%, 압연강재생산은 115%, 화학비료생산은 113%, 세멘트생산은 121%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수송전선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수송전사들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철도의 전기화를 적극 다그치고 항들의 확장공사를 힘있게 벌려 수송능력을 훨씬 높였으며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을 잘하여 수송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였습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도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고압폴리에틸렌공장과 아닐론공장,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의 제2종합가공직장, 단천마그네샤공장의 110메터회전로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시설들을 수많은 일떠세웠습니다.

지난해에 대외무역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고 전군중적운동으로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하여 상품수출액이 1.3배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농업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보는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근면한 농업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안고 온갖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9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는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주체농법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줍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흉년이 계속되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이 끊임없이 장성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응당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한 우리 나라의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수행에서 훌륭한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가치있는 과학적발명과 기술혁신을 수많은 하였습니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농작물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주물방법연구에 성공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인민이 생산과 건설에 적극 참가하고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짐으로써 국민소득이 빨리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의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을 팔라로 환산하면 1,920팔라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날을 따라 늘어나는 국민소득은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혁명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우리의 혁명대오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내어 투쟁한 결과입니다.

나는 지난해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우리의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1980년은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열리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열린다는 새로운 소식에 접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고있으며 당대회의 소집을 열렬히 환영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새로운 투쟁강령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대회로 될것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며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우리 조국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온 나라가 양양된 정치적분위기로 들끓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마련되어있는 생산잠재력은 매우 큼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한다면 지금 있는 경제토대를 가지고서도 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으며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할수 있습니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이 확고히 앞서나가야 연료, 동력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고 가공공업에 원료를 원만히 대줄수 있으며 외화원천을 적극 늘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석탄생산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무연탄생산을 계속 늘이는 한편 안주지구탄광들과 북부지구 탄광들에서 고열탄과 폭스탄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유색금속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광산들을 개발하여 여러가지 유색금속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박토와 굴진을 앞세우고 갱도를 영구화, 콩크리트화하며 여름철과 겨울철 생산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채굴설비를 대형화, 현대화하고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 다량채굴, 다량운반,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수송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며 전반적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집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전기화를 계속 다그쳐 전기기관차의 견인비중을 85% 이상으로 높이며 운수수단들을 현대화, 중량화하고 열차운행을 고속도화하여 더 많은 짐을 실어날라야 하겠습니다.

철도수송과 함께 자동차수송, 배수송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대외무역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짐배생산을 늘이며 강하천들에 배길을 개척하고 무역항들을 개건확장하여 배수송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여 무역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하겠습니다.

대외무역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고 수출품의 포장과 질을 개선하며 대외수송조직을 잘하여 납입기일을 어김없이 지켜야 하겠습니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발전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입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계획의 세부화를 잘하고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세움으로써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설비를 제때에 점검보수하고 알뜰히 애호관리하며 모든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설비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물자를 절약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야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를 주체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연료를 리용하는 야금로들을 많이 건설하고 새로운 야금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야금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며 선철과 강철 생산을 더욱 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화학공장들을 정비보강하고 우리 나라에 풍부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소성로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원료기지를 확장하여 질좋은 세멘트와 마그네샤크링카를 더 많이 생산하며 내화물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이며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바로 기계수단의 현대화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올해에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새로운 주물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형단조화, 프레스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생산공정의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현함으로써 기계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기계생산에 힘을 넣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기술정비를 개선하며 대자연개조사업을 벌리는데 필요한 대형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기술경제적가치가 높은 과학적발명을 더 많이 하며 이미 이룩한 과학연구의 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인민경제의 과학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고 생산자대중속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올해에 알곡 95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을 높이는 기본방도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입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며 농작물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알곡 정보당 수확고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조건에서 알곡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부침땅면적을 늘이는데 있습니다. 모든곳에서 새땅을 찾아내고 다락밭을 건설하며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더욱 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담배를 비롯한 공예작물생산을 늘이며 축산업과 과수업, 잠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알곡 95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올해에 경공업부문에서는 일용품공장들과 식료품공장, 곡산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여러가지 질 좋은 일용품과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업을 발전시켜 물고기를 많이 잡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금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안고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하루에 3만톤이상의 물고기를 잡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나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의 용감한 어로전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올해에 수산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우고 고기배와 어구들을 현대화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부리는 장소와 랭동공장, 가공시설들을 늘여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허실하지 않고 일년 내내 인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앞에는 올해부터 강하천들에언제를 쌓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강하천들에언제를 쌓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전력생산을 늘이고 큰물피해를 미리 막

으며 국토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 강하천들에 크고작은 언제를 많이 쌓고 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 수력자원을 적극 리용하며 우리 나라를 어떠한 큰물피해도 모르는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올해에 교육, 문화, 보건 부문에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는것으로써 우리 당 제6차대회를 성대히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전투를 책임적으로 조직지휘하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새해에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바랍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며 새해의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뽉력불가담나라 인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긴장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전으로 앞당겨수행함으로써 승리자의 영예를 안고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며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십시오.

축하문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장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으며 우리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있는 시기에 열린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와 대회를 통하여 전체 작가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는 당의 혁명적문제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을 더 높이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기간 우리 전체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우리의 주체문학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현시대의 가장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으로 건설하는데 모든 창작적 열정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

우리 문학은 인류의 영재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높이 우러러모심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기치밑에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새롭게 개척하시던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우리 시대 문학예술발전의 불멸의 본보기로 내세움으로써 인류문화예술의 보물고우에 주체문학을 찬란히 빛내여왔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온갖 이색적인 조류의 침습을 막고 우리의 당적, 혁명적 문학의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하였으며 우리 문학을 철저히 우리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정서에 맞고 우리 혁명에 복무하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으로 확고히 발전시켜왔다.

당의 향도따라 주체적인 혁명문학건설을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작가들은 당의 믿음직한 문예전사로 자라났으며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까지 충성다하는 혁명적대오로, 당사상전선의 일익을 튼튼히 지켜나가는 믿음직한 부대로 장성강화되었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과 혁명에 도전해나섰던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르는 충성의 한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전투적인 문학창작을 통하여 원수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수령님과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수정주의, 복고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문학창작에서 당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함으로써 계급의 문학, 혁명의 문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왔다.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문학예술창조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군중문학이 널리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문학의 후비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보람찬 창조의 길을 걸어온 우리 문학은 오늘 당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으며 인류문예사의 빛나는 새시대를 개척해나가는 혁명문학으로서의 견인력과 영향력을 널리 떨치고있다.

우리 문학이 이룩한 모든 성과와 업적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결과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온 전체 작가들의 높은 충성심의 귀중한 열매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기간 전체 작가집단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당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예방침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주체문학의 개화발전과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에 크게 이바지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다그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혁명임무가 나르고있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우리 혁명문학이 지닌 임무와 역할은 매우 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혁명과 새 생활 건설의 참된 주인공들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당과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할 무거운 사명이 작가, 예술인들에게 지워져있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창작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당의 문예전사들이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문학에서 새로운 일대 창작적양양을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것처럼 존경하고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이 우리 문학의 숭고한 임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가장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함으로써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더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일편단심 수령님과 당에 충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하는 시대의 문학은 철두철미 혁명적이어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할 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그들이 자기 힘, 자신의 투쟁으로 모든 시련과 난관을 뚫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창작활동의 기본무대이다. 모든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쌓는 한편 대중속에서 배출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참된 전형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숨은 영웅들을 널리 찾아내어 그들의 고상한 품모와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통일단결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높은 당성과 심오한 철학성은 혁명적문학창작의 주요한 요구이다. 모든 작가들은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창조체계와 창작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자연주의, 도식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경향을 극복하고 창작에서 로동계급적선을 확고히 세우는 동시에 개성적특성을 옹계 살리며 철학적심도를 보장함으로써 사상에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문학창작의 성과는 작가들의 충실성, 창작적 재능과 열정에 달려있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며 당의 정책적요구에 민감하고 생활을 깊이 반영할수 있는 높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소유함으로써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참말로 충직하고 재능있는 문예전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창작일군답게 사소한 안일과 해이, 자유주의적현상도 단호히 배격하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림이 없이 당이 세워준 혁명적 생활기풍, 사업기풍대로 살며 일하여야 하며 집단안에 혁명적규률을 튼튼히 세우고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야 한다.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우리 작가들의 임무는 실로 영예롭고도 책임적이며 작가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기대는 매우 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우리의 모든 작가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혁명적문제로신을 건결히 옹호관철해나감으로써 자기에게 부과된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80년 1월 7일

해쏜는 언덕우에서

김석주

흰눈 포근히 덮인
새벽의 청산리
생각에 잠긴듯
내 또한 생각에 잠겨 걷는다

스무해 세월이 흘렀구나,
수수한 농촌마을에서
우리 수령님 맞으시던
2월의 그 새벽으로부터

오늘은 그 이름
세상에 빛나는 땅에서
내 지금 얼마나
뜻깊은 새벽을 맞이하는것인가

소문도 없이 오시여
조용히 마을길을 걸으시였다
걸음걸음 위대한 사색을 펼쳐가실 때
청산리에, 온 나라에 밝아오던
전변의 그 새벽이여,

세월이 흘러 변모된 산천이 아니여라
은혜의 손길로 이 땅의 오늘을 가꾸어주신
사랑의 스무해
전변의 스무해

내 생각에 잠겨 걷는 사이
어느덧 하늘가에
피여오르는 새벽노을
여기서 보는 노을은 이리도 좋구나
가슴속에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내며

한점 노을이 하늘가에 퍼져가듯
온 나라에 퍼져갔구나

수령님 꾸려주신 행복의 씨앗이
청산벌에 꽃을 피우고
초소마다 일터마다 꽃을 피우며

하나의 심장을 불태워
천만의 심장을 움직이고
서로 돕고 이끌며
온 나라를 창조와 기적으로 일떠세우는
위대한 정신과 방법이
너의 이름으로 빛나는 땅

청산리에 봄이 오면
온 나라에 봄이 오고
청산리가 꽃이 피면
온 나라가 꽃이 피네

뿌리면 신기한 힘을 지닌듯
위대한 사랑의 씨앗이
조국땅 그 어디나
행복의 꽃으로
창조의 열매로
전변의 노래로 펼쳐지는
청산리 청산리

영광의 땅에서
전변하고 전변할 래일을 내다보는
내 마음을 비쳐주며
해가 솟아오르는구나

청산리 높은 언덕에서
농촌의 아름다운 래일을 맞이하듯
내 황홀한 마음으로
눈부신 아침해를 맞이하노라

민족문화유산계승발전의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발표

10 뉘에 즈음하여-

정홍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0 뉘이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지난날의 문화예술을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적민족문화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평가처리하며 문화예술을 민족적바탕에서 더욱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준 역사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그에 따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착취사회의 낡은 유물을 중국적으로 청산하고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려나가야 할 역사적과업이 나서고있었다.

현실은 근로자들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고 문화건설에서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리는것과 함께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유물들과 고전문학예술작품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정리하고 처리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시기 민족문화유산의 평가와 처리, 그 계승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과 다른 나라의 문화예술을 취급리용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그에 완벽한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로작에서 밝히신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무엇보다도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역사와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민족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발전력사를 전하여 주는 귀중한 문화적재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다.

문화예술은 민족과 동떨어진것이 아니며 민족

발전의 력사와 련결되어있다. 문화예술은 민족생활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일정한 력사적시대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같은것을 반영한다.

시대와 문화예술, 생활과 문화예술의 이러한 호상관계로 하여 문화예술은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되며 력사적으로 형성되어온 문화와 예술의 유산은 민족발전의 력사를 전하는 귀중한 문화적재부로 된다.

민족문화유산은 일정한 력사적시대를 반영하고 해당시기의 민족생활을 문화적으로 표현하는것만 큼 언제나 민족발전의 력사와 련관시켜보아야 한다.

문화와 예술의 유산들을 그것이 창조된 당대의 력사적현실과 결부하여 보아야 거기에 담겨져있는 좋은 측면과 제한성을 똑바로 가려볼수 있으며 문화예술유산을 통하여 슬기롭고 용감하며 애국심이 감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과 그것이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력사적로정도 정당하게 리해할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 민족과 민족의 력사, 민족문화예술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질수 있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민족적자부심을 더 깊이 간직할수 있으며 세기를 두고 전하여지는 귀중한 문화적재부들을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이어 받아 사회주의적민족문화예술을 찬란히 꽃피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시는 원칙적문제의 다른 하나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태도를 반대하고 그것들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것을 계급적립장에서 똑바로 알려주어야 하며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태도를 반대하고 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문화예술의 주체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태도는 민족허무주의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문화와 예술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민족특성에 맞게 주체적으로 창조건설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사람들을 자기 민족과 민족고유의 문화도 모르고 덮어놓고 남만 쳐다보는 사대주의자로 되게 하는 유해로운 사상경향이다.

민족허무주의에 사로잡혀 력사와 문화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 제한성만을 강조하면서 지난날의 미술작품이나 물건은 불교적색채가 있고 봉건유교사상이 들어있다고 부정하며 옛날 노래는 봉건냄새가 나고 일제통치시기의 노래는 류형가 냄새가 난다고 하여 못부른다는 식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대한다면 결국 인민들과 자라나는 세대 대들은 지난날 선조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문화를 창조하였는지도 모르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다.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민족허무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인연이 없으며 근본적으로 배치된 원래 사회주의적민족문화자체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것이 아니다.

모든 문화는 일정한 시대의 사회력사적조건에 토대하면서도 앞선 시대의 문화와의 계승적관계속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발전한다. 이것은 문화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이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그자체의 로동계급적성격으로 하여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계승하여 새 생활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우리 나라 문화의 고유한 민족적형식을 살리면서 거기에 사회주의적내용을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데서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적내용을 결합시킨다는것은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문화예술형식에 혁명적인 내용 다시말하며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반대하는 투쟁,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모든 사람이 잘살도록 하는 투쟁같은 내용을 담는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에서 사상적내용은 예술적형식을 통하여 표현되며 예술적형식은 그 사상적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된다.

우리가 창조건설하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예술의 예술적형식은 민족적형식이며 그것은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는 그러한 예술적형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

신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자기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고유한 예술형식을 가지고있다.

조선사람들은 노래와 춤은 우아하고 점잖은것을 좋아하며 말투는 부드럽고 겸손한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예술을 창조하는데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심리적특성과 민족적감정, 우리 인민의 우수한 재능이 잘 반영되어있는 민족적형식을 옳게 살려야 한다.

민족문화유산은 민족발전의 력사와 련관되어있고 해당 시대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같은것을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거기에는 민족적형식이 이러저러하게 구현되어 있다.

레를 들어 지난날에 창조된 조선화는 그 화법과 형식이 매우 우월하다. 조선화의 섬세하고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필치는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민족미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자면 바로 이러한 조선화를 바탕으로 삼는것이 중요하다.

무용인 경우에도 민족무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옛날 춤동작들을 될수록 많이 살려야 한다. 춤동작은 많을수록 좋다. 춤동작을 하나 얻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민족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옛날 춤동작같은것도 무턱대고 버리면서 춤동작을 간소화한다면 민족무용형식이 다 없어질수 있다. 따라서 비록 옛날에 궁중에서나 혹은 절간에서 추던 춤이라 하더라도 조선사람의 감정과 비위에 맞는것이면 없애지 말고 그 형식을 계승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사회주의민족문화예술을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맞는 새로운 민족문화예술로 발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우리 인민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민족고유의 예술형식들을 적극 찾아내어 옳게 살려쓰자면 지난날의 문학예술작품들을 새로 발굴하여 정리하는 사업도 하고 좋은것은 출판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혁명적인 작품창작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그 비중을 훨씬 높이는 기초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을 확고히 앞세우는 토대우에서 민족문화예술유산들을 발굴하고 보존정리하며 출판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문화예술이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히신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에는 또한 지난날의 문학예술에 대한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허무주의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지난날의것을 덮어 놓고 다 그대로 살리려는 복고주의적경향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예술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고 로동계급적선을 확고히 세워나가기 위한 원칙적요구이다.

복고주의는 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적원칙을 떠나서 지난날의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찬미하는 반혁명적사상조류이다.

착취사회에서 창조된 문화예술유산에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인연이 없고 로동계급적 지향에 저촉되는 이러저러한 제한성이 있다. 따라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하는데서 복고주의가 허용되면 지난날의 온갖 불건전한 문화가 머리를 쳐들게 되며 인민들의 의식속에는 부르조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낡고 반동적인 사상이 자라나게 된다.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낡은 예술의 형식, 낡은 문화의 내용을 그대로 되살리려는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없애지 않고는 사회주의적문화예술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고수하고 그의 전투적기능과 교양적역할을 높일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문화예술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문학예술작품들과 개별적인 물들을 미화분식하며 역사적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지난날 그릇되게 과대평가한것들은 로동계급적관점에서 다 바로잡아놓아야 한다.

오랜 역사적시기에 걸쳐서 형성된 민족적형식도 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은 민족적형식도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시대가 발전하고 민족생활과 사람들의 사상미학적요구가 변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문화예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예술의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내용은 그에 알맞는 새로운 민족적형식을 요구한다. 민족적형식이라고 하여 옛날 그대로 되풀이해 가지고는 우리 시대의 혁명적현실과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을 깊이 있고 진실하게 담을수 없다.

이로부터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하는데서 허무주의적태도와 함께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문화유산가운데서 낡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만을 비판적으로 이어받고 새로운 현실생활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실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고 민족고유의 예술형식들을 시대

의 요구와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문화예술형식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혁명적작품들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며 허무주의적태도와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민족문화유산과 지난날의 역사적사실에 대하여 계급적립장에서 비판적으로 대하며 그것들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평가하고 처리하는것이라는것을 심오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과 지난날의 역사적사실들에 대하여 언제나 계급적립장에서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하며 그것들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평가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적립장에서 지난날의 문화예술과 역사적사실들을 비판적으로 대하는것은 그 취급에서 일관하게 지켜나가야 할 원칙적립장이며 우리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게 평가하고 처리하는것은 이 사업에서 반드시 관철하여야 할 원칙적요구이다.

지난날의 문화예술가운데는 혁명에 해로운것과 해롭지않는것,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과 낡고 반동적인것이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리익에 배치되고 우리 혁명에 해로운것은 버려야 한다. 그래야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복고주의를 비롯한 온갖 편향을 철저히 막아내고 혁명의 요구를 고수관철할수 있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인만큼 지난시기의 문화일반을 다 계승하는것이 아니다.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만을 비판적으로 이어받는다.

인민들에게 지난날의것을 가르쳐주거나 보여주는것은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과 공산주의교양에 도움이 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자면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어떤것이 좋고 어떤것이 나쁘며 계승적가치가 있는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똑바로 가려내야 한다. 이런 기초우에서만 근로자들로 하여금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가지게 할수 있고 민족문화유산들을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편향없이 옳게 계승발전시킬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이밖에도 다른 나라의 책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하여 그것들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 민족문화건설에 도움이 되게 리용할데 대한 문제, 민족악기를 위주로 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서양악기들을 적당히 배합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예술을 대하고 취급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진리성과 정당성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10년간 사회주의 민족문화예술의 창조와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과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며 세상 사람들을 그처럼 경탄시키고있는 우리 나라 주체예술의 위력에서 빛나게 확증되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10년동안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방침이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참으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으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예술의 민족적바탕은 더욱 튼튼히 다쳐지게 되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10년동안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달성한 가장 큰 성과는 문화와 예술의 모든 유산들을 검토하여 평가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낸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걸어온 투쟁과 창조의 자랑찬 로정을 밝히고 찬란한 문화전통을 똑바로 찾으며 그것들을 사상, 문화 혁명의 요구에 맞게 정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수천년간의 역사를 반영한 방대하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유산들을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고 평가정리할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하였으며 그에 대한 실천적 경험도 없었다.

이 문제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의 길에서 우리 당이 내놓은 독창적인 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비로소 해결될 수 있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모든 역사유물유적들과 지난날의 문화예술창작물들이 민족발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철저하게 검토되고 우리 혁명과 인민의 지향에 맞게 평가된것은 참으로 커다란 자랑이며 성과이다.

민족문화유산들을 검토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에 해로운것과 해롭지 않은것이 명확히 갈라지고 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들은 인민의 귀중한 문화적재부로 되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되고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지난 10년간에 달성한 중요한 성과는 또한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인 작품들과 우수한 고전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새롭게 발굴되고 력사발전의 매시기별로 대표적인 작품들을 다 갖추어놓게 된것이다.

지난날의 우수한 문화예술작품들을 다 발굴하여 력사발전의 매 시기별로 갖추어놓는것은 인민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화예술작품들이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어야 자라나는 세대들이 력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에 대하여 잘 알게 되며 감정도 풍부하여지고 자기의 의사도 원만히 표현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와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1910년대와 1920년대의 반일투쟁을 반영한 작품들과 덕흥리 무덤 벽화를 비롯하여 고대 및 원시 사회현실을 반영한 미술작품들 그리고 지역적특색을 풍만하게 가지고있는 민족무용들과 민요작품들이 수많이 발굴되고 전설, 민담을 비롯한 구전설화자료들이 광범하게 수집되었다.

또한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를 번역한데 뒤이어 방대한 량에 달하는 국보적문헌인 《조선봉건왕조실록》 번역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묘향산 대웅전을 비롯한 대표적인 력사유적들이 원상 그대로 훌륭하게 복구되었다.

문화예술작품들이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됨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연구와 문화예술발전사 연구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의한 민족문화유산연구》, 《조선문화사》, 《조선문학사》 등 연구도서들이 새로 출판된것을 비롯하여 이 부문 연구사업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는데서 달성한 중요한 성과는 또한 민족고유의 예술형식들을 수많이 찾아내어 현대적미감에 맞게 개조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이 민족적바탕에서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것이다.

우리의 문화예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으며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이 결합된 철저히 당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참으로 인민적이며 애국적인 문학예술로 창조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고 민족고유의 예술형식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살려써야 한다.

이것은 문화예술의 주체적발전을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이며 확고한 담보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태도와 복고주의적경향이 철저히 극복되고 민족고유의 예술형식들을 적극 찾아내어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살려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문화예술은 민족적바탕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문화예술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들만 보더라도 선율이 순하고 부드러운 조선민요를 바탕으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인민들의 적극적인 사랑을 받으며 혁명적이면서도 질은 민족적정서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잡고 그들에게 무적의 힘과 용기를 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음악예술분야에서 민족악기를 위주로 하는 조선식악기편성법과 창법이 완성되고 새형의 주체적관현악이 탄생하게 된것은 민족고유의 음악에 토대하여 음악을 발전시키며 민족선율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투쟁과정의 빛나는 결실이다.

또한 우리의 무용예술이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수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승고한 세계에로 이끄는 더없이 아름답고 고상한 예술의 극치로 꽃피어나게 된것도 민족고유의 춤동작과 틀동을 적극 찾아내고 혁신적으로 개조하였기때문이다.

미술분야에서도 섬세하고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화법과 필치를 가진 조선화를 바탕으로 하여 미술의 여러 형태들을 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잘 살려냄으로써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만들어내고 주체적미술발전의 밑천을 튼튼히 마련하는 찬란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과 그 과정의 창조실천경험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강령적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당의 현명한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아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적민족문화예술건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며 문화예술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로작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들에서 밝혀주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문예 방침을 더욱 깊이 연구학습하여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의 민족문화예술발전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문화예술의 전투적기능과 교양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다듬은 말

| | |
|------|----------------------------------|
| 본래말 | 다듬은 말 |
| 란잡하다 | 어지럽다, 어수선하다 |
| 란필 | 갈긴 글씨 |
| 람루하다 | 어지럽다, 더럽다, 해지다 |
| 람발하다 | 함부로 내다, 망탕내다, 마구찍어내다, 내보내다... |
| 람벌 | 막베다 |
| 람벌하다 | 막베다, 마구베다 |
| 람프 | 등 |
| 랑독 | (소리내어)읽기 |
| 랑송 | 옹기 |
| 락어 | 준말 |
| 랑국 | 두 나라 |
| 랑면 톱 | 랑컨 톱 |
| 랑미간 | 눈섭사이 |
| 랑설양복 | 겹설양복 |
| 랑자간 | 둘사이, 두편짜사이, 둘가운데 |
| 려객 | 손님 |

| | |
|------|---------------|
| 본래말 | 다듬은 말 |
| 려객선 | 손집배 |
| 려객운임 | 차비 |
| 려과 | 거르기 |
| 려과기 | 거르게, 거르는기계 |
| 력사화 | 력사그림 |
| 력설하다 | 힘주어말하다 |
| 련결차 | 끝림차 |
| 련결타격 | 이어치기 |
| 련결활차 | 띠활차 |
| 련대수송 | 어울려나르기 |
| 련련히 | 잇달아, 죽 잇달아 |
| 련속성 | 련이음성 |
| 련속화 | 이야기그림 |
| 련습수업 | 익힘수업 |
| 련시 | 이음시 |
| 련재하다 | 이어신다, 꺾어신다... |
| 련탄 | 빛은 탄 |

력사를 창조하는 힘

리일복

시간을 이루고있는 분과 초가 그토록 인간을 위해 많은것을 만들어낼수 있음을 증명하는 놀라운 변혁이 오늘 이 땅우에서 벌어지고있다.

인간의 힘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상상할수 없는 큰힘을 낼수 있다는것이 증명되는 위대한 혁신과 전변이 오늘 우리 조국땅우에 펼쳐지고있다.

그 누구도 해본적 없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이 불바람처럼 휘몰아치는 들끓는 이 땅, 모든것을 주체의 요구대로 변혁하며 창조와 건설에서 기적을 떨치는 이 땅!

자주성을 지닌 인간들이 자기 운명을 억세게 들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주체의 나라!

이 전변, 이 힘은 어디서 온것인가.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 당당히 자기의 존엄을 빛내이며 사회와 자연을 변혁해나가는 이 위대한 현실은 어떻게 펼쳐진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는 향도의 기치-우리 당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영명한 령도의 손길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찬란히 밝혀주며 은혜로운 사랑으로 가슴마다 충성의 피를 세차게 끓여주는 위대한 우리 당!

실로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찬란한 미래를 밝혀주는 우리 당의 향도의 빛발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민이며 가장 큰 힘을 지닌 인민이다.

우리는 생활의 매 걸음마다에서, 하는 일과 부딪치는 현실마다에서 당의 령도의 빛발이 얼마나 정확하고 당의 사랑과 은정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심장깊이 느끼게 되며 그 령도, 그 사랑이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얼마나 큰 힘을 부어주는가를 똑똑히 눈앞에 보게 된다.

통이 큰 작전속에 속도전의 불바람 안고 거연히 일떠서는 철의 기지로부터 비약의 불길 솟아치는 막장들과 풍년벌 그리고 하나의 거리, 한채의 집을 두고도 우리는 당의 손길, 당의 은덕이 낳은 위대한 결실을 보며 가슴 뜨거워지는것이 아니라!

기념비적건물로 일떠선 산원을 두고 생각해도 그렇다. 저 산악같은 집이 어떻게 꿈같이 빠르게 솟아오를수 있었는가, 대체 무슨 힘이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눈앞의 현실로 펼쳐놓는것인가.

당을 받드는 충성의 마음들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산원건설장,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흥성이 는 움직임으로 명절의 광장을 련상시키는 건설장에는 예순이 넘는 할머니가 다 찾아왔다.

그 나이에 어찌 일하겠는가고 만류하는 사람들 앞에서 할머니는 어떤 말을 남겼는가.

《늙었다고 구경만 하라니 그 무슨 말이요. 세상에 이름두 들어보지 못한 이런 훌륭한 산원이 건설되는데 늙었다고 팔짱만 끼고있으라구? 그 모진 왜놈의 세월에 아들딸 여럿을 낳으면서두 뜻한 아래목에 한번 못누워본 날세. 지주놈의 발김을 매다가 낳은 만이는 이랑쇠라 이름짓고 그놈의 집 소여물을 나르다 낳은 둘째는 외양쇠라 이름짓고, 부엌쇠, 울안쇠, 마당쇠... 이름아닌 이름을 눈물속에 지으면서두 셋밖에 길러내지 못했으니, 그 세월 어머니란 눈물과 한숨밖엔 몰랐단 말이네. 그런데 지난세월 어머니들의 그 설음을 말끔히 씻어준 은덕만도 한량없는데 당에 서는 이렇게 세상에 제일 크고 훌륭한 산원을 건설해 주니 가만있을수가 있는가말이요.

그렇지 않아도 난 이 훌륭한 집의 덕을 볼 젊은이들이 부러워 그러는데 그래 일할 권리까지두 주지 않으니 이럴수가 있나. 영!》

어찌 이 말을 한 할머니의 심정으로만 보겠는가,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준 당의 은덕이 고마와, 당의 이 은덕속에 더욱 행복할 젊은이들이 부러워 일하지 않고는 못견디겠다는 할머니의 말을 어찌 한갓 그 한 할머니의 말이라고만 생각할수 있겠는가. 피눈물나던 그 옛날과는 대조도 할수 없을 아름찬 행복을 안겨주고도 또 그 행복우에 행복을 더하여 우리의 젊은 어머니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당은 이처럼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니 어찌 사람들의 가슴속에 충성의 피가 끓지 않을수 있으며 새힘이 솟구치지 않을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산원건설장이 것처럼 이름모를 지원자들로 흥성거리고 집채가 것처럼 빠른 기간에 놀라웁게 번듯이 일어선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당의 고마운 은덕, 우리 인민을 행복의 절정우에 올려세우려는 영광스런 당의 그 은정이 인민들의 가슴속에 것처럼 거세찬 투쟁의욕과 힘을 불려일으킨것이였다.

그러기에 아침저녁 강가에 서서 웅장하게 일어난 산원의 거연한 모습에 황홀해질 때마다 생각은 깊어진다.

진정 우리 당이 베푸는 사랑과 은덕은 얼마나 큰것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향도의 찬란한 빛발로 우리 인민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당, 전당에 패기와 활력이 넘치게 하고 온 나

라에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게 하며 일판을 언제나 크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 높은 양양의 길로 빛나게 이끄는 향도의 기치!

은혜론 당이 이끄는 그 령도의 찬란한 빛발과 그 은혜론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원천이 아니겠는가.

은들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어를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유구한 세월 바다물에 씻기던 고도인 능금섬을 땅과 이어놓았고 각도를 꺾어 용도를 휘여잡았다. 이제 얼마 지나면 그 철의 긴팔은 바다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웅근 한개 군만한 넓은 간석지를 조국땅에 합쳐놓고 나라의 지도를 고쳐그리게 할것이다.

바다를 몰아내고 땅을 넓히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 눈앞에서 벌어지는것을 보며 우리는 이 놀라운 현실, 이 세기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해준 우리 당의 현명한 구상과 령도, 인민에게 베푸는 그 은덕을 눈시울 뜨거이 생각한다.

그 령도, 그 은덕이 그리도 크고 고마왔기에 인민의 가슴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은 놀라운 힘이 되어 바다와 산악을 쥐고흔드는 전설같은 힘을 내게 한것이 아니겠는가!

당의 힘, 당의 사랑은 철의 기치 황해체첼련합기업소에도 파듯이 미쳐 눈부신 전변을 일으켰다.

자동차의 길에서 변혁을 일으킨 황철, 텔레비존화되고 원격조종화되는 일터들... 그 넓은 원료장에서 스무살나는 애 어린 처녀가 수백명의 일손을 대신하여 텔레비존장치로 온 작업장을 손금처럼 들여다보면서 단추를 누르고있다. 용해장의 사령원도 텔레비존장치로 용광로상태를 뵈히 눈앞에 보며 무선전화기로 지시를 주고받으며 흥겹게 일하고있다.

영광스런 당의 손길은 힘든 로동, 고열로동에서 로동자들을 해방시키려는 은혜론 사랑을 솟아부어준것이다. 깊어가는 밤, 당중앙의 창가에서 꺼질줄 모르는 불빛이 황철의 자동화, 아니 온 나라 일터들의 자동화를 위해 그토록 오래도록 빛나고있었음을 알았을 때 어찌 로동계급의 충성스런 심장들이 일손에 더욱 불꽃을 일으키지 않을수 있었으며 자동화의 그 길에서 변혁의 새 력사를 이룩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위대한 당의 령도의 그 빛발은 저 검덕의 깊은 막장에도 찬란히 비치어 기적과 혁신의 화불이 타오르게 했고, 보통별기슭에 비치어 구름가에 락원의 거리가 솟아오르게 했다.

은혜론 당의 사랑은 조국의 동북단 외진 등대섬에도 안겨져 조국의 눈빛인양 등대불이 더 밝게 비치게 했고 서해의 작은 섬에 세집 아이들을 위해 일떠세워준 학교에서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가 노래처럼 울리게 했다.

우리 문학예술의 놀라운 전변을 두고 또한 우

리는 은혜론 당의 손길을 생각하게 된다.

지구우에 인간이 생기고 언어와 문자가 발생한 먼 태고로부터 문학과 예술이 발전해온 장구한 기간 오늘 우리 나라에서처럼 문학예술이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개화탄발한 때가 그 언제 있었던가. 자주성을 지닌 인민의 손에서 주체의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의 참된 문학예술로 찬란히 꽃피도록 이끌어준 우리 당의 빛나는 향도의 빛발!

그 빛발은 문학예술작품의 핵인 종자를 처음으로 발견하여 작품마다에 심어주었고 공산주의인간학의 참된 진리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어 작가, 예술인들의 본분을 깨우쳐주었다.

그 빛발은 우리 문학예술이 혁명전통을 이어 자랑찬 진군길에 오르게 해주었다.

오늘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세 세계가 경탄의 눈으로 우러르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으며 바로 이 빛나는 문학예술의 개화발전을 이룩해준 우리 당을 우러러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금치 못해 한다.

실로 우리 당의 은혜론 빛발이 비치지 않는곳이란 없다. 우리 인민의 생활 그 어느 구석에도 당의 빛발은 밝게 비쳐오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행복은 모두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든 은혜론 당이 마련해준것이다.

당의 그 빛발을 받고 당의 그 사랑, 그 은덕을 받으며 살며 일하기에 우리 인민은 것처럼 충성의 피로 심장을 끓이며 놀라운 비약과 전진의 길에서 보무당당히 나아가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이끌어주는 향도자에 대한 충성심, 그 향도아래 뭉치고 뿔쳐나설 때 생기는 무적의 힘-그 힘이야말로 사회를 변혁하고 산도 허물고 바다도 막는 강유력한 힘인것이다.

우리 당이 밝혀주는 향도의 빛발과 따사롭게 베푸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가슴에 무진장한 힘을 주는 원천인것이다. 만물을 움직이는 힘을 주고 세기적변혁의 용맹을 주는 당의 빛발, 당의 사랑!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샘터이다.

그 빛발, 그 사랑을 젖줄기삼아 혁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민은 그 은혜로움에 감사드리며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 대를 이어 충성을 바치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에게 매일 매시각 행복을 안겨주며 룡성변영할 래일의 조국을 펼쳐주는 은혜론 당의 령도따라 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광과 기쁨은 아, 정녕 얼마나 크고 벅찬것인가!

은혜론 해빛과 따사론 사랑속에 끝없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불타오르는 인민의 힘, 그것은 바로 새 력사를 창조하는 비길데 없이 위력한 힘인것이니 우리 인민은 이 무적의 힘을 안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앞당겨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영원히 위대한 당을 따라!

은혜로워라 당이여

박세옥

이른새벽
창가에 날아드는
새소리도
푸른 숲
조약돌을 굴리는
맑은 물소리도
정다와라

저멀리 산굽이들 도는
뜨락또르소리도
즐거웁고
바다기슭을 달리는
긴 렬차의 차창을 보아도
내 마음은 달려간다

따사로운 햇빛
향기로운 열매들은
가지를 휘우며 붉게 타고
은혜로운 그 품에
살오른 아이들의 웃음은
노을처럼 피고
이 세상 가장 행복한 노래 울린다

밤이슬이 맺히는
깊은 밤
온 나라를 안고 잠들지 못하는
당중앙청사의 불빛
그 불빛은
철길이 끝나는
오솔길이 끝나는
이 땅의 한끝까지 비쳐가나니

장엄한 철의 도시위에 피어오르는
붉은 노을은
끝없는 그대의 은혜를 노래하여라

당이여
우리 누리고 사는 행복
우리 날마다 지니는 기쁨
이 땅의 모든것
그것은 그대가 이룩한것
그대는 이 땅위의 모든것이여라

아, 세상에 태어나
우리 처음 안기는 품도
그대의 품
우리 세상에 태어나
처음 배우는 노래도
그대의 노래

우리의 심장 이리도 높이 고동칩은
그대가 쉽없이 맑은 피를 부어주기때문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꽃이 되어
이 땅위에 피여남은
그대가 따사로운 햇빛을 안겨주기때문

그대의 품에
우리의 운명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그대의 품에
우리의 사랑하는 미래가 있나니

나는 한송이 꽃
그대는 그 꽃을 피워준 대지
나는 하나의 작은 별
그대는 그 별을 빛내여주는 하늘
그 대지위에 뿌리내리고
그 하늘아래 가슴을 펼친
우리의 심장 두려움 몰라라

당이여
우리 가는 앞길에
거친 풍랑과
우뢰와 번개가 놓여있다 하라
그대 배워준 그 걸음으로
그대 배워준 그 노래 부르며 가리라
오직 그대 부르는 한길로!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생각
뜨거워지는 맹세
당이여
이 땅위에 꽃피우리라
그대 위한 그 모든것을!
그대 바라는 그 모든것을!

영원히 당의 부름따라

리광제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조차 말할수 없었던
가슴속 진정을
조용히
그대앞에 터놓던
그 깨끗한 마음으로

깊은 밤
우리는 행복, 받아안은 사랑
생각할수록
심장은 뚫어
그대 우러러 부르던
그 맹세의 노래를 안고

당이여!
그대의 품에 운명을 맡긴 우리
주저도 동요도 없이
오직 그대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가고있어라

때로 비는 내리고
바람은 세차도
얼마나 많은 혁명동지들
이 길에서
영생의 삶을 빛내였던가

수령님을 따라 당을 따라
걸어온 길
생각하노라
찬란한 조선혁명의 년대기우에
별처럼 무수히 반짝이는
그 빛나는 위훈들을

태어나 한생
혁명의 험난한 길을
걸어온 투사들
어찌하여 한목숨 바치는 순간에서도
이 길우에
깨끗한 미소 남기였는가를...

정녕 알수 없었으리
만일 이 길에 서있지 않았다면
정든 집의 웃음소리 왜 그리 맑은지
당이 준 임무 마치고
가책 없이 바라보는
조국의 하늘 왜 그리도 푸르른지...

혁명가의 숭고한 자각
강철의 투지로 끓는
심장의 뜨거움
이것 없이는 단 한결음도
옮길수 없는
성스러운 길!

평범히 이 길을 걸을수 있는것이 아니여라
진심!
참으로 당을 받드는
진심 없이
이 길에서
숨쉴수도
앞을 볼수도 없으리

불타는 충성 없이
따를수 없고
맑은 량심 없이
딛지 못하리니

당이여,
그대의 부름은 얼마나 숭엄한가
이 세상
가장 깨끗하고
가장 빛나는
그대 가리키는 길 얼마나 성스러운가

이 길에 있어라,
백두의 행군길에서 자란
로혁명가들
전쟁과 건설의 불속에서 익세여진
오랜 당원들과 새세대들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
대를 이어 빛내이며
락원의 이 강산에
더욱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며
천만의 심장
하나로 고동치거니

가리라, 우리 억세게
당의 부름따라!
물불을 헤쳐
세상 밝은 웃음 지으며
아름다운 노래 부르며...

사랑의 등대불

김재윤

밤하늘의 달빛도 별빛도

조용히 내려앉아

부러운듯

속삭이여 떠나지 못하는 바다

너의 기슭으로 배를 몰아갈 때면

언제나 그냥 갈수가 없어

등대탑 바라보며 긴 기적을 남기며 간다

은빛 하늘과 바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뜻깊은 서수라의 등대를 바라보며

한없는 감사의 정에 눈시울 적신다

오가는 배길을 비쳐가며

물결과 함께 감박이던

이름없는 등대섬 이 기슭에도

은혜로운 당의 손길은 닿아

불빛은 이리도 눈부시여

만리 배길에서도 우리 못잊는것이 아니냐

부르고불러도

다함없는 그 은혜

사랑의 손품금에 담아시고

이 밤도 깊도록 잠들줄 모르는

등대섬아이들의 노래소리

불빛에 어리어 물결에 비끼여

우리 가슴 이리도 설레이여라

아 불빛이여

한없이 은혜로운 당의 사랑 안고

언제나 빛나는

조국의 불빛이여

이 땅의 한끝에도 외로운 섬바위

그 언제나 밤바다를 밝혀주던

등대원들의 일을 헤아려

나라의 숨은 애국자로 세워주는

당의 그 사랑

그 믿음에 넘치여

가슴뜨거운 불빛

오,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그 언제나 꺼질줄 모르는 등대불!

바라보며 기슭을 지날 때에도

대양만리

파도 사나운 먼바다에 가있을 때에도

그 불빛 가슴에 안고있기에

폭풍속에서도 풍랑속에서도

오직 한마음

충성의 신념 불태워가며

우리 언제나 곧바른 한길을 가노라!

막장에 넘치는 당의 빛발

로종익

당을 사람들은 어머니와 비긴다. 자식마다를 더 없는 뜨거운 정으로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처럼 당의 해발은 그 어떤 능달진 구석이 있을세라 어머니를 뜨겁게 비쳐주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습니다.》

어머니당 6 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 위해 들끓는 검덕광산으로 찾아가는 나의 마음은 벌써부터 설렘였다. 향도의 별빛을 한껏 받아 안으며 줄곧 달리는 검덕의 광부들, 그 막장들, 그곳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있는것일까?

나에게 있어서 검덕광산은 초행길이 아니였다. 먼저번에 간것은 천리마광산칭호수여식때였다. 그때 나는 현대적으로 발전해가는 광산을 돌아보고 옛날의 《두더지굴》, 《죽음의 막장》이 어떻게 즐거운 일터로 변했는가 하는것을 착암공 리동무를 통하여 소개했었다.

그때 나를 흥분시켰던 가지가지의 일들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충충으로 뻗어간 굴길이며 막장마다에서 울리던 기관총소리와도 같은 착암기소리, 전기불꽃을 날리며 오가던 전차며 하루의 로동을 총화하는 축포와도 같은 발파소리... 그중에서도 제일 인상깊은 모습은 착암공 리동무의 일숨씨였다.

리동무로 말하면 《호랑이광부》다. 몸은 그리 다부진 축이 아니고 얼굴은 오히려 가름해보였다.

그렇지만 어떻게나 강기있는지 한번 결심하면 물러설줄을 몰랐다. 내가 만났을 때 리동무는 년간 계획을 떨구기전에는 착암기를 놓지 않겠다며 두달째 막장에서 침식을 하며 하루계획을 2.5 배씩 넘쳐하고있었다. 간부들은 매일 그더러 집에

나가서 설것을 《명령》했으나 그때마다 리동무는 《나의 집은 막장이요!》 하면서 종시 떠나지 않았다.

《나의 집은 막장이요!》

리동무가 이렇게 말할만도 했다.

굴어 넓고 통풍이 잘되어 공기가 좋은 기계화된 막장, 장관바닥에 하얀 회벽인 아늑한 침실이며 학습실, 선전실, 리발소, 목욕탕, 진료소, 식당

들이 늘어앉아 마치고 도시의 어느 한 거리를 련상시켰다.

아마 지금도 리동무는 막장의 《거리》에 있는 침실에서 살며 억척같이 일할것이였다.

(인젠 리동무도 껍 늙었을테지? 아직도 착암기를 잡고있을가?)

나는 그의 변모되었을 모습을 상상해보며 두번째로 막장을 찾아 발길을 옮겼다.

나를 막장으로 태워다줄 인차는 참으로 화려하였다.

《이게 막장으로 가는 인차입니까?》

이렇게 고스란히 의심을 털어놓는 나의 물음에 젊은 광부가 히죽히 웃으며 되물었다.

《우리 광산에 처음 와보는 모양이지요?》

내가 이미 몇해전에 한번 다녀갔다고 대답하자 그는 여전히 히죽거리며 알려주었다.

《그때 동무가 탔던 인차는 용광로에 들어간지 오래입니다. 당에서 보내준 이 인차를 우리는 벌써 3년째 타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 인차를 《사랑의 인차》라고 부른답니다.》

하고 나를 안내하며 나란히 앉았다.

색칠을 곱게 하여 윤기나는 인차안은 전등불이 환했다. 의자는 깃털처럼 폭신했다. 내가 첫번째로 이 굴길을 갈 때의 인차처럼 덜커덩거림도 없이 물우로 배가 가듯 경쾌하게 달리는것이였다.

광부들은 소설책도 보고 기술서적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론쟁도 하고 신문도 읽고 있었다.

《여, 〈밥〉을 굵으니 배고프구만. 빨리 보게.》

나의 옆에 앉은 젊은 광부가 건너편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있는 친구에게 건네는 말이였다.

처음에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건네는말을 더 듣고서야 내옆에 앉아있는 젊은 광부가 낮에 자기 동생이 오늘호 신문을 가지고 학습반에 가는바람에 보지 못했다는것과 그래서 《배고프다》는것을 알았다.

잠후에 신문을 넘겨주며 광부는 한마디 건넸다.

《여보게, 〈밥〉을 든든히 먹고 한바탕 내밀어보세. 오늘 갱장동무가 우리 막장에 와서 남포구멍 하나 뚫는데 5분을 더 단축하는 시범을 보였네.》

《그래?》

이러자 갱장동무가 화재에 오르게 되었다.

갱장이 늘 시범을 창조하여 새 착암대차의 공칭 능력을 1.2 배로 높인 이야기며, 이번에 진행된 공장대학 8 학년 학년말시험에서 최우등을 했다는 이야기며, 며칠전에 트럼페트를 들고 개인경연에 참가했던 갱장의 흉내까지 내면서 저마다 겨금내기로 자기네 갱장을 사랑하는것이였다.

광부들이 번져가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앞장에 서서 내달리는 갱장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차가 도중역에서 섰다. 나는 갱장부터 만나야 했으므로 광부들과 함께 내리어 굴길을 걸었다. 간데라는 비상용으로 어깨우에 걸치였을뿐 불을 켤 필요가 없었다. 전기불이 곳곳에 매달려 굴길을 환히 밝혀주고있기때문이었다.

막장도 어제날의 막장이 아니였다.

우리가 다달은 막장에서는 땅크처럼 큰 착암대차가 여러대의 정대를 동시에 돌리며 암반에 구멍을 뚫고있었다. 안전모자를 머리에 얹은 한 광부가 착암대차를 운전하고있었다. 운전한다기보다 감시한다고 하는편이 나을것이다.

여러대의 수동착암기를 저저마다 잡고 온몸을 떨며 구멍을 뚫던 어제날의 일터가 아니였다. 어제날에는 리동무와 같이 억척스러운 착암공들 한 개 소대가 밀고나가던 굴길을 지금은 혼자서 코노래를 부르며 암반을 헤치는것이였다.

안전모자를 쓰고 착암대차를 운전하고있는 광부가 다름아닌 갱장이라고 젊은 광부가 알려주었다.

갱장과 악수를 나누게 된 순간 우리는 서로 마주 쳐다보기만 하였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잊지 않았다. 갱장은 바로 리동무였다.

갱장으로 성장한 리동무는 매우 의젓하였다. 얼굴도 너부죽해지고 몸도 다부진것이 오히려 그전보다 더 젊어보였다.

그는 천공시간을 5분이나 앞당긴 새 작업방법을 광부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종이를 한장 놓고 연필을 달리며 고차방정식을 풀기도 하고 력학이나 기계에 대한 여러가지 계산을 해나가기도 했다. 광부들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나는 소년광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막장에서 일해온 리동무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운전하던 착암대차는 실로 어마어마한 기계인데 비하면 고도로 자동화된 정밀기계였으나 리동무는 그 속내를 속속들이 알고있었다.

내가 먼저 다녀간 이후 리동무도 광산도 몰라보게 변했다. 보는것마다 새롭고 웅장하였다.

《그러니까, 수동착암기도 용광로에 들어갔겠군요?》

나는 감탄조로 이렇게 물었다.

《그뿐이 아닙니다. 큰돌을 깨던 메도 버력을 담아 나르던 어랭이도 벌써 이 막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렇게 고속도로 뜯어낸 쇠돌은 전차가 아니라 지하장거리벨트콘베어로 날라간답니다. 그러니 인젠 이 손이 어데 쓰이겠습니까? 허허, 이 손이 이렇게 호강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지요.》

나는 리동무가 내미는 손을 보았다. 굴일에 장일이 박여 맞비비면 자갈소리가 날 오랜 광부의 손이었다.

리동무는 나를 데리고 다니며 그동안 전혀 모습을 달리한 막장을 보여주었다. 옛날에는 광부들이 많던 막장마다에는 각종 형태의 성능 좋은 자동채굴설비들이 들어차있었다.

《나의 집은 막장이요!》

하던 리동무의 말이 다시 귀전에 스치였다. 나는 땅속깊이에 들어왔다는감을 느끼지 못했다. 광부들은 희열에 넘쳐 일하고있었다.

《지금은 침실이 어데 있습니까? 아직 그전 그 자리에 있는가요?》

나는 리동무가 《집》이라고 일컬은 그 침실을 보고싶어 이렇게 물었다.

《침실이요? 침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리동무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펴 도는것이였다.

그는 왜서인지 말을 더 잊지 않고 앞에서 걷기만하였다. 나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한참이나 말없이 걸던 리동무는 네온등이 류달리 밝게 빛을 뿜는 막장전투지휘부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바로 여깁니다.》

리동무의 눈에는 끝내 눈물 한방울이 맺혔다. 그는 감격에 목매여 갈린 소리로 말했다.

《1975년 7월 1일이였습니다. 그날 일을 정말이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날 광부들은 또한번 커다란 감격에 목이 메였던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당에서는 검덕에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꽃을 지펴주고 현대적인 광산기계들을 보내주었고 모두다 높은 지식으로 무장한 광부가 되도록 광산대학에서 공부하도록 배려해주었다.

리동무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 은혜에 천분의 하나, 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려고 우리는 이 막장을 집으로 여기고 일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또 생활조건이 너무 좋기에 구태여 난장으로 나가고싶지 않아서 때로는 막장에서 침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전날처럼 한두달씩 내쳐 있던것도 아니고 간혹

하루이틀 막장에서 자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광부들을 아껴야 한다며 단 하루도 막장에서 자지 못하게 아예 침실을 없애는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리동무는 손수건으로 눈굽을 짖으며 그날의 감격에 그만 목메이었다. 그는 좀후야 갈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보다싶이 난 또 얼마나 몸이 더 건강해졌습니까. 나쁜이 아닙니다. 끼마다 명절날처럼 식탁에 다양한 음식을 푸짐히 차려주니 광부마다 젊어지구 더 몸들이 튼튼해질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당에서는 지하전선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나라의 보배라면서 최근에는 수천명의 광부들에게 록용 주사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 주사약이 피가 되어 우리 광부들의.혈관에서 흐르고있습니다...》

리동무는 목안에 불뭉치가 막힌듯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하고싶어하는 말을 다 알수가 있었다...

그날의 기쁨인양 막장에는 태양등들이 대낮갈

이 환히 밝았다. 그 불빛을 보며 나는 당중앙위원회청사의 한 창문에서 깊은 밤에도 꺼질줄 모르고 빛나는 그 향도의 불빛을 바로 여기서 보는것 같았다

당중앙에서 여기 막장에까지 비쳐온 빛발!

어찌 그것이 검덕에만 비쳐오는 빛발이라. 그 어느 막장도 다 찾아주는 향도의 빛발!

그것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령도의 빛발이며 인간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여기어 끝없이 아껴주는 사랑의 빛발이었다.

그 빛발이 있어 검덕은 물론, 막장이 있는곳마다에서, 아니 이 땅의 모든곳에서 사람들은 행복하고 긍지높은 로동당시대를 노래하고있으며 오늘도 3 대혁명의 기수로 세월을 주름잡으며 힘차게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엔 그 모두가 어머니당 6 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하여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작가결의

청춘의 안목으로, 그 정열로

박세영

옛날에는 새해가 오면 늙은이들은 울면서 나이를 먹고 아이들은 웃으면서 먹는다고 하였다.

이 말은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 하면 새해는 나에게 기쁨을 주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주체의 조국은 나에게 매해 젊음을 안겨주고있다.

이번 새해에 나는 일흔아홉살이 되었다. 올해에도 역시 나는 한살 더 늙어진것이 아니라 한 살 더 젊어졌다.

1980년은 얼마나 희망찬 해인가. 지금 온 나라는 10월에 열리게 될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하여 드높은 혁명적 열정과 기백으로 들끓고있다.

이 거세찬 투쟁속에서 새해를 맞이한 시인인 나의 마음은 그 어느때보다도 벅찬 감격과 흥분으로 끓어오른다.

위대한 수령님께 온몸 온 심장을 다바쳐 충성한 숨은 영웅들인 백설희, 김상련, 박영철동무들처럼 일하며 생활하려는 불타는 결심을 품고 나

는 새해 창작전투에 들어섰다. 나는 올해에 시상의 날개를 더 활짝 펴고 훌륭한 서정시를 쓰기 위하여 온 심혈을 기울이려다.

지난날 일제의 압박밑에서 피눈물속에 글을 써온 나를 주체시대의 시인으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품을 생각할 때 무엇을 아꼈것이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은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올해에는 당 6차대회를 맞는 들끓는 현실속에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청춘의 기백으로 창작할 결심이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위대한 수령님께 거대한 로력적성파로 충성의 보고를 드리며 당 제6차대회를 축하할 때 나는 반드시 훌륭한 작품, 서정시의 꽃다발을 드리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성의 송가

-가사 《어머니. 당이여》에 대하여 -

리시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당이란 가장 숭엄하고 뜨거운 사상감정으로 불리우는 귀중한 존재이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귀중한 칭호를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하여 자랑스럽게 부르고 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을 곧 당의 품으로, 당의 품을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여기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충성으로 반 들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큰 기쁨이며 영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결음도 전진시킬 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우리 혁명의 향도적기치인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있는 주체형의 당,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이다.

우리 당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얻었으며 그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은 비상히 높아졌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혁명적원칙성과 견결한 반제적립장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국제적위업과 세계혁명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하여 국제로동계급의 믿음직한 전위부대의 하나로 되었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과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높은 권위와 존엄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위대한 당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이다.

우리 인민들모두가 숭엄한 감정을 안고 부르는 노래 《어머니당이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체형의 당,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신뢰와 충성의 고귀한 감정이 아로새겨져있다.

가사 《어머니당이여》(김재화)가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며 당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것은 영광스러운 당에 대하여 우리 인민모두가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가장 소중히 그리고 절절하게 체험하고있는것을 꾸밈없이 진실그대로 노래했기때문이다.

어머니당! 우리 인민은 당의 품을 자애로운 어머니에 비유하여 친근하게 부르고있다. 당은 어머니와 같이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다.

우리 인민의 모든 생활과 조국의 운명은 당과 잇닿아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우리 인민모두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으로 부르는 이 숭고한 사상감정은 당의 기치따라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온 실지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굳건히 다져진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표현이다.

가사 《어머니당이여》에는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에서 우러나오는 뜻깊은 사상과 불같은 열정이 차넘치고있다.

가사는 짓밟혔던 조국을 력사의 상상봉으로 이끌어올리고 인민의 천만가지 소원을 다 풀어주며 보다 휘황한 미래에로 이끌어가는 당의 은혜로운 빛발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땅위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삼천리강산에 빛을 뿌리고
인민들 가슴에 희망을 주네
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이여

당에 대한 가장 일반화된 사상감정을 노래한 이 구절들이 그대로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안겨오는것은 그것이 생활적이면서도 전형적인 인간감정의 정서적표현으로 되기때문이다.

생활이 불러일으킨 시적체험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노래함으로써 가사는 시적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가사는 첫시작부터 생동한 시적비유로써 당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절절한 서정속에 끌어들이는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땅위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빛을 뿌리고 희망을 주며 조국과 인민을 행복한 길로 이끄는 당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며 끝없는 궁지와 환희에 잠기는 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체험이야말로 얼마나 진실하고 생활적인가!

당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양양된 서정적체험은 후렴에서 고조되며 폭발된다.

《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이여》 끝없는 신뢰와 감사의 정을 담아 당을 격조높이 칭송한 바로 여기에 생활속에서 파악된 가사의 고유한 사상적 알맹이가 있다.

가사에서는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두터운 신뢰와 그 품에 안겨사는 끝없는 행복과 감사의 정을 깊이있게 일반화하였다.

가사의 2 절은 당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사상감정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고있으며 일층 고조된 서정으로 발전시키고있다.

그대의 사랑은 따사로웁고
그대의 기발은 찬란하여라
우리의 투쟁에 승리를 주고
우리의 앞길에 영광을 주네

가사의 구절마다에는 깊은 뜻이 깃들어있고 한 두줄의 시행속에도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큰 사상이 담겨져있다..

당의 품을 우리모두에게 참된 삶과 행복을 주는 따사로운 사랑의 품으로, 당의 기치를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어나가는 찬란한 기발로 노래한 서정적주인공의 사상정서는 생활속에서 우리나라의 얼마나 건실한 감정의 표현인가.

가사는 심오한 사상을 진실한 서정의 흐름속에 융합시킴으로써 정서적공감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깊은 뜻이 담긴 가사의 구절구절은 혁명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며 고무자인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불패의 위력을 가슴깊이 새겨 보게 한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당의 빛발아래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섰다. 쓰라린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던 우리 인민은 바로 당의 빛발아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긍지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자라났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끝없이 번영하는 오늘의 사회주의조국을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 혁명의 빛나는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가사의 구절구절은 우리 인민이 생활체험을 통하여 체득한 이 고귀한 진리를 힘있게 깨우쳐주고 있다.

우리의 투쟁에 승리를 주고 우리의 앞길에 영광을 주는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고마움과 신뢰의 정은 그 얼마나 뿌리깊고도 절절한것인가.

가사의 3 절에서는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 따라 광활한 미래로 달음쳐가는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과 영원히 당과 함께 싸워나가는 철석같은 결의가 힘차게 울리고있다.

하늘에 비기라 그대의 사랑
바다에 비기라 그대의 은혜
우리는 행복한 당의 아들딸

광활한 미래로 달음쳐가네

가사에 표현된 어머니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진정한 감사와 신뢰의 감정은 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굳은 결의와 잇닿아있으며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당의 부름에 충실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목숨으로 보위하려는 숭고한 사상의 반영으로 된다.

가사가 이처럼 큰 사상정서적감동을 주는것은 서정적주인공의 사상감정이 명백하고 적극적이며 열렬하기때문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예술에서 정서와 감정은 명백하고 열렬하고 예리해야 한다. 정서와 감정이 열렬하고 적극적일수록 작품의 감동은 커진다.

이 가사는 깊은 정서가 강렬하게 안겨옴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고 그들에게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준다.

가사에는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는 확신에 넘쳐 광활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전투적기백과 혁명적 열정이 차넘치고있다.

가사에 노래된 당에 대한 사상감정이 사람들에게 뜨겁게 안겨오는 중요한 까닭은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을 풍부한 시적형상속에 노래한데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가사의 생명은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 어떤 사상적내용을 얼마나 높은 시형상으로 노래하는가에 따라서 가사의 질과 극의 사상예술성이 좌우된다.

가사 《어머니당이며》에서는 심오한 사상이 생동하고 정서적인 시형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 나오고있다.

시적형상의 함축성과 간결성은 이 가사의 형상적특징으로 된다.

가사형상이 고도로 함축되고 간결하게 집약됨으로써 대중이 쉽게 내용을 파악할수 있으며 그 뜻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가사에서는 말하려는 사상의 핵을 틀어쥐고 대를 똑바로 세워나감으로써 철학적 내용의 심도와 구성의 치밀성, 간결성을 보장하고있다.

가사 《어머니당이며》는 감정조직을 잘함으로써 서정적주인공이 체험한 생활감정가운데서 오직 정수적인것만 담게 되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은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는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시적형상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생활체험에서 우리나라의 감정조직과 축적의 진실성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이 가사는 매 절의 전반에서 구체적인 생활정

서에 의하여 감정의 충분한 축적을 이루고 그에 기초하여 후렴에서 격렬한 내부적 체험을 폭발시킨다.

가사에서 당의 현명한 령도와 불패의 힘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정신적 체험은 어머니당에 대한 열렬한 칭송으로 고조된다.

《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이어》 수사학적부름말로 된 이 후렴구는 적극적으로 열렬한 사상정서가 깃든 빛나는 시구이다.

가사의 모든 절들에서 사상정서적고조점을 이루는 이 구절은 당에 대한 사상감정이 가슴을 치도록 뜨겁고 진실하게 안겨오기때문에 사람들에게 정서적감동을 준다.

가사에서 서정발전은 련별로 점차 고조되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며 주제사상이 완전히 천명된다.

1, 2 절에서 당에 대한 두려운 신뢰와 흠모의 정을 심오히 일반화한데 기초하여 3 절에서는 승리 대한 확고한 신심과 당과 함께 영원히 싸워나가는 뜨거운 열망으로 고조된 사상감정을 웅장한 서정의 폭발로 터치고있다.

이 가사가 것처럼 짙막하고 작은 그릇에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풍부한 사상적내용을 담을수 있는것은 감정조직과 축적을 치밀하게 한것과 함께 비유와 상징, 대구와 같은 다양한 형상수법들을 적절하게 쓰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가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많은것을 깊이 생각할수 있게끔 모든 형상수법들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최대한으로 시화하고 형상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가사에서는 다양한 형상수법을 효과적으로 살려 씀으로써 사상감정이 뚜렷하고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은 시로 되게 하였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땅위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이러한 협상적인 비유는 삼천리강토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 인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주는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을 얼마나 훌륭하게 형상적으로 표현하고있는 상징적인 말인가.

가사의 모든 절들에서 대구적인 형상수법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가사의 구절을 될수록 간명하게 만든것은 가사의 사상적명료성과 음악성을 한층 높이게 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

그대의 사랑은 따사로웁고

그대의 기발은 찬란하여라

이러한 대구적표현은 한구절만 떼어도 다음구절을 따라외울수 있게 하고 누구나 쉽게 내용을 알수 있게 한다.

가사에서 대구적표현수법의 적절한 리용은 매절의 사상정서적내용을 생동하게 살리면서도 풍만한 정서가 흐르게 하고 여운을 남기게 하고있

다.

이와 같이 가사에서 다양한 형상수법들을 리용하여 최대한으로 시화하고 형상화한것은 가사를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게 하고 가사를 보고 사람들이 많은것을 생각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가사의 시적언어형상은 가장 세련된 형상적인 시어들과 소박하고 류창한 운률을 살려쓴것으로 하여 특징적이다.

가사의 1 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소박하고 생활적이며 정서적인 시어들로 가득차있는가.

《하늘》과 《땅》, 《태양》과 《강물》, 《빛》과 《희망》과 같은 말들은 뜻이 명백하고 정서적색깔이 뚜렷한 시어들로써 맑은 정서를 안겨주고 있다.

2, 3 절에서 반복되는 《그대》라는 말은 당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적절하게 쓰이고있다.

가사에서는 시어를 잘 골라쓴것과 함께 음악적 흐름에 맞는 시문장을 잘 짜고있다.

하늘에 비기랴 그대의 사랑
바다에 비기랴 그대의 은혜

가사의 문장구조는 말하려는 사상감정의 핵을 뚜렷이 살리면서 알기 쉽고 명백하게 되었으며 유순하고 운률적으로 되어 있다.

가사는 서술식문장을 끌어들이지 않고 음악적 흐름에 맞는 시문장을 짤으로써 류창하게 읊을수 있고 노래부를수 있게 되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가사에서는 시어를 잘 고를뿐 아니라 운률을 잘 조성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

가사에서는 6, 5조를 기본음조로 하고 대구법과 자리바꿈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밝고 선명한 정서속에서 순탄하고 평이한 운률을 살리고있다.

가사의 운률은 류창한 선률의 흐름을 타고 불리워질수 있게 류창하고 순탄하게 흐르고있다.

이 가사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이 불리우고있는 까닭은 이와 같이 가사의 간결한 구조와 평이한 언어표현, 류창한 운률적특성과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가사 《어머니당이어》는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두려운 신뢰의 정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노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널리 울려 퍼지면서 그들을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 하고있다.

우리 시인들은 영광스러운 당에 드리는 충성의 송가를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교양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에 더욱 힘차게 고무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작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우리는 1980년대 첫해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디디면서 우리의 민족문학건설에서 새로운 또하나의 이정표로 되는 조선작가 동맹 제3차대회를 가지었다.

대회에 참가한 우리 작가들은 당신들, 남조선작가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우리의 성스러운 사명을 함께 론하지 못하는 아쉬운 심정을 통감하면서 이 호소문을 보낸다.

문학은 민족의 넋이며 시대정신의 거울이다.

작가는 민족의 량심과 지향의 옹호자이며 시대정신의 기수이다.

우리 민족의 그 모든 아름다운것과 슬기로운것, 우리 민족의 억센 기상과 불굴의 투지를 문학작품에 진실하게 그려냈을때 비로소 작가는 시대앞에,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게 되는것이다.

백두산천지로부터 한나산백록담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강토, 이 강토의 허리가 끊기고,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며 살아온 민족, 이 민족이 서로 헤어져사는 오늘의 비극적 사태는 우리 작가들의 심장과 심장을 그 얼마나 아프게 하고있으며 우리 작가들의 리성과 량심을 그 얼마나 통절히 깨우쳐주고있는가.

남조선에서 한 독재자는 제거되었어도 그 무덤 위에 솟아난것은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유신》잔여세력들의 폭압과 광란적인 칼부림이다.

외세의 전횡밑에 민족산업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빈궁에 시달리는 음산한 거리에는 실업자의 무리가 떼지어흐르고있다.

삼남곡창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굶어죽고 얼어죽고 어린것들이 앓는 어머니의 약 한첩을 위해 눈을 파는 기막힌 사실이 당신들 눈앞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왜색과 양풍의 탁류속에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미풍량속이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며 아름다운 우리 말은 날이 갈수록 더럽혀지고있다.

진실을 그린 문학작품들은 《유신체제》의 총검 밑에 매장되며 진리와 량심을 호소하는 작가들은 감옥에로의 길을 면할수 없는것이 오늘의 남조선이다.

이 참혹한 현실앞에서 시대의 지성인인 당신들, 남조선작가들이 어찌 의분을 누르고 침묵할수 있겠는가.

조국과 인민, 력사와 시대는 당신들의 심장을 두드리고있다.

독재인가 민주인가, 예속인가 자주인가, 분열인가 통일인가, 이 갈림길에서 당신들은 과연 어느 길을 택할것인가.

당신들은 어느 길에 참다운 문학이 있다고 보는가.

참된 문학은 인간의 자주성과 민족의 자주권을 찾고 분열된 강토에 통일의 새날을 안아오기 위한 그 길에 있다.

력사의 흐름과 시대의 맥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민족의 오늘을 방관하며 민족의 래일을 외면하는 문학, 그것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나 인민의 버림을 받아왔다.

우리 시대의 문학이 어찌 인민의 억압자, 인민의 고향을 찢먹는자들의 사상적 마약으로 될수 있으며 당신들이 어찌 《유신체제》를 찬미하는 사상적머슴군으로 될수 있겠는가.

력사의 흐름에 적극 참여하고있는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인민의 편에 서서 온갖 악과 불의로 가득찬 남조선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폭압에 항거하고있으며 굴종이 아니라 애국의 지조를 지켜 철창속에서도 량심을 소리높이 선언하면서 인민들을 참된 삶의 길로 고무하고있다.

그렇다, 이는 정의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심장으로 민족의 수난을 체험하며 정의로운 필봉으로 민족의 량심을 웨치는 인민의 문학이며 진리의 목소리이다.

남조선작가들이여!

독재의 총검에 민주주의가 피를 흘리고 분렬의 비운에 강토가 몸부림치는 이 준엄한 시기에 깃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찾고 조국분렬의 참극을 가시기 위한 의로운 길에 더욱 과감히 나설 때는 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당신들이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반파쑸민주화를 위한 그 기세에 적극 합세하여 정의와 구국의 필봉을 높이 들고 나갈것을 호소한다.

이 길에서만이 시대의 선각자인 작가로서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성을 찾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은 민족의 분렬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통일만을 원하고있습니다.》

3분의 1세기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 어느덧 두 세대가 바뀌어져가는 이 참을수 없는 민족분렬의 역사를 더는 지속할수 없으며 갈라진 조국을 우리는 절대로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다.

이 절박한 시대의 호소는 우리 작가들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분연히 일어나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창작적 열정과 재능을 다 바쳐 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의 작가들이여!

우리는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자란 조선의 작가들이다.

우리는 작가이기전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녀를 가진 사람이여야 한다. 한줄의 글을 써도 민족을 위해 쓰고 하나의 작품을 써도 나라를 위해 쓰는것이 조선의 작가의 본분이 아

닌가.

항쟁의 부산과 마산, 항쟁의 거리와 마을, 민족의 모든 량심과 세계의 지성은 당신들이 쥐고있는 붓끝을 지켜보고있다.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외세를 반대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지켜 인민을 민주를 위한 길로, 조국통일을 위한 길로 힘차게 불러 일으키는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라!

자주가 없는곳에는 예측과 굴종만이 있고 민주가 없는곳에는 압제와 무권리만이 있다.

예로부터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인민을 위한 작가들은 민족이 예측되고 인민이 무권리와 암흑속에서 신음할 때 언제나 치솟는 분노로 압제자들을 단죄하였고 굴할줄 모르는 량심의 목소리로 인민들을 깨우치고 선도하였다.

《유신체제》는 파멸의 운명에 직면하고 있다.

남조선작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민주구국을 위한 힘찬 전진에 발걸음을 합치라!

단결만이 살길이며 단결만이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가는 길이다.

우리 북과 남의 작가들은 조국과 인민이 겪고있는 분렬의 수난을 직접 체험하고있는 지성인으로서 서로 주의와 사상이 다르고 리념이 다르다해도 이 모든것을 초월하여 만족적량심과 애국애족의 감정을 합치여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오자.

남조선작가들이여!

우리 북과 남의 전체 작가들은 마음과 붓을 하나로 합쳐 우리의 슬기롭고 아름다운 민족문화를 통일된 삼천리강산에 찬란히 꽃피워나가자.

통일된 하나의 조국강산에서 북과 남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마음껏 노래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모두 시대와 력사의 부름을 안고 힘차게 전진하자!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
1980년 1월 10일 평양

이웃에서 온 사람

안동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픈 말을 한다는것이 결코 미운 사람 욕하듯 쉽지 않다는것을 처음 느끼는 것은 아니건만 오늘 직장장 허진석의 당생활에 대한 보고자료를 준비하는 부문당비서 박세인의 마음은 여느때없이 무거웠다.

더구나 좀전에 당위원회로부터 이웃 일용품공장초급당비서가 이번 회의에 방청격으로 참가한다는 놀랍고도 희귀한 사실을 전달받은 다음부터 박세인은 허진석에 대하여 다시한번 더 생각하며 글마디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책상우에 비스듬히 금빛 실발을 드리우던 노을빛이 사그러지자 방안은 저오기 어두워졌다. 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주먹을 불끈 쥐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후 전기스위치를 넣었다.

이때 문기척소리가 울리며 두터운 도수안경을 낀 몸이 훌쩍한 사람이 들어섰다.

문쪽을 지켜보던 박세인은 얼굴에 친절한 미소를 담으며 마주나갔다.

《어떻게 여길 다 오십니까?》

《내가 여기에 못올 사람이요?》

싱그레 웃으며 도수안경을 벗어 천천히 손수건으로 닦은 그 사람은 차분한 시선으로 방안을 세심히 살폈다.

《오신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박세인이 자리를 권하자 그는 책상끝에 가앉았다.

책상우에 두팔을 무겁게 올린 그는 쓰다 만 보고서를 힐끗 보고는 미간에 주름을 모으며 담배를 꺼내었다.

이 틈을 타서 세인은 출장이나 온 당원처럼 범상한 태도로 나타난 이웃 일용품공장의 초급당비서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서재의 학자를 련상시키는 잔주름 가득한 높은 이마, 짧게 깎은 머리, 드문히 쉬었다고 할것이 아니라 꼭 찼다고 해야 할 흰 머리칼, 술이 좋은 머리여서 물을 들이면 십년은 젊어보이련만...

구역당회의실에서 보게 되는 당비서들중에서도 그중 나이가 많아보이는 사람이였다. 그 나이타인지 학습회나 회의 중간휴식시간이면 언제 한 번 이야기판에 끼여드는 일없이 신문을 보든가 노트에 무언가 끄적끄적 적으며 사업연구에만 심취해있는듯싶은 사람이였다. 물론 이와 다르게 이따금 노동자들속에 섞여 떠들썩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희열에 넘친 걸음을 옮기는 그를 본적도 있었다.

《허진석동무의 생활을 가지고 토론한다지요.》

담배를 붙여문 초급당비서 리원익은 두눈을 가느스름하게 조프리고 박세인을 쳐다보았다.

세인이가 무어라고 대답할가 주뭇거리는데 그는 빙긋이 웃었다.

《남의 사람이라고 허물하지 마요.》

그리고는 세인으로 하여금 말머리를 뻗 여유를 주려는듯 눈을 내리깔고 담배대를 뱅글뱅글 돌리며 장난을 했다. 손잔등에 길쭉하게 난 흠집이 전등빛에 번쩍했다.

세인은 이 영예군인 당비서를 볼 때마다 은근히 받아안군하던 선망과 존경의 감정을 지금도 똑같이 무겁게 느끼며 말꼬지를 인차 뻗수 없었다.

그러자 초급당비서는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불만이라도 생긴듯 낮을 찡그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알고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전쟁때 그의 정치 부중대장을 한적이 있었소. 그때 그는 분대장이었지요.》

그리고는 어딘가 어색한, 체면쩍은 눈길로 세인을 바라보았다.

세인은 자기의 침묵이 그에 대한 불신임처럼 표시되었다는 감촉에 당황했다.

《그건 알고있습니다.》

이 순간 세인의 뇌리에는 룡라도구경을 갔던 날이 떠올랐다.

오락회도 하고 배구도 하며 해종일 법석거리다가 간단히 맥주도 마신후 귀로에 올랐을 때였다.

북이며 나팔이며 하는 공장회관 악기를 잔뜩 실은 자동차에 오른 세인리와 진석은 함께 탄 젊은이들한테 질세라 《달려라 자동차》를 소리높이 노래부르며 가슴을 부풀고였다.

차가 대타령 로타리를 도는데 갑자기 허진석이 가 벌떠덕 일어서며 자동차운전실문을 두드렸다.

차는 멈추는곳이 아니기에 좀더 나가서 섰는데 허진석은 젊은이들한테 자주 얘기하던 전쟁시기 경찰병의 본때를 보여줄셈인지 달리는차에서 허양 떨어져 깨끔질을 몇번 하고는 튕긴듯 달려갔다.

《저 사람이 취한게 아니야?》

하는 떠들썩한 소음을 뒤에 남기고 달려간 그는 가방을 옆에 끼고 부지런히 걷는 반백의 호리호리한 사람을 엿어질듯하며 불안한것이였다. 불의의 역습에 놀란듯 한손을 안경에 가져간 길손

은 한동안 진석이를 어리둥절해보다가 전기에 닿은듯 몸을 떨며 힘껏 그러안았다.

그날밤, 세인이가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계단을 요란스레 울리며 허진석이가 달려올라왔다. 꿈에 취한 소년처럼 흥분에 두눈이 흐릿해진 그는 《부문당비서동무, 이 세상에 없는줄 알았던 사람을 만났소. 우리 정치부중대장을... 강철같은, 참으로 용감한 진짜 영웅이요.》하며 목메어 속삭였다.

그후 명절이면 진석은 아이들을 데리고 구렁에 술이며 맥주며 당과류같은것을 넣어 들고나갔다 돌아올 때 세인이가 보게 되면 아이들 손에마다 파자통이 들려있는데 진석의 구렁에는 가지고갔던 술병이 그대로 있었다.

《우리 부중대장이 주동무하고는 친하지 않겠단 누만.》

그 덕분에 얼굴이 말개서 돌아오는 진석이었지만 몇잔 한 사람보다 더 흥에 떠있었다. 아이들은 《새로 생긴 큰아버지》가 제일이라고 재잘거렸다.

한데 이상스러운것은 진석이가 정치부중대장과 함께 싸운 전투담은 한번도 꺼낸적이 없었고 지금도 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진석동무가 일을 잘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알고싶어 왔습니다.》

리원익당비서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끄고는 책상에 떨어진 재가루를 손가락끝으로 묻혀서 재떨이에 털었다. 손가락이 알릴듯말듯 떠는것만 같았다.

그는 거의 침통하다고 할 어조로 계속했다.

《구역당에까지 제기되었으니 간단치는 않겠지요?》

불안 서린 눈길이 세인의 얼굴을 스쳐지났다.

놀라움 비긴 눈길로 원익당비서를 쳐다보는 세인의 가슴에는 따뜻한 감정이 봄물처럼 밀려들었다.

(옛전우의 일이 근심되어 왔구나. 늙은 부모가 젊은 자식을 걱정해 찾아오는것과 비슷한 그 무엇이 있지 않는가.

쉬운 걸음은 아니였을테지. 여러모로 생각다가 만사를 제끼고 전우의 일때문에 우정 찾아온것이구나.)

세인은 이 당비서의 마음에 얹혀진 그늘을 말끔히 씻어버리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오늘 보고문 쓰기를 힘들게 한 원인으로 된, 파오를 범한 진석이가 사실상 우수한 직장장이었다는것을 상기하며 저으기 가벼운 심정으로 대답했다.

《큰 결함은 아닙니다. 그는 일을 잘하는 동무였습니다.》

그 말에 리원익은 재가루를 묻히던 손을 내리

우고 반기는듯 아니면 더 좋은 말을 기다리는듯한 눈길로 세인을 쳐다보며 입가에 한줄기 웃음을 그렸다.

분명 기뻐하는 그 모습에 세인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피와 불속에서 맺어진 전우의 정은 하많은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이 없구나. 아니, 그것은 한갓 정이라기보다 인간에 대한 호상책임의 숭고한 높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관심의 표현이 아닐가.

당원이 당원에 대한 관심.

아직 우리 사회에서 간혹 어떤 사람은 아는 사이라 해서 무원칙하게 비호하는것도 있지만 《안면 관계》라는 시비가 두려워 깊은 파악이 있는 사이임에도 그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싹 외면하고 아닌보살하는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로당원 당비서는 얼마나 뜻깊은것을 가르치고있는가.

이런 상념으로 하여 세인은 더욱 기분이 밝아져 말을 이었다.

《이번 파오는 그대로 스쳐지날수도 있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 깨닫지 못하기때문에 그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푹푹히 방조를 주는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세인은 발생된 사태의 몇가지를 추려 말하기 시작했다.

이들전 日공장으로 보냈던 공기합마 3대중에서 2대가 되돌아왔다. 그곳에서는 한대를 먼저 설치하고 며칠 돌렸는데 고장이 났다는것이다. 원인인즉 주물을 한후 기통웃모서리의 모래를 제대로 떨구지 않아 가동중에 모래알들이 기통벽을 긁어 공기가 샌다는것이다. 그들은 설치 안한 두대를 마저 검열하고 같은 형편이라 되돌려보냈던것이다.

이 공기합마는 공장적으로 제일 바빴던 10월에 만들어졌다. 겨울나이준비와 함께 탁아소건설로력이 뭉쳐 떨어진데다가 계획은 추가까지 되어 늘어났다. 그런데다가 제대군인들의 합숙건설을 빨리 끝내려면 로력을 더 내야 했다. 참모회의에서 로력예비를 낼것을 호소했을 때 어데서도 선티 나서지 않았다.

그런때 허진석이가 일어났다.

《우리 직장 사락작업반에서 세명을 내겠습니다.》

참모회의에서는 그의 일본새를 혁명적이라고 칭찬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후에 직장별 생산실적에서 주물직장이 가공직장에 비해 뒤떨어졌다.

이 사실을 안 허진석은 그날밤부터 뒤떨어진 부문인 사락작업반에 내려가 전투를 벌렸다. 9명이 3대를 떨던것을 일곱명이 10대를 떨었다.

가공직장을 앞선 날 허진석은 체육관관람을 조직하였다...

《그런데 허진석동무는 기계가 되돌아온데 대해서 뜨끔해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도 있지 않는가. 그 친구들이 괜히 배부른 흥정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세인은 허구픈 웃음을 지으며 원익비서를 보다가 내친김이라 다 쏟아놓는다는식으로 계속했다.

《이런데로부터 철없는 일부 동무들도 그의 말을 따라와우며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거지요. 사실 B공장은 녀성들로 갓 꾸려진 공장인데다가 한번 우리들의 량심에 침을 놓느라 기계를 되돌려보낸것인데 우리의 자세가 이 모양이니 야단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크게 아닙니다.》

문제로 되는것은 거칠게 일하게끔 내리먹이고 <모범>을 보이고 자기가 한것은 무작정 옳다는식으로 고집하는 그의 사고관점이라 할가 그것이 가슴아픈 일이지요.

이 독선과 독단의 싸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변저나가겠습니까. 한데는 그가 이제 생활의 첫걸음마를 떼게 되는 젊은이가 아니라는것 역시 심각한 문제지요.

자기 머리속에 오랜 세월을 두고 쌓아온 사업과 생활에 대한 관점의 전반을 고쳐 다시 쌓는 힘든 투쟁으로 될것이거든요.》

세인은 자기 낮빛에서 풍기는 서글픈 색조를 덜양으로 말을 꼬아 하며 또 한번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원익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듣다가 쓰다만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일별하고는 소리없이 일어섰다.

《그 동무의 잘못에는 내 탓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토론을 들으며 나도 배우고 또 그 동무를 위해 필요하다면 몇마디 말이라도 해주려고 합니다.》

세인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직장구경을 하겠노라고 밖으로 나가는 원익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앓을념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흰눈이 술금술금 내렸다.

원익은 머리를 제끼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컴컴한 하늘에서 어찌면 저렇듯 신비로운 꽃잎들이 쏟아져내릴가. 팔랑거리며 떨어지는 눈꽃들은 그의 단 이마에 부딪쳐서는 좁쌀알보다 더 작은 물방울로 되었다. 그러나 하나, 둘, 셋을 세는 사이에 얼굴은 비맞은 뒤처럼 축축히 젖었다.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뽀뽀 문댄 원익은 이제 자기 얼굴에 화기가 돌것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타향에 온 나그네가 주변의 모든 풍경과 음향을 호기심에 차 감수하듯 들리는것 보이는것 모든것에 관심을 두며 걸다가 길옆에

솟은 게시판 앞에 멈춰섰다.

게시판꼭대기 좌우랑끝에는 포아리형으로 묘하게 만든 형광등 두개가 걸려 유난스레 시선을 끌었다. 그는 이런 형광등을 착안한 사람은 젊은이건, 늙은이건간에 재미있는 재간둥이라고 넘짚으며 써붙여놓은 글들을 읽었다.

《프레스가 우리를 추격한다. 정신을 차리라!》

《〈3 대혁명붉은기청취운동〉에서 우리 직장이 달성한 성과》

프레스라는 글은 갈색으로 작게 쓰고 우리 직장이라는 글은 붉은색으로 큼직하게 썼다. 그 아래에는 공장정문앞에 붙인 직장별경쟁순위도표를 축소해서 옮겨그려놓았다. 주물직장이 아니라 우리 직장이라고 큼직하게 쓴 자리우로 굵직한 도표선이 다른 직장것을 떨구고 기를 뻗쳐서 앞으로 내닫는것이였다.

《단연 1 등이로군.》

원익은 빙그레 웃으며 손가락으로 턱을 슬슬 쓸었다. 그는 게시판이 신통히도 허진석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모름지기 눈썰미가 빠르고 패기있는 직관원을 데리고있으리라. 그 직관원은 직장장의 행동과 걸모양을 꽤 따르는 사람일수도 있으며 그것이 차라나 모든것을 보고 판단하고 일하는데서 직장장과 비슷해질수도 있으리라.

원익은 군대에서 소대나 중대가 그 지휘관의 성격과 말투, 행동거지까지 닮게 되는것처럼 사회역시 매개 직장들을 그 직장책임자들의 개성적특징과 떼어놓고는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그는 직관원이 직장에 대한 공지와 애착을 글씨의 크기와 《우리》라는 대명사의 반복으로써 표현한것을 기록하게 보면서 이 직장은 일정하게 호홉이 맞는다는것을 알았다. 나가서 아까 부문당비서가 진석이가 일을 잘했다고 한 말은 결코 자기를 위안해주기 위한 결치레말이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진석은 사람들의 호감속에 있는것이다. 미움을 받는, 경원시되는 일군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다는것은 일군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보물인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는 병집은 간단한것이 아니다.

그만치 이번 회의는 심각할것이며 그라는 인간의 일생에서 어떤 운명적인 매듭을 짓고 넘어갈 진통기로 될수도 있을것이다.

(그가 어떻게 나올것인가...)

원익의 마음은 우울해졌다. 그의 머리엔 진석이에 대한 잡다한 상념이 떼구름처럼 몽켜 어지럽게 휘돌았다.

(물론 이 어려운 사업을 이곳 당조직과 당원들은 원만히 감당할것이다. 그런속에서 진석이의 모

든것이 잘돼나갈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위안도 했으나 뒤미처 따르는 (하지만 그건 간단치 않다. 회의 한번 하는것으로 모든 일이 척척 해결될수야 없지 않은가.) 하는 반문앞에 물러서고말았다.

처녀들 너댓명이 재깍거리며 지나가다가 무슨 우스운 일이 있는지 짜그르르 웃음을 터치였다.

그들을 마주 지나쳐 소형용광로가 있는 건물로 발길을 옮기던 원익은 키가 덩썩 큰 사람이 발로 비질을 하듯 천천히 걸어오는것을 보았다.

《호-음》

원익이 음절이 명확치 않은 소리를 내자 땅바닥만 짓수곳이 보며 걷던 사람이 성큼성큼 달려왔다.

《아니, 원익동지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허진석은 목욕탕에서 방금 나온양 후끈한 열기를 풍기며 원익이에게 바짝 다가섰다.

《전번 쉬는날에 우리 집에서 기다렸소.》

《네, 그날 우리 주형작업반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었군.》

《그런데 어떻게 여길 오셨습니까? 우리 공장당 위원회에 불일이 있었는가요?... 그럼 공장에 꼭 필요되는 긴급자재라도 있는것이 아닙니까. 자재라면 저한테 말하십시오.》

진석은 이제껏 발로 비질하듯 걷던 사람같지 않게 시원시원한 태도로 분주히 말을 섞었다.

《참, 외투도 없이 나왔군요.》

《뭐 괜찮소.》

원익은 부드러운 눈길로 보기만해도 미소를 머금게 하는 환하게 잘 생긴 진석의 얼굴을 보다가 이마살을 찡그리며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진석이, 동무네 당회의에 참가하러 왔소.》

《네?》

진석은 놀란 소리를 치고는 수건과 비누곽을 엇바꿔쥐다가 비누곽을 떨어뜨렸다. 진석은 그것을 집을념도 못하고 원익의 입만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비누곽의 눈을 털지도 않은채 주머니에 쓸어넣으며 조용히 물었다.

《구역당에 소환된것이 아닙니까? 회의지도를 나왔겠지요?》

《아니, 당원으로 참가하오. 사실말이지 동무때문에 왔소.》

《무슨 들은 소리라도 있습니까?》

진석은 시무룩이 웃으며 원익이를 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사고를 쳤으니 비판을 받아야지요.》

이 말에 원익은 눈을 내리깔며 입술을 깨물었다. 쓸쓸미가 가슴우로 기여가는듯한 불쾌감이 온몸을 엄습했다.

(사고를 쳤기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원익은 여전히 미간을 찡그린채 시계를 내려다 보다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남먼저 회의장에 가라는 말을 진석이에게 남기고 돌아섰다.

원익이가 회의실로 들어가니 이미 스무나문명의 당원들이 모여앉아있었다. 그는 부문당비서가 앞줄에 나와달라는것을 마다하고 맨뒤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그때까지 진석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늦을가 하고 자주 문쪽으로 눈길을 돌리는데 요즈음 새로 류행되는 폭이 넓은 불색빛 갈의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진석이가 들어섰다.

당원들은 저마끔 죄어앉으며 진석의 자리를 마련했다. 진석은 그 모든 당원들에게 상냥한 웃음을 은근스레 지어보이며 앞줄로 향했다.

원익은 이 순간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더듬었다.

약간 긴장된, 그러면서 진석이에게 응분의 관심을 표시하는 얼굴들을 보면서 진석에 대해 커져오르던 우려가 잠시나마 떨어지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진석이가 의자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며 무슨 학습회에 온 사람처럼 풀썩 하고 앉는 모양을 보느라니 방금전에 그가 한 말이 되살아오르며 가슴을 불안스럽게 죄었다.

《사고를 쳤으니 비판을 받아야지요.》

(그러니 사고가 없었으면 자기는 비판받을 사람이 아니란말이지. 아 그 말을 할 때의 뻔뻔하다고 할 정도의 태연스런 기색을 무엇으로 설명한단말인가. 그것을 단지 자기의 수치감을 가리기 위한 어설픈 연기로 보기는 나이가 많다.)

원익은 연탁에 나선 부문당비서 박세인의 쇠소리나는 말을 들으며 한탄한단 피로운 상념의 심연으로 깊이 들어갔다.

부문당비서는 보고문을 읽다가 이제는 종이를 놓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우 자연스럽게 문제의 요점들을 명료하게 짚어나갔다.

《...잘한다는데 습관되었고 오직 칭찬에만 익숙된데서 나온 결함이라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자기 본위와 개인영웅주의가 일에서 어떤 결과를 빚어 냈습니까?...》

원익은 이 대목에 이르자 자기가 이제껏 무엇을 우려했던가를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구역당에서 진석이의 문제를 우연히 알게 된 때부터 세월의 락엽을 들추고 떠오르는 옛날 일이, 회상하기에 유쾌하지 못하여 그도 진석이도 추억의 화제에서 빼어돌린 설화령진공전투시에 있었던 일이 룬곽을 드러내며 명료히 되밝혀왔다.

(그래 분명 진석의 결함은 그때것의 연장일수 있다. 그래서 더욱 내가 온것만은 사실이고... 하긴 나는 오면서도 이것이 괜한 로파심에서 오는, 젊은이들의 말대로 《로인성피벽》이 아닌가고도 생각했지. 세살적버릇이 여든에 간다 해도 그때것

을 지금과 련관시킨다는것은 억지가 아닐가.)

원익은 자기도모르게 책상우에 《련관》이라는 글자를 쓰다가 누군가 자기를 주시하는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러나 머리속에서는 여전히 두글자가 뒹엄질을 했다.

(그래 성격이란 좀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성격으로 볼가? 타고난 성격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닌, 형성과정에 소나무옹이처럼 된 그런 성격?! ...)

삐끄덕 -

의자를 밀어젖히는 소리에 원익은 자기 생각에서 깨어났다.

진석이가 학습장을 들고 주물럭거리다가 도로 책상에 놓고 오래동안 입속에 굴러본 대사를 외우듯 말했다.

《공장과 직장에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원익은 진석의 얼굴표정을 상상해보려 애썼으나 종시 떠오르지 않았다. 누군가 침묵의 공간을 메우려는듯 마른기침을 해냈다.

진석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말이지 적은 로력으로 해제끼자니 바빴습니다. 해서 기본적인것에만 력량을 집중시키고 부차적인것에는...》

《가만, 부차적이란것은 무엇입니까?》

부문당비서는 놀라운 표정으로 반문하고는 눈섭을 찡그렸다.

《그래, 기통웃모서리의 흠태기는 부차적인것으로 됩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진석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거기에는 불만조가 어려있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꽤끔 하지 않고 바빠 몰아치는데, 말하자면 령에만 급급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리원익은 실망에 차 얼굴을 흐리였다.

진석의 목소리는 점점 열기를 띠였으나 원익 점점 흥미를 잃어버렸다. 정황을 지지쿨쿨히 설명하고 자기의 불찰로 공장을 망신시켰다는 그 한 가지만을 되풀이하는 진석이를 보는 원익의 눈에는 노여운 빛이 짙어졌다.

진석의 토론이 끝나자 작달막한 키에 눈섭이 붓술처럼 일떠선 신살남짓한 로동자가 일어섰다.

그는 주먹을 짝 쥐고 무슨 군중대회연설을 할것처럼 가슴을 부풀고있다가 바람찬 고무공을 터트리듯 말했다.

《진석동무는 프로바람에 떠서 온통 대강대강이 우다.》

토론자는 다음 말귀가 트이지 않는지 얼굴이 빨갧게 달아올랐다. 이글이글 타는 그의 눈에서는 노염의 빛이 막 쏟아졌다. 원익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사람의 매 말마디와 그밑에 깔린 숨은 내용까지 찾아내려 신경을 곤두었다.

《...까놓고 말해서 우리한테서 넘어가는 주물품들의 모래떨기가 잘 안되어 다른 직장동무들이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그래도 그 동무들은 누구의 부주의겠거니 다음엔 안그러겠거니 하는식으로 관대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 직장의 150 프로, 200 프로를 위해서 군말없이 모래떨기까지 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요.

그런데 진석동무는 이런 문제를 알고도 모르는척하며 모래떨기공정을 일부 뛰어넘기도 하고 로력을 빼고 그러면서 모래떨기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을 프로수만 보고 잘했다고 취주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말입니다. 나는 이 동무가 충성심으로 일하는지 평가를 받자고 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자가름대를 켜진 진석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의 귀밑에 살아오르는 피줄을 보며 원익은 입술을 짹 깨물었다.

(진석이가 당생활을 한지도 이젠 거의 30 년이 돼오겠는데 어찌면 저럴수 있는가. 접수를 못하고 있다. 접수를!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닌가.)

원익이가 사실 이리로 오게 된것은 바로 진석이가 《일을 치고서도 잘못을 느끼지 못해 문제가 컸다》는 때문이었다.

진석이가 제아무리 큰 결함을 범했다 해도 성근히 깨닫고 뉘우친다면 원익이의 심정은 지금처럼 괴롭지는 않을것이다.

(저기엔 나의 잘못도 있다. 나는 그를 자주 만나면서도 이런것을 찾아보지 못했다. 아니, 그가 잘한다는데 안심하고 외면한셈이다...)

《허진석동무는 당원으로서의 자각마저 잊고있다고 봅니다. 사실 엄격히 보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조직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자가름대를 부서질듯이 잡고있던 진석의 손이 거기서 맥없이 떨어져내렸다. 원익은 찌르는듯한 아픔을 느끼며 진석의 그 모든 동작을, 숨쉬기마저 멈춘것 같은 그의 굳어진 자세를 고통스럽게 바라보았다.

(조직문제란 말이 몹시 고통스러운것인게구나.)

원익은 입술이 말라드는것을 느꼈다.

이때 췌췌한 처녀의 목소리가 권익이로 하여금 고개를 돌리게 했다.

《허진석동지는 자기 위치를 잊고있어요. 보라요, 허진석동지는 기계가 돌아오자 <흥, 거기서 배부른 흥정을 하는군. 손질을 좀 해쓰면 어련히 쓸겠가지구.> 라고 했지요. 다음날로 그 말을 되풀이하는 동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동무들은 거의가 다 허진석동지의 본을 따려 애쓰는 동무들, 허진석동지가 밤색넥타이를 매면 다음날로 그런 넥타이를 얻지 못해 안달이나 하는 동무들이예요.》

《혜란동무, 넥타이같은것은 건드리지 마시오.》

부문당비서는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해 토론하는 처녀를 향해 고무하는 웃음어린 눈길을 보내면서 토론값을 조절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익은 내심 못마땅하게 여겼다.

(괜히 막았어. 처녀는 옳게 말하는걸.)

혜란이라는 처녀는 학습장을 들고 내려다보다가 퍼그나 같았은 목소리로 점작해하며 말했다.

《전... 평시에 허진석동지를 잘 돕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조직문제를 보자는 제기엔 반대예요. 전... 고칠수 있다고... 믿어요.》

이 순간 원익은 밝고 파스한 정에 가슴 무룩해 지는것을 느끼며 처녀를 사랑스럽게 보았다.

(그래, 옳은 생각이야. 하지만 동문 그 말을 안 해도 되지...

근데 진석은 저 동무의 《아량》을 어떻게 리해 할가?)

이까지 생각던 원익의 얼굴은 불시에 어두워졌다.

앵두처럼 얼굴이 익은 처녀가 직장장을 조심스럽게 훑쳐보는것을 알아챈 원익은 만약 처녀가 인정적인 울타리에서 벗어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지금같은 비판의 날을 무디게 할수도 있는 《아량》을 베풀지 않았을것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보다 저런 《아량》이 진석의 머리속에서 벌여질 《투쟁》에서 중화제로 될수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진석에 대한 엄한 추궁에 가슴아파하는 마음과 그것이 보다 날카롭고 예리하기를 바라는 두 마음,

사랑하는 전우로서의 진석, 지금 파오의 진흙탕에 한발울 디딘 사람으로서의 진석, 여기서 어느 진석이를 보고 자기의 결심을 내릴것인가.

원익은 그 해답이 바닥에 썩어있는듯 고개를 떨구고 쪽무이마루를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부문당비서 박세인은 회의 전과정에 진석이의 심리적변화가 썩여지는 얼굴표정의 부단한 바뀔을 주의해 살핀것처럼 리원익초급당비서를 보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당원들의 토론이 맹렬해지고 원익이가 고개를 수그린채 까딱 않는것을 보고 마음이 편안치 않았다.

가까운 동무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결함처럼 가슴아파하는 당일군의 풍모를 두고 가슴뜨거운 생각을 달리며 오늘뿐만아니라 먼 후날에도 이것을 기억하고있어야겠다고 채심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2중심리에 빠져들었다.

하나의 당원들의 비판이 보다 날카롭고 예리하여 진석이 머리에 박혀있는 온갖 허접쓰레기들을

말끔히 쓸어버려줄것을 바라는 마음과 다른 하나는 진석이를 각별히 생각하는 원익비서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진석의 결함에 과장되거나 비판이 과도하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는 통계원처녀의 맵잔 비판이 있을 때 원익의 얼굴에 질은 그림자가 비끼는것을 보며 통계원의 비판이 과격한데로 넘어갈가봐 걱정하며 한마디 한것이였다.

그런데 허진석은 당원들의 토론이 신랄해질수록 몸가짐이 더욱 뻣뻣해졌다. 그는 내쳐 창문쪽 한 군데만 쏘고있었다.

방안이 몹시 더운지라 창유리에는 가는 물방울들이 수없이 맺혀서는 실오리같은 내를 그리며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그쪽을 고집스럽게 노력보는 진석은 입을 굳게 다물고 이따금 어깨를 으쓱거리고 눈에 역올한 빛을 담기도 했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얼굴색이 희뻗해지기도, 검붉어지기도 했으나 머리는 한순간도 떨구지 않았다.

세인은 벌떡 일어나서

《진석동무, 동무만 피로운줄 아는가. 지금 우리의 심정이 어떤줄 동무는 아는가. 더더구나 동무 때문에 찾아온 원익비서의 얼굴을 보라. 동무가 감각할줄 안다면 여기 당원들과 저 당비서의 심장에서 울리는 고통어린 소리를 들을것이다.》고 소리치고싶었다.

이런 충동이 온몸을 휩쌀 때마다 그는 진석이가 이처럼 비틀어지게 된데는 자기의 책임이 크다는 데로 생각을 돌렸고 지금의 진석이를 리해하려 애썼다.

지난 기간 진석이는 혁신의 간판파도 같은 사람이였다. 그런데로부터 누구나 그를 좋게만 보았고 어지간한 결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었고 말을 한대야 개별적충고로 듣기좋게 했다. 바로 지금 비판을 제대로 삭이지 못하는것도 그 후파의 하나일것이다.

진석은 세인이가 자기를 주시하는것도 모르고 여전히 같은 자세로 만년필촉을 공책에 댄채 까딱 않았다. 잉크가 종이장에 그의 눈섭 비슷한것을 그리며 번져나가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좀 따뜻한 말이 필요하지 않을가.)

세인은 원익비서에게 눈길을 보냈다.

원익비서는 거의 모든 당원들이 토론했다는것을 알았음인지 아니면 세인의 눈길이 자신의 토론을 바라는것임을 느낀때문인지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일어섰다.

무뎃던 방안공기가 창문을 열어놓은것처럼 확 변했다. 그것은 스무나문명의 당원들이 앉은 자세를 급격히 바꾸는바람에 일어난 공기의 변화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충격적인것을 예감하는데서 저마끔 받는 느낌이었다.

원익은 조용히 말을 떼었다.

《저는 진석동무를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알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좋은 당원으로 알고있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의 목 울대뼈가 움찔했다. 그는 입을 꼭 다물고 거의 준엄하다고 할 눈길로 진석이를 보다가 타끓는 안타까움을 터뜨리듯 말했다.

《옛그제 들어온 당원도 아니고 오랜 당원이 미국놈과도 싸우고 오늘은 직장장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당원이 과연 그럴수 있습니까. 당원들의 비판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당원답지 못합니다...

만약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런 당원이 있다는것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습니까.

진석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이 아니라 심려를 끼쳐드리는 당원입니다.》

원익의 불을 쏘듯하던 목소리는 갑자기 끊어졌다. 기침이 터져나왔다. 그것을 막으려 왼손을 입에 가져다대고 가만 있다가 소리없이 자리에 앉았다.

숨가쁜 정적이 흘렀다.

창문쪽만 내쳐 보던 진석의 꽃꽂한 머리가 수그러졌다.

원익은 그쪽을 보지 않았다.

사무실에 돌아온 세인은 원익비서에게 한마디 하지 않고는 건딜수 없는 심정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원익은 아무말없이 전화기에 다가갔다.

《자동을 줌 주시우.》

피곤한듯 두눈을 반쯤 감고 수화기에 귀를 기울이던 그는 통화중이라는 소리에 수화기를 놓고 세인이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 공장에 전화를 걸고 오겠습니다. 오늘밤은 여기 사람이 돼야 할가부요.》

원익은 회의가 끝난 뒤 처음으로 싱그레 웃었다.

이 웃음에 세인은 용기를 내었다.

《비서동지, 비서동지의 토론이 격하니 진석동무가 매우 바빠하는것 같더군요. 가까운 사람에게 아픈 매를 준다는 말은 있지만...》

이 말에 원익은 방금까지의 피곤을 가진 맑은 눈길을 하고 의자에 앉았다.

《개인감정이 나타난것 같습니까?》

《글쎄 딱 그런것은 아니지만...》

《비서동무.》

원익은 정기있는 눈으로 세인이를 유심히 보다가 신중하게 말했다.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날카로와야 합니다. 왜 자기 감정을 도색해야 한단말입니까. 격분할 일인데도 웃어야 하고 미운데도 고운척한다는거야 어디 될번한 일입니

까. 그러면 상대는 위선을 느낄것입니다.

그가 강한 요구를 받는다는것을 느낄 때 자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만치 자기 결함과 완강히 싸워이길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환경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인은 논쟁을 하듯 열정적인 어조로 주장했다. 심각한 기색으로 세인의 말을 듣던 원익은 세인의 말이 끝나기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말했다.

《물론이지요. 그걸 고려하고 타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멀리면 안됩니다.

거짓이 나타나면 안됩니다. 속에는 불이 있는데 허에는 사랑알을 빗어올리면 안됩니다. 그렇게 열려주는것은 약자들이나 바보들이 좋아합니다.

강한 사람, 참된 사람은 그런데서 모욕을 느끼니다.

되게 비판을 한것이야 그가 우리 사람 로동당원이기때문이 아니요.》

원익은 이렇게 말하고는 불쑥 일어났다.

《물론 아픈 소리를 하기는 어려운 법이지요... 당위원회에 가서 전화를 걸고 오겠습니다.》

원익비서는 젊은 사람같은 패기있는 걸음새로 일어나갔다.

세인은 그의 발자국소리를 들으며 우두커니 서있었다.

(웁은 말이지. 정말 사람과의 사업이란 고등수학 한가지야.)

그는 원익의 말 한마디한마디를 다시 뇌여보며 사람과의 사업을 어째서 그처럼 어렵다고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혼자요?》

하는 우울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세인은 문가에 진석이가 서있는것을 보았다.

《왜 남의 집처럼 그러구 서있소?》

《갔소?》

《나갔소.》

《바쁘구만, 부문당비서동무.》.

진석은 맥없이 들어와 의자에 펄쩍 주저앉았다.

《왜 소화가 안되오?》

《그럴수야 있소.》

진석은 두손으로 이마를 감싸쥐고있다가 홀 일어나 방안을 거닐었다. 그를 지켜보던 세인은 진심어린 생각을 터놓았다.

《진석동무, 난 오늘 원익비서동지한테서 참으로 많은걸 느꼈소. 그가 동무에 대해서 엄하게 말한걸 나무람마시오.》

《나무람을 한다구요.》

진석은 우뚝 멈춰섰다. 번쩍거리는 눈으로 세인을 쳐다보던 그는 팔을 뻗 내리저었다.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난 할말이 없소.

아아, 참 이 무슨 일이란!》

진석은 창기에 다가가 차거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동안 움찔하지 않았다.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구만.》

《그의 부상처를 봤소. 그건 바로 나때문에 생긴 거요.

그런데 내가 그때걸 잊어먹은것으로 되였거던… 참, 그를 무슨 면목으로 대한다말이요.》

《이제 울것이요. 전화를 하겠다고 나갔소.》

《안갔단말이요. 아, 이제 그를 어떻게 본단말이요… 난 그의 말대로 위대한 수령님께 심려를 끼친 당원이요. 이걸 어찌하오.》

《고치면 되지 않소.》

이 말에 진석은 서글픈 웃음을 머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충동이 있었는지 모자를 꼭 눌러쓰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투박투박 울리는 발걸음소리를 가늠해듣던 세인은 입가에 고즈넉이 웃음을 지었다.

(인간은 팬찮아.)

진석이가 화폭처럼 달아오른것을 세인은 나쁘게 보고싶지 않았다. 알락달락한 다른 보자기를 쓸줄 모르는 진석이라고 볼 때 더욱 친근감을 느꼈다.

세인은 회의록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다. 빠진 글자를 보충도 하고 틀린 글자를 칼로 살살 긁어 고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회의록을 다 볼 때까지 원익비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인은 회의결과를 보고하러 당위원회에 가느라면 그를 만날것이라 판단하고 책상우에 놓인 원익비서의 가족장갑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섰다.

그런데 당위원회에 가니 원익비서는 전화를 걸고 떠난지가 퍼그나 된다는것이였다. 급한 일이 제기되어 공장에 돌아간것이라 짐작한 세인은 당위원회를 떠나 나올 때 주머니에 넣었던 원익비서의 가족장갑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는 진석을 만나 장갑을 원익비서에게 갖다주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되면 두사람사이엔 무슨 얘기가 있을것이니 분명히 그것은 두사람에게 리로운것으로 될것이다.

세인은 병국이 웃으며 두사람이 만나는 광경을 흡족해 그려보았다.

《어-출군.》

어깨를 잔뜩 치긔고 뛰여가는 청년들만 없다면 한곡조 부를 기분이었다.

하지만 기분은 기분이고 손과 뺨은 따끔거리는 추위에 아려들었다. 그는 가방을 엿바꿔쥐며 한손은 외투주머니에 깊숙이 찔러넣었다. 그렇게 걸던 그는 달그락거리는 이상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자재부엌 외등아래 흰눈이 포탄처럼 덮인데서 두사람이 움직이고있었다.

이따금 시퍼런 전지불이 그들앞에 웅크린 소작같은 물체를 향해 장대처럼 뻗었다.

《안나오나?》

《젠장, 나오긴 하는데… 원체 매끄러워놔서.》

불부는 목소리는 진석이었다.

더는 말이 없다.

공- 하고 갑자르는 소리, 쇠불이 부딪치는 소리…

푸른 하늘, 차디찬 별, 기이한 그림자를 비껴담은 하얀 눈…

세인은 이상야릇한 흥분에 몸을 가드라뜨리며 공기함마와 씨름하는 두사람-원익비서와 진석을 보며 오도가도 못했다.

(장갑을 주고 떠나면 좋겠는데…)

《에이, 나왔습니다.》

《링그란거지.》

《네.》

《그래 어텐가?》

원익은 덤빌사하며 뚫어앉아 구멍안을 올려다보았다.

《웃이 뚫습니다.》

《뚫으면 빨리. 웃이야 문제가.》

《하긴 그렇지요.》

진석이 역시 뚫어앉아 원익이에게 기통안의 웃부분을 가리켰다.

《음, 저 웃턱에 좁쌀알같은것들이 <타도대상>이로군. 이제 긁어버릴가.》

원익의 말에 진석은 인차 대답을 못하였다. 원익은 입가에 웃음을 띠우며 재차 말하였다.

《하긴 래일 사람들과 함께 하는것이 낫지.》

《아니, 혼자 하겠습니다.》

《어색해서?... 그건 졸렬한 감정이야.》

《그런게 아닙니다. 비서동지하고 합시다.》

《그렇나. 하지만 난 손끝 하나 까딱 안하겠네. 전지불로 한공수 하지.》

《비서동지!》

설달그믐, 눈내린 밤, 쇠불이는 손에 얼어붙는다. 짜르르-뽕처럼 기여가며 눈가루를 날리는 바람은 바지가랭이를 거머쥐고 앙탈을 부린다.

《음, 음!》

진석은 언제 준비했는지 모래떨기쇠꼬치를 가지고 웃모서리를 겨냥해 찌르고 또 찌른다.

원익은 그의 거센 숨결을 느끼며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감명에 잠겼다.

《바꿔할가?》

《약속을… 어-가지…마십시오.》

숨이 차 헐헐하며 간신히 말을 번진 진석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비서동지!》 하고 불렀다. 그리고는 인차 말을 꺼내지 않고있다가 고개를

돌리며 불쑥 소리쳤다.》

《참, 그날도 이렇게 눈보라가 일었지요. 설화령 말입니다.》

원익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뜨거운 눈길로 진석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잊지는 않았군.》

진석은 원익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했다.

《그때 왜 욕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소. 기억이 안나오.》

《설화령아래엔 촛시가 있었다.》

설화령꼭대기 외통길에서 진석이네 분대가 지뢰 해체작업을 시작하였다. 30분후에는 촛시해방작전에 나가는 아군땅크대가 그 길을 통과할것이었다.

그때 한개분대가량의 적 패잔병을 발견하였다. 진석은 패잔병을 청소하는 구분대들이 있는것을 알았지만 적을 포로할 형제판에서 물려설수 없었다. 절반인원을 데리고 놈들을 잡아가지고왔을 때 아군땅크대의 진격이 개시되었다. 해제하지 못한 마지막지뢰가 폭발되었다.

그러나 땅크들은 무사히 그대로 전진하였다. 땅크출발시간과 함께 나타났던 정치부중대장 리원익이가 파내지 못한 지뢰를 5 메터거리에서 보충사격으로 폭발시켰던것이다. 폭풍에 날려 벼랑굽에 떨어진 그의 주변에 눈물에 잠긴 전사들이 진석이에게 원망어린 눈길을 보내며 서있었다. 온몸이 흠과 피투성이로 된 원익은 땅크의 동음속에 꺼져가는 의식을 회복하고 눈을 떴다. 그는 자기앞에 모자도 없고 땀어났은 진석이를 이윽토록 보다가 명령위반에 대한 추궁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말은 다르게 나왔다.

《몇놈을 잡았소?》

《열세놈입니다, 부중대장동지.》

진석의 울먹해진 대답을 들으며 원익은 빙그레 웃었다.

《팬찮구만. 멋있소.》

그는 이 말을 남기고 담가에 실려 군의소로 갔다. 그후 군의소에서는 물론 때때로 이 일을 회상하고는 원익은 자기자신에게 묻곤하였다.

(나의 태도가 옳았는가. 추궁은 안한다쳐도 무엇때문에 그랬는가고 묻는것이 낫지 않았을가.)

《음, 음》

땀에 젖은 진석의 이마는 닭은 청동판처럼 번쩍었다. 쪼프린 눈에는 땀인지 이슬인지 모를것이

어려있었다. 입에서는 대포연기같은 김발이 피어 어깨뒤로 사라진다.

《욕하지 않은걸 후회하지 않습니까?》

진석은 마치 원익의 머리속에 들어갔다나온 사람처럼 물었다.

《모르겠다니까. 하긴 후회할것이 뭐이 있겠소.》

《하지만 이번에 오실적에는... 그리고 아까도 그때 생각을 많이 했겠지요.》

《그렇다면...》

《비서동지, 얼마전에 담배복청 3소대 1분대장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여왔더군요. 지금 성간에서 기사장을 하는-》

《알고있소.》

《보수주의를 부린것을 비서동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앞뒤 석장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혼줄이 났다고 하더군요.》

《허, 여전히 대포기가 있군.》

원익은 절절 소리내여 웃었다.

이런 그를 올려다보던 진석은 문득 폭 꺼진 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이젠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쩌겠나. 그제 내 일인-데.》

《그러니 빨리 늙지요.》

《허허. 늙으면 뭐라나. 그래도 난 진석이같은 사람이 있다면 세길 굵고도 따라다니며 해보겠어.》

차디찬 밤, 얼어붙은 파란 별, 하얀 눈.

선반 돌아가는 소리가 쥐죽은듯한 정적속에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음악처럼 울린다...

원익비서의 얼어드는 손을 생각해 꺼내든 가죽장갑을 움켜쥐고 굳어진듯 서있던 세인은 눈굽이 평하니 피어오르는 뜨거운것을 느끼며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저래서 사람들은 당을 어머니라고 하는것이 아닌가.)

문득 언젠가 철부지시절에 어머니가 하던 말이 왕청같이 떠올랐다.

《자식이 많으면 걱정이 많단다.》

세인은 그 시절에 찍하면 어머니가 그의 종아리를 때리던것을 잊지 않고있다. 하지만 어머니야말로 얼마나 귀중하고 사랑스러운가.

그렇기때문에 어머니는 혼연히 자식들을 매질한다. 어머니로 되면 그런 권리가 있는법이다. 오직 어머니한테만...

참대숲은 설레인다

박사영

따뜻한 해빛이 내리비치는 어느날 오후, 몸집이 풍만한 중년부인이 귀밀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와 나란히 서서 참대숲사이로 난 넓은 길을 따라 걸고있었다. 녀인은 류은숙이라는 소아과의사이고 남자는 그의 남편인 경제식물연구사 리경삼이다.

그들은 아득히 펼쳐진 참대숲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언덕우에 올라서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마주섰다. 은숙은 얼굴을 들고 남편을 쳐다보았다. 경삼은 빙긋이 웃고있었다.

경삼은 지금 새로운 참대연구지로 떠나가는길이다.

은숙은 남편의 어깨며 가슴우에 공연히 군손길을 하며 먼지를 털어주기도 하고 옷깃을 꼭꼭 여며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나직이 되뇌이었다.

《어서 떠나세요.》

《응.》

《저도 인츰 뒤따라가겠어요.》

경삼은 뜨거움이 어린 눈길로 안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순간 은숙은 왜 그런지 눈물이 핑 피어오르는것을 느꼈다.

그는 행복하였다. 삶의 보람이 가슴뿌듯하도록 안겨왔다.

이제 또 남편은 새로운 고장에 가서 참대숲을 무성하게 가꿀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는 옛일로 되었지만 한때 행복과 삶에 대한 자기의 견해는 어떠했던것인가? 산뜻한 연구실과 화려한 집, 정해진 출근길로 매일 오가는 그것이 그 무슨 리상적인 삶이며 행복인듯이 생각하지 않았던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오늘의 이 행복과 삶의 보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을것이다.

1

1959년 어느 봄날이었다.

평양역구내는 이날도 북부란전개발지로 떠나가는 청년개발자들과 그들을 환송하러 나온 사람들로 떠들썩했다.

취주악대가 불어대는 환영곡소리, 노래소리, 가슴마다에 안겨지는 꽃다발, 머리우에서 훑날리는 꽃보라... 남행열차를 타러 나온 은숙은 그만 머

리가 땡해지는듯했다.

《막 정신을 차릴수가 없구나!》

시어머니가 은숙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 크지 않은 려행용가방을 들고 닳알색코트를 입은 은숙은 날씬한 다리를 가볍게 옮겨놓고 있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청년개발자들은 승강대에 몰려서서, 혹은 창문으로 머리들을 내밀고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피끓어라 청춘아

불타라 심장아

.....

노래소리는 레투의 이음짚을 넘어가는 차륜의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느덧 아득히 사라져가고 얼마후에는 그리로 남행열차가 거센 기적을 울리며 쏜살같이 달려들어왔다.

역구내는 또다시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은숙은 시어머니와 마주섰다.

《어머니, 이젠 들어가보세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녀인은 젊은 며느리의 얼굴을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나직이 입을 열었다.

《집근심은 조금두 하지 말라구 해라.》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잘 다녀오너라.》

은숙은 차에 올랐다.

열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역구내에 그린듯이 서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진다...

차창옆에 자리를 잡고앉은 은숙은 이상하게 가슴이 아릿해오는것을 느꼈다. 일찌기 남편을 여의고 오누이를 데리고 살아오는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다. 하지만 얼마나 웅심깊은 어머니인가! 오래동안 떨어져있는 아들이 오죽 보고싶으련만 그런 티는 손톱만큼도 내지 않는 어머니이다...

열차는 어느 자그마한 역에 멎는듯하더니 다시 떠났다. 차칸으로는 새로운 승객들이 올라왔다. 비어있던 은숙의 앞자리에도 사람들이 앉았다. 젊은 남자와 젊은 녀자였다. 은숙은 두사람의 차림새와 거동을 보고 그들이 신혼부부라는것을 알았다. 그들은 무엇인가 조용히 속삭이고 조용히 웃

었다. 그들의 목소리와 눈길에서는 수집은것이 있으면서도 부부간에만 오갈수 있는 즐거움과 따뜻한것이 있었다.

《저 어디까지 가십니까?》

문득 젊은 남자가 얼굴을 들며 은숙을 바라보았다.

《천수리까지 가요.》

《천수리요? 먼데까지 가시는군요? 거긴 어떻게?》

《그저...》

은숙은 두리몽실하게 얼버무렸다. 기실 그는 지금 휴가를 맞고 남편이 가있는 술집을 찾아가고 있는중이었다. 그의 남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 주신 참대모를 가지고 그 풍토순화를 위해 평양에서 수백리나 떨어져있는 술집이라는 섬에 나갔었던것이다.

은숙은 행복을 느끼고있는 신희부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지었다. 저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있을까? 그저 행복한 신희행일가?

어쩌면 자기는 저들보다 십년이나 이십년쯤 더 살아온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아직 결혼한지 1년도 못되었지만...

지금까지 자기네는 언제 한번 저렇게 둘이서 다정하게 여행을 해본적도, 거리를 거닐어본적도 없었다. 남편은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급급히 려장을 꾸려가지고 연구지로 떠나가버렸다. 그리고는 꼭 배겨있었다. 얼마나 집에 오지 않았으면 인민반에서들 《세대주가 집에 출장을 온 모양이구만?》라고 했겠는가! 그것도 연구소에 왔다가 잠깐 들려가는데 불과한것이였다.

그것은 처녀시절 두손으로 턱을 고이고 책상앞에 앉아서 별빛 총총한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꿈꾸었던 아름다운 꿈과는 너무나 상반되는듯싶기도 했으나 은숙은 남편을 이해하였다. 남편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있는것인가. 그는 어서 남편이 연구과제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기만 바랐다. 생활은 아직도 앞에 있는것이 아닌가?

그러자 남편에 대한 근심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외진섬에 가있으니 생활에서 불편한것인들 얼마나 많으랴! 안해인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숙은 망설이던끝에 시어머니의 권유도 있고 해서 길을 떠난것이였다...

은숙은 가늘게 긴술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순간 그는 이상한 감촉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웬 사람이 그의 옆을 피끗 지나쳤던것이다. 키가 후리후리한 사람이 한쪽 손에 자그마한 물바게쓰를 들고 저쪽으로 멀어져가고있었다. 그의

뒤 모습은 너무나 눈에 익은것이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은숙은 저도모르게 그 사람을 따랐다. 그러다가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아이참, 내가 정신이 나갔나, 그이가 여기에 무엇때문에 있겠어.) 하고 멈춰섰다. 정말 저기 가는 사람이 남편이라면 왜 집에 들리지 않았겠는가. 아니 그런 일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은숙의 발길은 자석에 이끌리는 쇠불이 마냥 다시금 그쪽으로 이끌려갔다.

다음다음 차칸 문앞에서 은숙은 그 사람을 따라 잡았다.

《저, 여보세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불렀다.

키가 후리후리한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의아한듯 천천히 몸을 돌렸다.

(?!)

순간 은숙은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흠칠 서버렸다.

앞에 서있는 그 사람도 놀라움을 금할수 없는듯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 사람은 은숙이가 술집으로 찾아가 만나려던 남편 리경삼이였다.

은숙의 두눈에서는 느닷없이 물기가 펴 피여올랐다.

꼭 꿈을 꾸고있는것만 같았다. 믿어지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요?》

경삼이도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그는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주며 승강구 있는쪽으로 물러섰다.

이윽고 은숙은 손수건으로 눈구석을 찍어내고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당신이 술집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허허, 그렇게 됐소.》

경삼은 비술산에 야생참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갔다오는길이라고 했다.

《비술산에요?!》

은숙은 얼굴이 해쓱해졌다. 비술산이라면 평양을 거쳐서야 가는것이 아닌가? 온몸의 피가 서서히 발밑으로 빠져나가는듯했다. 맥이 탁 풀린 그는 금방 쓰러질것만 같아 벽에 몸을 기대었다. 그는 한참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서있었다.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집일을 두번씩이나 지나가면서도 그냥 가다니... 야속하게도 너무 지나친것 같았다.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러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런데도 자기는 이렇게 휴가까지 받고 알지도 못하는 섬을 찾아 남편이 있

겠거니 하고 수백리길을 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정말 시간이 없었소. 나라도 왜 집에 가고싶지 않았겠소. 하지만...》

경삼은 안해의 얼굴에서 이상한것을 느꼈던지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은숙은 아래입술을 자근자근 씹으며 여전히 벽에 기대고 서있었다.

《어머님두 편안하시오?》

경삼이 부드럽게 물었다.

《.....》

《어머님이 몹시 노여워하시겠구만?》

은숙은 경삼을 보지 않고 대꾸했다.

《어머님을 보셨겠지요?》

《어머님을?!》

《어머님이 정거장에 나와 저를 바래주셨어요.》

《어머님이?!》

《어머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저는 휴가를 받고 술섭을 다녀오려고 떠난일이었어요.》

《음.》

경삼은 저도모르게 새어나온 입안의 소리를 삼키며 고개를 들어 푸른 산천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차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아파나는것이였다.

(당신은 너무해요. 어머님은 당신이 이 차에 타고계시면서도 집에 들리지 않는다는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섭섭해하시겠어요.)

은숙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남편에게 고까운 소리를 했다.

이윽고 고개를 돌린 경삼은 은숙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은숙은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알수가 없었던것이다. 고까운 생각을 한다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돌아서고도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는 말할수가 없었다.

《내 생각엔 이왕 떠난 걸음이니 술섭을 한번 가보고 가는것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참대가 어떤것인지 구경두 좀 하구...》

경삼은 동의를 구하듯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는 은숙의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옆에 놓았던 물바게쓰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잠시후에 나타났다. 짐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차칸으로 가자는것이였다.

(그래, 떠난 걸음이니 가보자. 저이가 가서 생활하는곳이 어떤곳인지도 보고...)

은숙은 벽에 기대고있던 몸을 일으켜세우고 자기가 타고있던 차칸으로 걸음을 옮겼다.

신혼부부는 여전히 무슨 이야긴가 소곤소곤하며 행복에 겨워 웃고있었다. 그들은 얼마나 자기

들의 세계에 침취되어있었던지 경삼이가 신발을 벗고 자리우에 올라서서 은숙의 러행용가방을 내리올때까지도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저-》

옷걸개에서 코트를 벗거든 은숙은 그들이 스스로 주의를 돌려주기 바라다가 나직이 말했다.

신혼부부는 깊은 꿈속에서 깨어나기라도 하듯 펄쩍 고개를 쳐들었다.

《아니, 왜 벌써 내리시겠습니까?》

그들은 사뭇 의아한 모양이였다.

《아니 뭐 저...》 뭐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한 은숙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그럼 안녕히들 가세요.》하고 인사말을 건넸다.

《에...?!》

신혼부부는 영문을 알수 없는 모양이였다. 하긴 그럴수밖에...

은숙은 남편이 타고있는 화물칸으로 왔다. 수화물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한쪽옆에 초리를 일매지게 잘라버린 가느다란 참대들이 포장된 나무함속에 서있었다. 이것때문에 남편은 할수없이 화물칸에 자리를 잡은것 같았다.

미리 이야기해놓은듯 화물원처녀가 경삼이 들고 온 은숙의 가방을 받아 구석진곳에다 놓아주었다.

경삼은 흘러내린 머리칼을 손으로 빗질해올리고 참대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수긋하고서서 조심스럽게 이파리며 가지를 만져보더니 바게쓰에서 물을 떠 뿌리와 가지에 살근살근 뿌리기 시작했다. 가늘고 새파란 이파리들에서는 물방울들이 수은처럼 한들거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져내렸다.

경삼은 참대를 꼭 어린애 다루듯하고있었다. 이마에서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이윽고 두사람은 나란히 바닥에 퍼놓은 가마니 짝우에 앉았다.

싱그러운 봄의 훈향이 열어놓은 문으로 흑흑 날아들었다.

2

해가 퍼그나 기울어 렬차는 천수리역에 도착했다.

경삼은 한쪽 어깨에 참대를 보병총처럼 메고 다른 손에는 은숙의 러행용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걸었다. 머리우로 올라온 참대나무가지와 이파리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춤추듯이 흔들렸다. 은숙은 남편이 너무 수고하는것 같아 가방을 달라고 했으나 경삼은 그저 즐겁게 웃었을뿐이다.

한참동안 걸으니 푸른 바다가 나타났다. 은숙은 그것이 처음에는 넓은 강인줄로만 알았다. 대동강 하구처럼 넓어보이는 물길건너 들쭉날쭉한 검푸른 산봉우리들이 보였기때문이다. 경삼은 그것이 술섬이라고 했다.

이윽고 두사람은 나루터에 당도했다.

나루터에는 사람들이 없었다. 기슭에는 몇척의 나루배가 떠서 흥떡이고있었다.

가방과 참대를 땅바닥에 내려놓은 경삼은 바위 너설을 타고 기슭으로 내려가 나루배 한척을 끌고 왔다. 그리고는 거기다 가방과 참대를 가져다 실었다.

은숙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물우에서 간단없이 흔들리고있는 배를 근심스럽게 내려다 보았다.

《왜 무섭소?》

노대를 물밑에 쿵 박고서서 안해가 오르기를 기다리고있던 경삼이가 병긋이 웃으며 물었다.

《무서워요.》

《허허, 괜찮소. 무섭긴.》

얼굴이 밧그레하게 상기된 은숙은 코트와 치마자락을 부여잡고 배우어로 올라섰다. 그 서슬에 배가 흠칫했다.

《어마나!》

은숙은 비명을 지르며 노대를 잡고 서있는 경삼의 팔을 두손으로 짹 붙들었다. 배는 더 심하게 요동쳤다.

경삼은 꺾꺾 웃으며 물밑에 쿵 박고있던 노대를 지그시 밀었다. 배는 서서히 기슭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삐걱 삐걱 ...

노젓는 소리가 고요한 바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치마자락으로 무릎을 감싸고앉은 은숙은 술섬의 검푸른 산줄기들과 섬 저쪽 끝으로 가없이 펼쳐진 바다머를 깊은 사색이 어린 눈길로 하나하나 더듬었다.

저 바다와 술섬! 그것은 은숙의 가슴을 고요히 설레이게 하는것이였다.

식물학자가 아닌 그는 새로운 품종을 얻어낸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것을 모르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쉽게 되지 않으리라라는 것을 남편이 보내오는 편지들을 통해서 막연하게나마 느꼈던것이다. 그런데 이 순간 그것이 이처럼 절박하게 느껴지는것은 무엇때문일까?

쩍쩍하고도 서늘한 바다바람이 불어왔다. 은숙의 머리에 쓴 하르르한 수건코리가 어리광부리듯 귀전에서 가볍게 날리고있었다. 오후의 눈부신 태양이 아낌없이 쏟아지는 바다우에는 수없이 밀려가고 밀려오는 잔파도가 고기비늘처럼 반짝거

렸다...

배는 어느덧 술섬을 가까이 하고있었다. 꺾아지른듯한 절벽들, 간신히 바위틈에 뿌리를 박고 서있는 꼬부랑소나무들, 섬기슭에 떠있는 자그마한 통통이배들과 전마선들, 저멀리 백사장에서 한가롭게 그물을 손질하고있는 녀인들, 츄렁바위우에는 턱수염이 허연 한 로인이 밀짚모자를 쓰고앉아서 바다가에 낚시대를 드리우고있었는데 그옆에는 예닐곱살 나보이는 꼬마가 두손으로 턱을 고이고 앉아서 낚시대를 뉘없이 들여다보고있었다.

은숙의 가슴속에서는 어느덧 막연하게 갈마들었던 불안이 가신듯이 없어져버렸다. 그에게는 모든것이 아늑하고 신비로왔으며 따뜻하였다.

문득 나루가로 다가오고있는 배를 발견한 그 로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연구사!》 하고 소리쳤다. 기쁨에 넘친 로인의 주름잡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어렸다. 로인은 주섬주섬 낚시대를 걸어가지고 나루터쪽으로 허둥지둥 걸음을 옮겨놓는다. 그의 뒤에서는 고기망태를 든 그의 손자가 달랑달랑 따른다.

얼굴이 환해진 경삼은 신바람이 나서 더 힘껏 노를 먹이기 시작했다.

배는 우죽뿌죽한 바위들을 에돌아 나무가로 다가갔다.

이때였다. 웬 사람이 나지막한 언덕우를 달려내려오며 《어-》 하고 길게 소리치면서 열광적으로 손을 흔드는것이였다. 경삼의 보조자인 철남이였다.

هل금씨금 나루가에 당도한 태섭로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구사, 잘 다녀왔나?》 하고 꺾꺾한 목소리로 경삼에게 말을 건넸었다.

《예,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경삼이 철남에게 연락삭을 넘겨주며 웃어보였다.

《처음 뵈겠어요.》

나루가로 내려선 은숙은 얇은 머리수건을 벗어들며 태섭로인앞에 허리를 깊숙이 굽혔다.

자못 정중하게 마주 허리를 굽혀보인 태섭로인은 《안사람인가?》 하고 경삼을 돌아보았다.

《예.》

《먼데서 옹히 왔군. 의사를 한다구 했지?》

은숙은 그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서있었다.

《잘 왔네.》

태섭로인은 점잖게 수염을 쓸어내렸다. 그러더니 문득 생각난듯 《그런데 이번엔 자네가 어떻게 집엘 다 들렸던가보군그래? 이렇게 량주가 같이 온것을 보니...》 하고 경삼을 쳐다보는것이였다. 《예.》

경삼은 얼굴이 불그레해서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몹시 반가와하셨겠군요!》

경삼은 갑자기 대답이 궁해진듯 머리를 숙여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비끼는듯 했다.

은숙이도 고개를 수그리었다. 새삼스럽게 렬차칸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의혹?!... 뜻밖의 상봉?! ... 갑자기 짐을 내려가지고 남편이 있는 차칸으로 갈 때 신혼부부가 어안이 병병해져서 쳐다 보던 일?!...

남편과 자기가 렬차칸에서 만나게 된 일은 그 신혼부부에게도 태섭로인에게도 영원한 비밀로 남아있게 될 것이었다.

어쨌든 은숙은 남편이 너무 야속한것 같이만 생각되었다.

경삼이가 거처하고있는 《참대연구소》는 마을 맨 웃켄에 자리잡고있었다. 억새풀로 이영을 얻긴 했으나 사랑채와 안방을 가지고있는 집은 깨끗했다.

은숙은 사랑채에 짐을 풀었다.

이윽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은숙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은 정말 자그마한 연구소였다. 시료를 넣은 크고작은 종이봉투들, 유리관들, 각종 온습도계들, 확대경들...

몸에 꼭 맞는 곤색작업복을 입은 경삼이가 빙긋이 웃으며 들어왔다.

《꼭 연구소같군요.》

은숙이 웃으며 말했다.

《꼭 연구소같다니, 연구소가 연구소지 다른거겠소.》

《어디 가시겠어요?》

은숙이 물었다.

《저 참대를 열른 심고와야겠소. 당신은 좀 쉬오. 피곤하겠는데.》

은숙은 대답대신 남편의 얼굴을 이윽히 쳐다보았다.

남편의 얼굴에서는 어디라없이 피곤이 느껴졌다. 눈귀에 어린 가느다란 주름살들, 윤력을 잃고 가루잡잡하게 탄 얼굴... 순간 은숙은 저 몇대의 야생참대를 구하기 위해서 수백리길을 달려가 산이며 들을 헤맸을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아 느닷없이 가슴이 알찌근해지는것을 느꼈다.

《당신은 지쳤어요. 래일 심으면 안되나요?》

은숙은 조용히 물었다.

《안되오. 한시간이라도 빨리 심을수록 이 참대의 성장에는 좋은것ियो. 내 제격 갔다오겠소.》

《저도 가겠어요.》

《당신두?!》

《왜 저라구 못가요?》

《아니 힘들것 같아서 그러오.》

《괜찮아요.》

《참 옹고집쟁이라니까.》

그러나 경삼은 은숙이가 따라나서는것이 은근히 기쁜 모양이었다.

은숙은 경삼을 따라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푸른 솔가지와 잡관목이 짙 우거진 숲속길은 어둑시 그레했다.

얼마후에 그들은 나지막한 언덕을 하나 넘어 길도 없는 수풀속을 헤치고 계곡으로 내려갔다. 동남향으로 안침하게 들어앉은 계곡은 잠풍했다.

도토리나무들과 개암나무들이 듦성듬성 서있는 관목들사이를 빠져나오니 평퍼짐한데가 나졌다. 참대밭에 당도한것이다.

은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나갔다. 사실 그는 참대를 심는것도 보고싶었지만 남부지방에서만 자란다는 그 참대를 보고싶은 생각이 더했던것이다.

참대를 심는 작업은 퍼그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끝났다. 그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는 작업 이기때문이였다.

깊이는 얼마 파고 넓이는 몇센치메터로 하라, 부식토는 몇그람 넣고 흙은 이런 흙을 덮으라 하는 경삼의 지시대로 하나하나의 참대를 심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은숙은 별로 한것이 없었지만 일손을 떼고나니 수술장에서 외과수술을 하고났을 때처럼 온몸이 나른해지는것을 느꼈다. 하얀 풀대들이 드문드문 서있는 풀밭으로 나온 경삼은 담배를 피워물며 은숙의 옆으로 다가와앉았다. 잔주룩이 가라앉은 저녁녘의 정적속에 퍼르스름한 담배연기만이 웅수철처럼 타래쳐 날아올랐다.

《은숙이!》 경삼은 문득 안해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은숙은 까딱 안하고 앉아서 어딘가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곱게 화장을 했던 얼굴 군데군데는 땀발에 어지러워졌고 어깨와 머리우에는 검불들과 풀이파리들이 묻어있었다.

경삼은 그 모든것들을 부드럽게 일별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은숙이!...》

《.....》

《당신은 나와 결혼한걸 후회하지 않소?》

《후회한다면 어찌겠어요?》

《허허.》

경삼은 대답대신 소리내여 웃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마 당신은 나를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

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 난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구, 또 그 누구보다도 심장이 뜨거운 사람이라고 자처하고있지만...》

《제가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하는거겠지요?》

《허...》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활은 이제 시작이니 까요.》

《그러니 실천을 통해서 나를 검열하겠다는거구만? 하하.》

남편을 따라 상국이 웃던 은숙은 문득 생각난 듯 남부지방에서만 자란다는 그 참대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경삼의 얼굴에는 대번에 활기가 넘쳐났다. 그는 성큼성큼 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앉더니 조심스럽게 어루쓸기 시작했다. 그것은 끝이 창끝처럼 뾰족뾰족하고 가지도 이파리도 없는, 아직은 여물지 못한 그 어떤 밋밋한 식물체였다. 뾰족한 끝에는 정말 선혈이 묻기라도 한 듯 불그죽죽한 색을 띠고있었다. 어떤것은 굵은 강냉이대처럼 싹했고 어떤것은 손가락처럼 가늘었다.

(저것들이 바로 그 참대순들이로구나!)

은숙의 가슴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이제 며칠만 더 있어보오. 여기서 또 새로운 참대순들이 쪽쪽 솟아나게 될거구 이 참대순들은 당신 허리에 차게 될거요. 그리고 그 뿌리마다에서는 결가지를 치게 될거구. 거기선 또다시 참대들이 나오게 될테지...》

경삼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렇게 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온 나라를 무성한 참대숲으로 뒤덮게 할수 있을거구 그 참대루 초모자, 낚시대, 절상, 좌우간 별의별것들을 다 만들수 있을테지...》

아, 그렇게 되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가?...》

경삼의 목소리는 떨렸다. 두눈망울에는 물기가 어린 듯 그윽해졌다. 그는 꼭 황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같았다.

《참대란 참 흥미있는 식물이요.》

경삼은 계속했다.

《다른 식물들은 나올 때 가늘게 나와서 일생동안 키도 크고 굵어지기도 하지만 참대는 나올 때 아예 굵기, 크기를 정해가지고 나와 한달남짓한 기간에 와작 커버리고만다오.

그 다음부터는 더 크지도, 굵어지지도 않고 다만 굵어질뿐이지...》

홍분으로 하여 벌겋게 상기된 경삼의 얼굴엔 락조가 어려 더 황홀하게 불타올랐다.

(저이는 참대에 반하다보니 거짓말을 하고있어! 어떻게 한번 나온 참대는 더 크지도 더 굵어 지지도 않을수 있담. 모든 식물이라는거야 일생을 두고 키도 크구 굵어지기도 하는건데...)

이 순간 은숙은 식물학자인 남편보다 의사인 자기가 식물학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처럼 단정해 내리고말았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즐거웠다. 참대순들이 나왔다는것은 참대의 풍토순화과정이 순조롭게 되어가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윽고 그들은 참대밭을 내리기 시작했다.

날이 어슬어슬해왔다.

3

은숙이가 솔섬에 온지도 어느덧 열흘이 되었다. 그는 래일 떠나려고 맘먹었다.

밤이었다. 고요히 앉아서 깨끗이 빨아서 손질한 남편의 작업복에 단추를 달고있던 은숙은 바늘을 옷깃에다 꽂고 밖으로 나갔다.

(아이 왜 아직 안오실가?)

은숙은 킁킁한 감나무가지가 드리우고있는 마당가에 서서 좀 훑해보이는 길목을 유심히 살폈다. 인기척이 나지 않나해서였다.

조용했다.

은숙은 부엌으로 들어와 아궁에 장작개비를 두어개 집어넣었다. 바리개를 꼭 닫아 솔안에 들어놓은 남편의 밥이 식을 가봐서였다. 벌써 몇차례 이렇게 하는지 모른다.

은숙은 다시 무릎우에 바느질감을 올려놓았다.

남편은 지금 시장기도 잊고 참대밭에 앉아있을 것이었다. 참대는 벌써 가슴노리를 차게 자랐다. 우후죽순이란 말처럼 참대는 빨리도 자랐다. 은숙은 남편이 이 외진 섬에 와서 고생은 하고있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은것임을 눈앞에 보는듯했다.

그래서 그랬던지 은숙은 막상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남편한테 무엇인가 죄를 짓고 가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떠나기전이라도 그를 더 뜨겁게 리해해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기다리는 남편은 오지 않는다.

은숙은 저도모르게 고개방아를 찢기 시작했다. 깜박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그는 잠결에 눈을 떴다, 흐릿해보이는 불빛, 온 방안을 가득 채운 그림자, 남편은 언제 왔는지 앓은뱅이책상앞에 수고하고 앉아서 무엇인가 쓰고있었다.

은숙은 자기 몸우에 부드러운 담요가 썩워져 있는것을 보았다. 아마 남편이 덮어준 모양이다.

《식사하셨어요?》

은숙은 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다.

경삼은 달리던 펜을 멈추고 병긋이 웃는 낯으로 돌아보았다.

《먹었소. 어서 자오. 나도 이제 자겠소.》

은숙은 또다시 달콤한 잠나라로 빠져버렸다...

은숙은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떴다. 시퍼런 번개불이 창문을 환하게 비쳤다 다시 캄캄해졌다. 바람에 창문이 다시 덜경덜경한다. 비발이 문창을 후려갈긴다.

처음 한동안 은숙은 얼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해서 있었다. 캄캄한 방안, 소란스러운 바깥...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갑자기 가슴이 후둑 후둑 뛰었다.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남편의 자리가 비어있었다. 그러자 그 어떤 불길한 예감이 번개처럼 머리를 짹 가르고 지나갔다. 아직 여물지 못한 애어린 참대들이 비바람에 견디지 못해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다 못해 쓰러지는 광경이 보이는듯했다. 머리가 아찔해졌다.

남편은 벌써 참대밭으로 나간 모양이었다.

(왜 그이는 나를 깨우지 않았을까?...)

은숙은 혼자만 나간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몰랐다. 차갑고도 선뜩한 비바람이 그를 쓰러뜨릴듯이 날쳤다. 그러나 그는 항거하듯이 머리를 숙이며 모로 섰을 뿐 쓰러지지 않는었다. 참대밭에 다달으니 숨이 턱에 닿는것 같았다.

그는 발목까지 빠지는 흐물흐물한 밭으로 들어섰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남편과 철남이가 기승스런 비바람과 싸우며 참대들에 받침대를 세우고 있었다.

은숙은 가슴을 들먹거리며 남편의 옆으로 다가갔다.

《어떻게 되었어요?》

《아니 당신이?!》

경삼은 다소 놀라운 모양이었다.

《어떻게 되었어요?》

《괜찮소... 왜 나왔소? 감기 들려구...》

아기는 목소리였다.

《일없어요. 참대가 근심스러워서...》

은숙은 저도모르게 가슴이 몽클해져서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 순간 푹!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은숙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어디선가 나무아지가 꺾어지는 소리였다.

폭풍우와의 싸움은 날이 흰히 밝아올무렵에야

끝났다. 했으나 종내 석대의 참대는 꺾어지고말았다.

4

은숙은 그날 떠나지 못했다.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떠나지 못했다. 왜 그런지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떠나자니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다고 하여 하루라도 더 있게 되면 마음 가벼워지는 일이 있게 되겠는지?...

그날 오후였다.

점심상을 물리고 무엇인가 무거운 생각에 잠겨 있던 경삼은 철남이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입을 열었다.

《철남동무, 아무래두 여직껏 순이 나오지 않은 뿌리들을 다시 검사해보아야 하겠소.》

부엌에서 합숙어머니의 일손을 거들어주고있던 은숙은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워지는것을 느꼈다. 갈마드는 불안을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이윽고 끈이 길다란 군용가방을 한쪽 어깨에 거느적이 멘 남편이 방안에서 나왔다.

은숙은 자리에서 살머시 일어나며 자기도 가겠다고 했다.

《허, 그러다가 당신두 식물학자가 되겠소.》

경삼은 유난히 시꺼매보이는 눈을 슴뻑이며 룡담을 했다.

《식물학자가 돼서 나쁠거야 없지 않아요?》

《그럼 의학은 어떻거구?》

《두가지 다 하지요뉘.》

《허, 욕심은...》

《같이 가구싶어서 그런다우. 이제 또 헤어지겠는데 왜 안그렇겠수.》

무던해보이는 합숙어머니가 한마디 끼어들었다.

남편을 따라 문밖을 나서는 은숙의 가슴은 어수선하기 그지없었다. 남편이 하던 말이 아무래도 꺼림직했다.

참대밭에 다달은 경삼은 참대순들이 나오지 않은 뿌리들을 검사하기 위하여 삽으로 거무죽죽한 땅겉질을 한벌 벗겨냈다. 그리고는 쭈그리고앉아 매고온 가방안에서 아이들 장난감같은 손삽을 꺼내가지고 조심스럽게 속흙을 헤집기 시작했다.

은숙은 저도몰래 숨을 죽였다. 외과외가 수술부위에서 봉합을 땔 때 바로 저렇게 하는것이다. 순간 은숙은 자기가 병원 의무실에 와있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경삼이가 놀리던 손을 딱 멈추었다.

(?!...)

한껏 긴장해졌던 은숙은 영문을 알수 없어 남

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경삼은 컴컴하게 흐려진 얼굴로 까딱 안하고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부정하기라도 하듯 도리머리를 저으며 천천히 뿌리를 파내어 확대경을 가져다대고 살펴보기 시작했다.

뿌리에 대한 검사를 끝낸 경삼은 자기를 잊은 듯 멍하니 앉아서 한곳을 보고있었다.

《?!... 왜 그러세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남편의 기색을 살폈다.

경삼은 여전히 묵묵히 앉아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음, 저걸 보우. 뿌리들이 상했소.》

《뿌리들이 상해요?!...》

은숙은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다. 아무리 뿌리를 살펴보아야 별다른게 없었다. 약간 좀 거무스름해 보인다고 할가?

《별로 상한것 같지 않은데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물론 대수롭진 않소. 하지만...》

《아이참, 별걸 다 가지고 그러세요. 전 정말 간에 콩알만해졌어요. 무슨 큰 일인가 하구요.》

경삼은 입을 꼭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이구, 일이 또 잘 안된 모양이구만.》

저녁차비를 하고있던 합숙어머니가 방안으로 들어가고있는 경삼을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은숙은 머리수건을 벗으며 기신없이 부엌바닥에 주저앉았다.

합숙어머니는 쌀을 솥안에 안치고 아궁에 불을 지켰다. 그물그물 피어오르던 연기는 인츰 노르끼레한 불길에 휩싸여버렸다.

《조봄에두 참대뿌리에 대한 검사가 있었다네.》

장작이 탁탁 불꽃을 튀기며 타오르자 합숙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때두 연구산 며칠동안 때식을 번지다싶이 했다네. 제 살불이를 잃었다 해두 그렇게 피로와 하지는 않았을거야.》

《검사결과가 나뉘던 모양이지요?》

《나쁘기야 뭐. 철담이 말을 들으면 그런것 같지 두 않아. 연구산 참대에 손톱눈만한 상처가 생겨 두 가슴아파한다네.》

은숙은 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궁에서는 장작이 식식 소리를 내며 무섭게 타고있었다.

이때 밖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태섭로인의 더부룩한 얼굴이 부엌문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팔뚝같은 우레기 세마리가 들려있었다.

《연구사나 대접하라우.》

《고마와요, 할아버지.》

밖으로 따라나온 은숙은 진정으로 미안해했다.

《허 무슨 소릴.》로인의 얼굴은 자못 근엄해졌다. 그러더니 불시에 목소리가 다정해졌다.

《왜 신색이 좋지 않구먼. 응, 참대때문에 그런가?》

은숙은 대답을 못했다.

《뭐 그렇다구 그렇게 근심할거야 있나.》

로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랑주오누이라더니 둘이 똑같구먼. 그저 참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니...》

그날밤.

은숙은 책상앞에 수긋하고 앉아서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얼마나 그 일에 골몰해있는지 아무것도 못느끼고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연구일지를 정리하고난 경삼은 고개를 돌려 안해를 바라보았다.

은숙은 까닭없이 가슴이 몽클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고맙소.》

침묵이 흘렀다.

《그렇지만... 참대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는것을 보면 견딜수가 없구려. 참대가 비바람에 석대씩이나 꺾어진것도, 그리고... 모든것이 내 불찰이요.》

사실 나는 참대들이 스스로 자연의 그 어떤 횡포속에서도 곳곳이 이겨내주기를 바랐던것이요. 아직 연약하기만 한 그 참대들이말이요. 그래서 받침대를 해주지 않았던것이였소.

아, 정말 가슴이 아프오. 나는 그것을 타산하지 못했을가? 정성이 부족하구 또 조급하게 성공을 바랐지...》

그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훑어 내리는것 같았다.

《너무 자신을 확대하지 마세요.》

은숙은 울먹울먹해져서 말했다. 이제는 휴가기간도 다 되어서 래일아침에는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그는 드디어 떠나자고 하니 천근무게를 지고가는듯 가슴이 답답해지는것이였다. 남편의 생활을 두고 어느것 하나 마음에 쓰이지 않는것이 없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섬사람들이 정성껏 돌봐준다고는 하지만 아무러면 그것이 안해인 자기 손길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살뜰할수 있으랴! 은숙의 심정은 복잡하였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 래일아침 떠나겠어요.》

《래일아침?!》

경삼은 다소 뜻밖인 모양 어땀해서 안해를 쳐다보았다. 마치 안해가 떠나가는것을 모르기라도 한듯. 이윽고 그는 빙그레 웃었다. 너그러운 웃음이었으나 은숙에게는 그것이 쓸쓸하게 생각되었다. 남편이 자기와 헤어지는것을 얼마나 섭섭해하는가 하는것을 느끼게 된 은숙은 가슴속이 알찌근 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집에 한번 다녀오지 않으시겠어요?》

《집에?》

《어머님께서 몹시 기다리실거예요.》

《어머니...》

경삼은 나직이 뇌이였다. 은숙은 이때라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그루를 쳤다.

《이번에 함께 떠나시는것이 어때요? 잠깐 가셨다오면 되지 않겠어요. 글썄 어머님 생각두 하셔야 되지 않아요.》

《허허 참, 당신두 수가 높은데.》

《수가 높지 않음 그렇게 뭐예요?》

경삼은 이윽도록 안해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나직이 말했다.

《여보, 당신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주오. 지금은 이 섬을 떠날수가 없소.》

은숙은 머리를 다소곳하고 한참동안 앉아있었다. 남편한테 그런 말을 비쳐보는게 어리석지...

이튿날아침, 은숙은 배전에 코트자락을 날리며 서있었다. 합숙어머니며 태섭로인이며가 배웅을 나왔다. 그들은 못내 서운해하며 연구사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잘 돌봐주겠노라고 거듭거듭 안심을 시켰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다. 마지막으로 빙그레 웃으며 천천히 손을 쳐드는 남편의 모습이 망막안에 가득차는듯했다.

순간 저도모르게 눈앞이 뿌옇게 흐려움을 느낀 은숙은 얼른 손수건을 눈언저리로 가져갔다.

《허, 꼭 애어린 참대순이라니까!》

이러며 껄껄 웃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5

그 이듬해 봄.

그해 봄은 번덕스러운 봄이었다.

청류벽의 진달래가 금방 망울을 터질듯이 통통하게 부풀어오르는가 했는데 돌연 눈가루가 날렸다. 그것은 무서운 강추위였다. 사흘동안에 모든것을 다시 얼구어버렸다.

그러나 그해 봄의 번덕도 은숙의 가슴속에서 부풀어오르는 마음의 꽃방울만은 얼구어버릴수가 없었다.

그것은 멀지 않아 남편이 연구소로 돌아오게 되는것이다.

작년봄에 나온 참대들이 첫겨울을 무사히 이겨낸것이였다.

참대의 풍토순화는 성공한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람들은 부드러운 미소로써, 혹은 은근한 말로써 그에게 축하를 보냈다. 마치 그가 연구사 그당자이기나 한듯이.

은숙의 가슴은 한량없이 부풀어올랐다. 너무나 분에 넘치는 행복이 찾아오는것만같아 머리가 핑돌 지경이였다. 고생끝에 락이 온다더니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어느 일요일 아침. 철남이가 문득 은숙이네 집에 찾아왔다. 연구소에 회의 왔다가 들렀다는것이였다.

《왜 우리 죽림이 애비는 오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두 기다리구들 있다네.》

은숙의 시어머니가 손자를 무릎우에 올려놓으며 말을 건넸었다.

《예, 뭐 이제 곧 올겁니다.》

철남은 왜 그런지 우물쭈물했다. 터슬터슬하게 트고 거무죽죽해보이는 얼굴엔 피로운 빛이 어렸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은숙은 불시에 갈마든 불안감을 애써 물리치며 철남이를 주시하였다.

《죽림이 어머니!...》

철남은 입술을 깨물었다. 은숙의 심장은 터질듯이 죄여들었다.

철남은 떠듬떠듬 이야기를 시작했다.

《...갑자기 하늘이 음산하게 흐리기 시작했지요...》

...눈꽃이 날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하나 둘 날렸다. 그러다가 밀가루 포대를 탁 터뜨려놓은듯 뽀얀 눈가루가 어디선가 아우성치며 터져나왔다. 밤부터는 눈가루도 날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강추위를 하기 시작했다.

경삼은 추위가 쉬 물러가리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하늘이 망녕을 부려도 계절이야 계절이 아닌가?

그러나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다.

한난계의 수은주가 참대생육의 한계점을 드디어 넘어서고말았다.

참대들이 얼어터지기 시작했다.

《으음!》 경삼은 입을 꼭 앙다물고 참대밭가운데 망두석처럼 서서 부르르 몸을 떨었다. 맨머리 바람으로 달려나온 그의 머리에서는 머리칼이 어지럽게 흩날렸다. 그는 꼭 미친것만 같았다. 이렇

게 참대를 다 열어죽이고만단말인가?

《연구사동지!...》

철남이도 푸들푸들 떨며 통절하게 부르짖었다.

《철남이! 참대가 다 열어죽소! 다 죽어!》

경삼은 제 정신이 있는것 같지 않았다.

《이 참대가, 이 참대가 다 죽는단말이요!》

경삼은 가슴을 쿵쿵 두드렸다. 눈에서 불줄이 나오는듯했다. 그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하듯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집쪽으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잠시후에 그는 나무단을 한아름 그러안고 비칠거리며 다시 달려나왔다. 그리고는 참대밭두리에 쌓아놓고 성냥을 그어댔다. 그는 또다시 집쪽으로 달려간다. 마을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왔다. 그리하여 삽시에 수십개의 모닥불이 사방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경삼은 웅근 사흘 낮과 밤을 참대밭에서 보냈다.

추위는 올 때처럼 불시에 물러가버리었다. 날씨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싶게 따듯해졌다.

한쪽 발에 동상을 입은 경삼은 절뚝거리며 질척 질척한 참대밭을 걸어다녔다. 그는 실성한 사람같았다.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입술은 얼어터졌다. 그러나 그의 두눈에는 형언할수 없는 기쁨이 샘물처럼 남실거렸다.

대여섯대가 열어죽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참대가 흑한을 이겨냈던것이다.

경삼은 살아있는 참대들을 두손으로 어루쓸기도 하고 터슬터슬한 불을 대고 비비기도 했다.

이윽고 고개를 돌린 경삼은 옆으로 다가오는 철남이와 시선이 부딪쳤다.》

《철남이!...》

《연구사동지!...》

두사람은 와락 그러안고 불을 맞비볐다. 거뿔개 열고 터진 사나이들의 불로 물기가 번들거리며 흘러내렸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경삼은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아픈줄을 몰랐다. 그러나 문턱을 겨우 넘어서고는 저도모르게 그만 방바닥에 쓰러져버리고말았다.

철남이가 깜짝 놀라 그에게로 다가가 부축하려 했다. 그러나 경삼은 다시 문설주를 두손으로 잡고 일어서며 힘주어 말했다.

《근심하지 마오. 참대가 얼지 않지 않았소. 내 발이 좀 언것이 무슨 대수요, 응.

철남동무! 우리 평생을 바쳐서라두 풍토순화를 완성해서 어버이수령님께 꼭 기쁨을 드립시다!》

...은숙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철남이가 눈치챌가봐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으로 가섰다.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키 위해서라면 사소한 비판이나 락망도 모르고 불사신처럼 일어서는 남편의 모습이 우렷이 눈앞에 안겨오는듯했다. 남편이야말로 꺾이면 꺾일지언정 휘지 않는 참대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언젠가 《꼭 애어린 참대순이라니까!》 하고 꺾 꺾 웃던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 아프게 가슴을 두드리는것이였다.

왜 자기는 작년봄 술섬에 찾아갔을 때 남편의 곁에 떨어져 그를 도울 생각을 못했던가? 참다운 안해라면 그렇게 했어야 했을것이였다. 그러나 자기는 이 아늑한 집에 앉아서 어서 남편이 성공하고 돌아오기만 바랐고 변화한 수도에서 단란한 가정생활이나 할것을 꿈꾸어온것이 아니었던가? 은숙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것 같았다.

《철남동무!》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같이 내려가요. 저도 거기 가서 일생을 참대와 함께 살겠어요.》

은숙은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가 경삼의 안해로 된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튿날 술섬으로 떠나는 연구집단(경삼을 방조하기 위하여)과 함께 은숙은 남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의 옆에는 돌이 갓 지난 죽림이를 품에 안은 시어머니가 앉아있었다.

× ×

세월은 흘러 20여년! ...

검고 윤기돌던 경삼의 머리에는 어느덧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녀시절의 수집음과 애티를 가시지 못하고 술섬을 찾아왔던 은숙이도 이제 40대의 중년부인으로 되였다. 그는 지금 리병원 원장이다.

술섬에서 시작된 참대의 풍토순화는 역세계 이 땅우에 뿌리를 내리우고 바다를 건너 물으로 넘어와 수백정보의 참대숲으로 무성하게 자라났다.

은숙은 솟구치는 감회를 누를수가 없었다.

자기자신도 애어린 참대순으로부터 역센 참대로 자라난것이 아닌가!

경삼은 힘있게 걸음을 옮겨놓았다. 북쪽으로! 이렇게 참대는 위도의 제한된 분포한계를 넘어 북으로, 북으로 옮겨간다!

높고 낮은 산발마다에 아득히 펼쳐진 무성한 참대숲은 새로운 연구지로 떠나가는 경삼을 축복하는듯 좌좌 끝없이 설레이였다.

이 땅에 수천갈래 길은 많아도...

오영재

이 땅에 수천갈래 길은 많아도
무심히 걷지 말라, 사람들이여
그대앞에 뻗어간 그 길이
한줄기 작은 오솔길이어도
산촌의 가파로운 언덕길이어도

하많은 자욱
세월을 두고 찍으시며
아버이수령님 앞서가신
그 길인줄 어찌 다 알수 있으랴

안개 흐른다, 오솔길 풀잎에
그 어느해 어느 새벽엔가
그이의 옷자락을 휘감던
그날처럼
눈가루 날린다, 산촌의 언덕길에
그 어느해 어느 해질무렵
그이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지던
그날의 흰눈처럼

보이는듯 저 멀리 산굽이에
날리시는 옷자락,
들리는듯 불어오는 바람결에
인자하신 그 음성

이 땅에 수천갈래 길은 많아도
인민의 살림에 그들이 없으라고
사람들의 얼굴이 언제나 밝으라고
뜨거운 자욱자욱 사랑을 누비시며
아버이수령님 앞서가신 길

그 어떤 비바람도 이겨낼
만풍년의 억센 씨앗을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주시며
수령님 가시는 길
이름없는 꽃과 같이
소문없이 충성을 다바친 마음들을
헤아리시고 안아주시며 영광을 주시며
인민을 이끄시여 가고가시는 길

무심히 걷지 말라, 단 한결음도
가시며 안겨주신 모든것
가시며 바라신 모든것들이
뜻깊은 이 길우에 있거니

더 풍성히 뒤덮여가자
이 길이 눈부시게
백과주렁진 대풍의 가을을,
없여가자
기계의 바다 채부의 산악을
바쳐도 다함없는
인민의 이 마음 위훈으로 수놓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세월을 두고 가장 뜻있게
빛내여가자 사람들이여
더 좋은 래일로 이 땅을 이으시며
우리 수령님 앞서가신 길
오솔길을 헤치시며 눈길을 뚫으시며
위대한 전변의 력사가 굽이쳐흐른
아, 이 땅에 갈래갈래 길은 많아도
우리의 가슴속엔 하나로 이어진
위대한 사랑의 그 길을

만수대외 2편

김철

밟으신것은 백두의 용암대지
손들어 가리키심은 우주의 한끝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승엄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에
위대한 수령님 서계시는 만수대

여기서 해가 뜨고 달이 쏙고 별이 돌아라
여기서 주체시대의 장엄한 음악이
광대무변한 누리를 진감하여라
사람들의 인생이 여기서 총화되고
혁명가들의 선서가 예서 다져지나니

행복하여라
이 언덕에 가슴을 맞대이고

더럽혀지지 않은 량심을 헤쳐놓는 사람은...
그 또한 영광이여라,
꼭절 많은 한생을 여기서 매듭짓고
새 투쟁의 전구로
영생하는 진리를 안고가는 전사는...

쳐다보며 오를 때엔
모래알처럼 느껴지던 자신의 존재도
돌아서 내릴 때면
산악보다 거창함을 깨닫게 하여주는
오, 만수대! 만수대는
인간만세의 무궁한 령마루로
찬연히 빛나도다

금요로동

그처럼 어렵던 나날에
내 이 거리를 위해 벽돌 한장 쌓지 못했고
온 세상이 쳐다보는 이 거리의 창문들에
내 아직 유리 한장 끼운 일 없었기에

깨끗이 땀 작업복 한벌
려행가방 깊숙이 넣고 왔더니
천만다행이랄가
나에게도 일감이 차례졌구려

나는 큰 대회와 대표도
출장원도 아닌 보통려행자
나는 로력영웅, 혁신자도 아닌
평범한 광부
어머니품을 찾는 젖먹이처럼
수령님 계시고 당중앙이 있는
수도의 품이 그저 그리워
건축권 한장 쥐고 찾아온 사람

40 평생 짊어진 마음의 빛을

하루의 땀으로야 어찌 다 갚겠소만
대극장 배우동무, 정무원의 국장동지
힘자라는것 듬뿍듬뿍 담아주시오

이렇게 가까이 대하고보니
실상은 초면들도 아니 었구려
우리한테 찾아와서 부르던 노래
예와서 들으니 귀맛이 새롭고

갱식당 고기국을 맛본후에야
진짜 광부생활을 알수 있다 하더니
실참에 따라주는 평양맥주맛
옥류관에 갔던들 어찌 다 알았겠소

그렇소, 어디로 가든
일감을 찾는것이 응당하지만
나는 참말 기쁘오,
평양 와서 흠뻑 땀을 흘리는것이

내 지금 넓히고있는 이 길로

우리 수령님
더없이 기쁘시여
만족하신 웃음으로 지나신다면

내 지금 심고있는 이 나무 한그루가
현지지도의 먼길에서 돌아오실
그이의 겹쌍이는 로고를

서늘한 그늘로 덮어드릴수 있다면

나는 적어넣겠소
몇줄 아니되는 나의 자서전에
동지들과 함께 보낸 이 하루 로동일을
큰 글자로 뚜렷이 밝혀두겠소

다시 오리

뺨을 대인 차창에
비껴흐르느니 별무린가 꽃바다가
아, 평양!
떠나노라 평양아!

영광을 안고 다시 오리
기쁨을 안고 다시 오리
그대에게 드릴 보고 어엿하지 못할진댄
내 어이 살았다고 되돌아오라

그대 심장이라면
나는 피방울
그대 뇌수이라면
나는 신경

그대 지령을 따라 나는 가리라
그대 박동을 따라 나는 뛰리라
그곳이 어디든 나는 숨쉬리-
평양아 다만 그대, 그대 숨결을 따라...

머나먼 북쪽 지하 깊은 갱도에서
그대를 장식할 보석이 되어 다시 오리
그대에게 열을 주고 빛을 더해줄
불뿔은 탄덩이 되어 다시 오리

다시 오리
그대 품에 만발할 꽃씨가 되어
그대 위용을 억년토록 떠받들
강철들보가 되어...

가뭄 드는 봄철이면
비가 되어 오리라
수령님 가꾸시는 시험포전에
보슬보슬 봄비 되어 함뿔 내리려

추위 맵짠 새벽이면
눈이 되어 오리라
그이께서 밝히시는 사색의 창가를
소담한 눈송이 되어 고이 지키려

만경대의 뜨락엔 흰모래가 되려
금수산 제일봉엔 맑은 바람이 되려
그리고 저기
만수대기슭을 감도는 물결엔
티없이 깨끗한 물방울 되려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다시 오지 못할진댄 떠나지도 못할
아, 평양! 어버이 계신 품아!

불빛

리광근

즐거운 마음
하루의 생활을 돌이켜보며
불빛은 당원회의 문을 찾아갈 때
말은 일을 두고 생각을 더듬으며
말없이 출근길을 걸을 때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의 불빛이 떠오른다

이슬이 내린 검푸른 들판
풀벌레들이 뛰어다니는 밤길에
좁은 도랑길도 헛디딤 없으라고
갈림길앞에서도 머뭇거림이 없으라고
먼 숙소로 한 연구사를 배려해주며
농장 당일군의 손에서 비치던 불빛
내 마음, 내 걷는 길에도 비쳐오는듯

들길을 걸으며
논판을 지나며
그 불빛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흐르고
사람들 가슴에 힘을 주는
얼마나 따뜻한 믿음이 비껴있는것인가

이른 봄 저문 날엔
언제나 운전대를 바로잡아주며
함께 트랙또르를 몰아가던 그 손길
가을날엔 새벽이슬을 앞서 헤치며
농장원들을 이끌어 버를 베가던 그 걸음

처음으로 농장일에 들어선
젊은이들과 나란히 저녁길을 걸으며
산기슭 기계화작업반에서 아침을 맞으며
따사로운 당의 숨결로
희망을 꽃피워주고 웃음을 안겨주고

몇날 몇해이던가
하많은 일터, 하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수많은 날, 수없이 걸음 옮기며
나라의 한 농장일을 떠밀어가면서도
이름 없는 한 과학자의 숨은 노력을
농장일처럼 받아들여준 그 마음이어

그 마음과 함께 지나온 나날
귀중한 작물 연구의 포진길을 더듬으며
비쳐주는 불빛따라 숙소앞에 이르렀건만
그 불빛너머 어려워는
축축히 옷자락이 젖은 당일군의 모습을 바라본
순간

-이런 당일군과 함께라면!
목매여 외우던 그 연구사의 말소리
내 가슴속에도 뜨거이 울려온다

이렇게 부르고 믿으며
산언덕에 강기슭에 새땅을 찾아
기대앞에 도면앞에 새 기술을 찾아
앞서 길을 내고 밤을 밝혀가는
수많은 당일군들의 뒤를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있게 걷는것인가

한순간에 놓쳐버릴수 있는
큰일도
한걸음에 헛디딜수도 있는
한생의 걸음도
언제나 앞서 밝혀주고 이끌어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한 한길로
밝게 비쳐주는 불빛이어

아 마지막 한걸음까지
앞을 밝혀주는 그 불빛속에서
사람마다 걸음걸음
희망과 신념에 넘쳐 걸어간다
가는 길
앞길에 비쳐오는
은혜로운 당의 빛발을 안고!

들끓는 나날에

권강일

밤교대에 넘겨준 로의 불길이
창가에 노을을 엮는데
용해장의 단가슴들이 둘러앉은
여기 휴계실원탁우에
로장은 말없이 펼쳐놓는다

기름 묻은 손자욱에 얼룩진
새 창안의 용해법 도안-
쇠장대를 감아잡던 큰손으로
네귀에 장갑짝을 눌러놓으니
무수한 점과 선들 우에
불꽃을 뿜기며 쇠물꽃은 피어나는가

어느때부터인지 모른다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내세워 주신
숨은 영웅들을 생각하며
위훈으로 가슴 커지던 나날
기술혁명의 불길속에 태어난
우리 작업반의 창조물

쇠물이 사뭇치는 로심을 살필 때면
그속에
더 큰 로를 세워보았고
쇠물길을 넓혀갈 때면 그 길에
더 세찬 쇠물의 흐름을 불러보았더라

퇴근길에
공장문을 나서다가도
번개치는 생각을 안고
되돌아서던 발길은 얼마였던가

부른 사람도 없건만
온 작업반이 로앞에 모여선것이

그대로 기술협의회가 되던 밤들이여
학교문을 나서던 공장대학친구도
새롭게 찾아낸 생각을 보태려
웃으며 들어서던 나날들이여

일을 해도
걸어도
새 기술, 새 발명을 찾으며
숨은 영웅들을 따라서는 그 길에
합쳐지던 우리의 마음
무심히 볼수 없구나

작업반의 그 불같은 마음들이
하나로 짝어가고
하나로 이어가던
여기 도면의 점과 선들 우에
수령님께 기쁨 드릴 더 많은 쇠물은
벌써 피어나고있었구나

숨은 영웅들을 따라
온 나라에 타번지는 기술혁명의 해불을 안고
들끓는 우리의 용해장
숫구치는 창조의 샘에서
조국을 받들어갈 쇠물은
더 세차게 끓어번지거니

아, 이 밤
우리는 벌써 타번지는 그 쇠물로
래일의 더 억센 강철기둥을 세우며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숨은 영웅들의 자량찬 대오
온 작업반이 함께 들어서고있구나

청산땅의 새세대들

박명수

비는 벌써 련사흘째나 쏟아졌다. 밋을듯하다가 다시 내리고 그칠듯하다가 또다시 썩- 하고 비줄기를 내리드리우는것이 마치 그 누구를 중편보려는듯싶기도 하였다.

비안개에 잠긴 청산, 석두재, 원동산의 높고낮은 봉우리들은 작황이 좋은 청산벌의 벼가 이 비에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넘려서러운듯 자못 근심 어린 표정으로 비내리는 벌판을 지켜보고있었다.

한창 알이 커가던무렵이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달랐다. 산들바람만 불어도 벼잎을 한들거리며 즐겁게 살랑거리던 벼대들이 이제는 알뽕 몸뚱이를 천천히 흔들며 점잖게 설렁거린다. 마치도 황금 벼이삭을 반들어올릴 영광의 그날을 앞두고 몸가짐까지도 조심하는듯한 그 모습은 정말 한몫에 쓸어안고 불을 비벼주고싶을만치 사랑스럽고 대견했다.

하지만 비내리는 이런 날에는 그런 사랑스러움과 대견함에 못지않게 불안과 걱정이 또한 크다. 혹시 비바람에 벼포기가 넘어지지나 않겠는지? ...혹시 비때문에 벼꽃이 잘 피지 못하여 헛알이 달리지나 않겠는지? ...

영광의 땅 청산리의 청년작업반 반장인 박명실은 지금 바로 이런 심정으로 어둠이 깃드는 포전길을 걷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고향땅을 대를 이어 꽃피워갈 불타는 념원을 안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그 걸음으로 농장벌로 달려나온 그였다. 나이는 어려 단발머리 열여덟, 아직은 애리애리한 처녀였지만 그의 작은 가슴속에는 수십정보의 논벌이 드넓게 자리잡고있었으며 한마음한뜻을 안고 한낱한시에 농장벌로 달려나온 백여명 청년작업반원들의 이름 또한 소중한 간직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은 우리에게 부유한 새 생활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우리를 유능하고 건실한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로동과정에서 자연을 개조하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수 있으며 자기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체농법대로만 그야말로 하루같이, 한사람같이 일해온 그들 청년작업반원들이었던것이다.

명실이가 내리는 비를 헤치며 1분조, 3분조의 포전길을 거쳐 2분조의 포전길에 들어섰을 때였

다.

저편 논두렁길로 웅성거리며 마주오는 동무들이 있었다. 그들은 벌써 목소리만 들어도 귀에 익은 정다운 작업반원들인 2분조장 김정희와 윤성건, 리창실, 리순녀, 한경애들이었다. 꿈결에도 헤어지지 않고 어깨를 걸고 애로와 난관을 함께 박차는 미더운 동무들! 비바람으로부터 벼포기들을 보위할 무기인양 저저마다 삽자루를 움켜쥐고 나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명실이의 가슴은 저절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명실은 자기가 작업반장으로서 그들의 모든것을 돌보는 엄격한 지휘관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동무들은 왜 나왔어요? 비상소집종이 울리기 전에는 누구도 나오지 말라고 하잖았어요.》

집짓 엄하게 울리는 명실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런 말로 통할 그들이 아니었다.

2분조장 정희의 귀여운 얼굴에는 벌써 생글생글 웃음이 떠올랐고 윤성건의 등실한 얼굴에도 한눈을 찡긍하는 우스운 표정이 지어졌다.

《그럼 반장동문 왜 나왔소? 반장동무도 비상소집종이 울리기전에는 나오지 않게 돼있지 않소?》

웃음속에 뜬 윤성건의 걸고드는듯한 말에 갑작한 정희가 《어마나, 아니 그럼 성건동문 종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나랑 반장동무랑은 모두 비상소집종소리를 듣구 나왔는데.》

하고 놀랍다는듯 눈을 동그랗게 뜨는바람에 반원들속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명실이도 그만 어이가 없어 《에이 요건 그저...》 하고 정희의 잔등을 두드리며 웃고말았다.

《난, 반장이니까 너희들과는 다르지 뭐.》

《그럼 난 분조장이니까...》

《나야 분조원이니까...》

《그럼 나도...》

저저마다 한마디씩 받고 채는바람에 그들은 또다시 큰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는 지긋은 비소리를 누르며 온 청산벌에 울려퍼졌다.

그들은 몇사람씩 조를 갈라 또다시 포전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얼마후에는 어제부터 뜻하지 않은 병으로 심하게 앓고있는 2분조원 강희를 내놓고는 백여명 작업반원들모두가 논벌로 달려나왔다. 그들을 논벌로 부르는 비상소집종은 바로 저마다의 량심속에서 먼저 울리었던것이다.

온 벌에 차넘치는 작업반원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들으며 명실은 마음속으로 동무들에게 뜨

겁게 물었다.

(동무들은 과연 무엇때문에 깊어가는 이밤 포근한 잠자리를 버리고 비내리는 논벌로 달려나왔는가?)

이 순간 명실의 머리속에는 청년작업반을 못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감사문을 전달받은 영광의 그날로부터 작업반원들과 함께 달려온 충성의 나날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처음 농장벌로 달려나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현지도도 로정을 직접 한발자욱 한발자욱 밟아보는 그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생각이 많고도 많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선 우리 청년들에게 당의 농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상 선봉대가 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부모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우리도 대를 이어 청춘도 생명도 정열도 다 바쳐 영광의 땅 청산리를 꽃피워가리라!)

그야말로 희망은 하늘처럼 높았고 꿈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아무런 경험도 숙련도 없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과 경쟁을 건 그들의 첫해농사에서는 첫걸음부터 부닥치는 난관, 겹쳐드는 시련이 너무도 많았다.

청년작업반을 무은 날 저녁 당면한 새해 농사차비를 의논하기 위해 분조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을 때였다.

《반장동무, 새해 농사차비를 하자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서 지시를 주세요.》

정희가 영채도는 눈을 반짝이며 묻는 말이었다. 정희와 함께 반장의 얼굴을 지켜보는 1 분조장과 3 분조장의 얼굴에도 명령만 내리면 단숨에 적진으로 달려나갈 전사마냥 팽배한 힘이 넘치고있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이하랴? 새해 농사차비를 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은 반장자신이 분조장들에게 묻고싶었던 말이 아니었던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눈가를 당황히 붉히는 명실을 보는 분조장들의 얼굴에는 한순간 실망의 구름장이 언뜻 떠올랐다.

방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때 작업반실 문이 열리며 쏟아져들어오는 달빛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리당비서였다.

《비서동지!》

《비서동지!》

명실이와 분조장들은 캄캄한 밤 방향조차 구분하기 힘든 무인지경에서 길잡이를 만났을 때처럼 저저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리당비서의 팔을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굴렀다.

리당비서는 그들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었다!

《처음 일을 시작하하니 모를게 많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를것입니다. 어서 좀 가르쳐주십시오. 비서동지!》

명실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청하듯 답알침까지 꿀꺽 삼키며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리당비서는 알만하다는듯 빙긋이 웃으며 밀을 뺐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학습부터 시작해야하오. 수령님의 교시에는 동무들이 알고싶어하는 모든 문제가 다 밝혀져 있소.》

그리하여 작업반실에서는 새해 농사차비의논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학습이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는 이른봄 령상모판준비로부터 모기르기법, 모내기방법, 비료치는 법, 물대는 법, 논김매는 법은 물론, 가을걷이, 낱알털기, 낱알보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짓는 방법이 다 명백히 밝혀져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벼씨뿌리기로부터 시작하여 모기르기, 모내기, 비료치기, 물관리, 논김매기 등 모든 농사일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밝혀진 대로만 해나갔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령상모판 평당 부식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때 확보된 작업반의 부식토는 너무도 보잘것이 없었다. 탐구된 원천도 없었다. 어찌할것인가? 어떻게 하면 평당 부식토량을 제대로 확보할수 있을까? 작업반원들모두가 자나깨나 오직 이 한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런 어느날 밤 2 분조장 김정희가 웬 비닐보자기들 든채 빨강게 얼어든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작업반실로 달려들었다.

《동무들! 부식토원천을 찾았어요, 부식토원천을!》

과연 그가 들고온 비닐보자기안에는 벼짚과 풀만 섞으면 질 좋은 부식토를 만들수 있는 개흙이 담겨져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양의 립체다리미 늪에서 파온것이다. 그곳은 원래 물깊이가 사람의 키를 넘는곳이었다. 그래서 정희가 부식토원천을 찾느라고 안타까이 돌아가다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만 해도 부근의 어느 농장에서는 개흙이 탐이 나긴 하나 얼음이 두터워서 할 도리가 없노라고 그냥 돌아가고있었다. 그러나 정희는 돌아설수가 없었다. 곤난이 있다고 교시집행을 뒤로 미룬대서야 어떻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라 하겠는가!

정희의 말을 들은 반원들은 일시에 환성을 울리었다. 그들은 감탕발린 정희의 몸을 하늘로 추켜 올리며 당장 개흙채취전투를 벌리자고 기세를 올리었다.

그리하여 이튿날아침부터 이제 겨우 열여덟살 밖에 안되는 이들 청년작업반원들은 힘겨운 개흙 채취전투를 벌리었다.

사람의 키를 넘는 얼음을 깨내는 일도 험치 않았지만 허벅다리가 푹푹 빠지는 감탕물속에서 감탕을 파내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장화도 숨옷도 모두 소용이 없었다.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었다가도 삼시간에 갑옷처럼 찢켜해지는 몸으로 그들은 저저마다 남보다 더 긴 시간을 늪속에 있으려고 싱갱이를 벌렸다.

너무도 기특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소행앞에 지나가고 지나오는 기양사람들은 목이 메이었다. 사람들은 더운 물을 끓여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장작을 지고 나와 불을 피워주며 청년작업반원들의 전투를 고무해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 2일동안에 무려 200여톤의 잘 썬 개흙을 캐내어 거기에 버짚과 풀을 섞어 질 좋은 부식토를 생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기어이 관철하고야말았던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한치의 드림도 용서치 않는 지상의 명령이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는것-이것은 그들의 철석같은 신념이었으며 드팀없는 신조였다.

바로 그러한 신념과 신조를 지니고 살아온 그들이기에 오늘 이처럼 보기만 해도 흐뭇한 풍년작황을 마련해놓을수 있는것이며 이 밤에는 번덕스러운 비바람에 단 한포기의 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관철하기 위해 비내리는 들판에서 한밤을 지새우고 있는것이다.

하기에 지금 이 시각 명실은 뜨거운 마음속으로 하나와 같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있는것이였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포근한 잠자리를 뒤에 두고 비내리는 포전으로 달려나왔느냐구요? 농장원들의 앞장에서야 할 우리가 어찌 잠시나마 편안하게 쉴수 있겠나요?)

비에 푹 젖은 명실의 온몸은 물덩어리처럼 달아오르기만 하였다.

미더운 동무들! 사랑스러운 동무들! 이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인들 못해내랴? 두려울것이 무엇이랴?

밤이 깊어갈수록 비바람은 더욱 기승을 부리었다.

시시각각으로 불어오르던 고일천의 시뻘건 향토물은 마침내 2분조 고무개들 모래동독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작업반동독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바로 이곳이었다.

명실은 작업반의 거의 모든 력량을 여기로 돌리었다. 모래동독을 보강하는 전투는 그 첫시작부

터 간고하였다. 어깨를 누르는 흙가마니, 미끄러운 길, 쏟아지는 비- 하지만 그속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는 더욱 고조되지만 하였다. 그러나 보강해야 할 동독의 길이는 너무도 길었고 불어오르는 물의 속도는 너무도 빨랐다.

새벽녘에 잡아들면서 비는 더욱 억수로 쏟아지고 미처 흙가마니로 보강하지 못한 한쪽에선 물이 넘기 시작하였다. 일단 물이 넘기 시작하자 모래독은 순식간에 허물어져내리었다.

《물이 넘는다!》

《물이 넘는다!》

작업반원들의 다급한 웨침소리속에 명실은 침병 물속으로 뛰어들어 금시 넘어나기 시작한 물길을 몸으로 막았다.

《동무들! 동독을 지키고 포전을. 구원하자요.》

불을 뿜는듯한 명실이의 호소에 김정희, 윤성건, 리창실, 김동훈이들이 앞을 다투어 물속으로 몸을 날리었다.

서로서로 어깨를 결고 들들 밀리는 몰사태를 가슴으로 막고있는 그들의 입에서는 혁명가요의 우렁찬 선율이 울려퍼졌다.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침략자를 때려부시고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썬을 치자

.....

힘겨운 전투속에 어느덧 새날이 밝아왔다.

그렇게도 기승을 부리던 비바람은 아무리 발버둥질을 쳐야 승산이 없다는것을 느꼈음인지 차츰 속어들기 시작하였다.

무섭게 룡트림치던 고일천의 탁류도 청년작업반원들이 막아선 동독은 한귀퉁이도 허물어내지 못한채 순순해지고말았다. 위험에 빠졌던 술한 포전들의 싱싱한 벼포기들이 기쁨에 속삭이며 출렁거렸다.

그러나 이 순간 구원된 포전들을 두고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청년작업반원들의 가슴은 괴롭기 그지없었다.

처음 동독을 넘은 물이 종시 모래를 한귀퉁이를 휩쓸어간것이였다.

명실은 모래사태에 묻힌 벼포기들을 움켜쥔채 너무도 안타까와 방울방울 눈물을 흘리었다.

물론 작업반 수습정보의 눈에서 피해를 입은 여러문평의 눈은 새발에 피라고도 할수 있는 적은 땅이었다. 하지만 명실은 피해입은 한포기한포기의 벼가 그대로 떨어져나간 자기의 살점처럼 쓰리고 아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포기의 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였단말인가?)

피로움에 모대기는 명실의 옆에서 2 분조장 정희가 모래속에 묻힌 벼포기를 파헤치며 흐느끼고 있었다.

《내가 멍꽂이였어, 여기 동쪽이 모래뚝인줄 알면서도 그걸 미리미리 보강할 생각은 안하구... 내가, 내가 정말 멍꽂이였어. 흐흑...》

정희옆에는 온몸이 진흙탕으로 개발린채 손에 얼굴을 묻고 울고있는 또 한명의 분조원이 있었다.

《아니야, 잘못은 모두 나에게 있어. 내가 좀더 일찍 나왔더라면...》

울음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2 분조원의 음성을 듣고서야 명실은 펄쩍 정신이 들었다.

《아니 너 강히가 아니야, 응?》

명실은 와락 달려들어 그의 얼굴에서 손을 잡아 떼었다.

그였다. 그는 강히였다. 작업반원들이 병문안을 갔던 어제저녁만 해도 고열에 떠서 앓고있던 강히, 그가 어느새 포전으로 달려나왔단말인가? 그런데 그의 몸은 지금도 불덩이였다. 며칠째 밥 한술 떠보지 못한 그의 얼굴은 피기조차 없어 해쓷하였다.

《강히야!》

명실은 걱정이 복받쳐올라 강히의 몸을 와락 부여안았다. 그가 언제 작업장으로 나왔는지 그걸 알아선 무엇하랴? 남달리 겁이 많다고 놀림을 받던 그가 캄캄한 석두재 산길을 혼자서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의 집은 석두재너머 취득마을이었다.) 그걸 알아선 또 무엇하랴?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맹세를 기어이 실천하고야말리라는 오직 한마음, 강히의 심장에서 뜨겁게 맥박치는 고동소리가 명실의 가슴으로 쿵쿵 메아리쳐왔다.

다음순간 명실은 소스라쳐 고개를 쳐들었다. 그리고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반원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강히와 같은 마음들이다. 모두 강히와 같은 심장들이다. 우리에게 어찌 한포기인들 그대로 피해를 입은 벼가 있을수 있단말인가? 벼를 구원해야 한다!

명실은 고개를 높이 들고 힘찬 목소리로 웨치였다.

《동무들, 우리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쳐 피해입은 벼포기들을 구원합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기어이 관철합시다!》

작업반원들모두가 그의 호소에 응해나섰다.

그리하여 비구름이 개인 청년작업반의 포전에

서는 사태속에 묻힌 벼포기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가 벌어졌다.

그들은 손에손에 바가지며 밥주걱, 대합조개껍질 등을 들고 벼포기사이를 채운 모래무지를 조심조심 파내고 넘어진 벼포기들을 하나하나 일궈세웠다. 그리고는 하나의 벼잎이라도 굵힐세라 모래 묻은 벼대들을 일일이 물을 끼얹어 씻어주었다. 갓난애를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도 모래속에 묻힌 벼포기를 일으켜세우고 씻어주는 그들의 손처럼 살뜰하고 조심스럽지는 못했으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사태속에 묻혔던 3175 포기 of 벼를 고스란히 되살려냄으로써 한포기의 벼도 비바람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끝끝내 관철하고야말았다.

×

×

가을이 왔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시된 영광의 땅 청산리에는 지난해에 청산땅이 생겨 처음으로 보는 대풍이 들었다.

그중에서도 위대한 청신리정신, 청산리방법과 함께 태어나고 자라난 새세대들로 무어진 청년작업반의 논에서는 정당 평균 9.6 톤이라는 놀라운 수확을 거두었다.

정당 9.6 톤! 이것은 해방전 1944 년에 비해서는 10 배나 되는 기적적인 수자였으며 위대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시되기 전해인 1959 년에 비해보아도 3.9 배나 되는 놀라운 수자였다.

과연 농사경험도 숙련도 없는 열여덟살 청년작업반원들이 첫해농사에서 이처럼 비약적인 전환을 일으킨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영광의 땅 청산리를 찾아오는 외국의 수많은 손님들도 그것을 알고싶어하는것이다.

그때마다 이곳 청년작업반원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하곤한다.

《우리는 그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일했을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란 없습니다.》라고.

청년작업반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찾아주시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였으며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로 꾸려주신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뿐아니라 온 세상에 이름높은 영광의 땅 청산리에서 살며 일하는 자량과 행복을 높이 간직하고 이해도 우리 당 6 차대회를 위대한 승리자의 대회로 맞기 위하여 보다 더 높은 목표에 힘차게 달려가고있는것이다.

다락발

한웅빈

채석장에서 짱 파르릉-하고 발파소리가 울렸다. 대기는 메아리치며 부르르 떨었다. 구름도 바람도 주춤거리는데었다.

하나 사람들은 폭음이 멎기 바쁘게 발파연기와 먼지구름속으로 달려들어갔다. 뒤이어 수십대의 자동차, 트랙터들이 와르릉 통탕거리며 다투어 꿈무늬를 들이밀었다. 로동안전원의 호각소리가 거의 지속음으로 흐르려거리는데 속에 채석장은 수십개의 구역으로 《분할》되었다. 입자 없는 돌이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막돌처럼》이란 비유는 종래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물건이 막돌이다.

제가끔 자기들의 《령토》에로 자기네 차를 불러 들인다.

《21 호! 여기루!-》

《19 호!-》

.....

《여-07 호!-》

《어-》

07 호는 꿈무늬를 들썩거리며 울퉁불퉁한 길을 땅크처럼 돌진해들어간다. 귀중한 돌을 실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지대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드는것은 알곡증산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강원군 장항리에서는 다락밭건설전투가 힘차게 벌어졌다. 장관목이 우거졌던 등성이에 온 군이 펼쳐나섰다.

다락밭에 필요한것은 돌이다. 돌이 없으면 다락밭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돌은 곧 새땅을 의미했다.

바로 이 돌을 찾아내는 임무가 청년돌격대에 맡겨졌다. 그들은 짧은 기일안으로 막돌 9 천립방을 다락밭에 보장해야 했다.

돌이란 돌은 죄다 《동원령》을 받았다. 산중턱에서 이끼를 쓰고 줄던 바위들도 잠을 깼다.

그러나 9 천립방이란 이삭주이로써 해결될 량이 아니었다. 통이 크게 판을 벌려야 하였다. 당, 정권기관 일군들은 그들을 떠밀어주었다.

마침내 그들은 다락밭에서 1 키로안에 있는 바위산을 통채로 타고앉았다. 그때부터 우렁찬 발파소리는 하루에 두번씩 어김없이 울리었다...

바루 깎은 머리가 뻗뻗하게 일어선 07 호운전사

박동무는 무척 소란스러운 청년이었다. 그는 어디에나 참견하였다. 다른 차의 상차작업에까지 간섭 하였다. 채석장에는 그와 다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는 혼자 차를 몰고가면서도 운전칸에서 잠자고 있지를 앓았다. 눈앞을 스치는 모든것에 분개하거나 찬동 또는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것이 죄다 운전칸안에서 혼자 떠드는것이니 다행이지 상대방이 얼마간이라도 듣는다면 불쾌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게 생겼을것이다.

상하차공들은 매일 매시간 그의 곱지 않은 말을 들어야 했다. 다투기도 했던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 운전사를 제일이라고 자랑하였다. 지칠줄 모르는 정열, 하루 스물다섯탕을 못넘기면 밥맛이 없다는 일욕심때문이었다...

07 호의 차창으로 올려다보이는 다락밭건설장은 로천광산을 련상시킨다. 수십개의 다락마다 자동차와 트랙터가 굴러가고 굴러온다. 운전사는 그 중에서 자기네 계단을 찾아보고 흐뭇해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락밭만들기운동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군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펼쳐나섰다. 단위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숙보원은 매시간마다 경쟁도표의 붉은선을 올려긋고 방송원은 조급하게 경쟁순위를 시간마다 전투장에 공개한다.

07 호 운전사 박동무는 아직 경쟁도표판앞에서 멈춰서 본 일이 없었다. 그럴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 산등성이를 평행으로 그어나가는 수십개의 돌뚝이 곧 숨쉬는 《경쟁도표》였다. 그는 《경쟁도표》의 숨결을 매 시각 느끼고있는것이다.

그러한 박동무가 중간에서 갑자기 차를 세웠다. 장애물이 나타난것이였다. 운전사는 경적을 울릴 대신 차창으로 머리를 내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비키오. 빨리 비키라는데! 차가 안보이오? 켄장!》

뒤이어 그의 입에서는 불쾌한 말들이 련달라 쏟아져나왔다. 차앞에서는 파란 목수건을 감은 처녀가 갈광질광한다. 두손에는 유치원가방만한 작은 돌을 잔뜩 붙안았다. 그는 운전사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더욱 당황하여 이쪽저쪽 헛발을 짚으며 허둥거렸다.

차는 멎고야말았다.

《제길할, 눈이 없소. 귀가 먹었소? 길복판에서 뭐요!》

처녀는 길가로 나섰다. 그러자 머리끝까지 약이 오른 얼굴이 차예로 향했다. 성내는데도 여유가 필요했다.

《소리는 왜 쳐요?! 뭘 잘못했다는거예요? 일은 처혼자 다하는것처럼… 병어리차…》

처녀의 목소리는 슬며시 낮아졌다. 마침내는 뭐라고 웅알대는 소리로 낮아지더니 생긋하고 웃어버렸다.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높은게 자기로서도 우스워진 모양이었다.

박동무 또한 소리치면서도 벌썌벌썌 웃고있었던 것이다.

돌간의 《전쟁》을 얼마간 걱정스레 지켜보던 상하차공들은 적재함에서 와하고 웃고말았다.

하도 떠들썌한 판이니 목청을 그쯤 높이지 않고서는 통담을 주고받기도 어렵게 생겨먹었다. 그 보다는 박동무의 사람들과 친하는 계기가 대체로 그러루했다. 상하차공들은 자기네 운전사가 생기기는 울퉁불퉁하고 없어보이지만 속은 엉큼하다고 하였다…

불도젤이 길바닥 얼음층을 깎으며 내려오고있었다. 이런 일이라면 운전사들은 불평이 없었다.

박동무는 처녀가 들고있는 돌을 멀리하듯이 턱으로 가리켰다.

《고따위나 가지고서야 언제 자리를 내겠소? 돌이라면 못해도 저쯤이야-》

적재함에서는 아름이 번 돌들이 감때사납게 생긴 머리를 삐죽삐죽 쳐들었다.

처녀는 들고있던 돌을 땅우에 내려놓고는 입을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다음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생긋 웃었다.

《운전사동무, 제가 옛말을 하나 하랴요?》

《옛-말?》

《예, 들겠어요?》

박동무는 불도젤이 와당탕거리는 길을 올려다보았다.

《짧은거예요. 들어주지요?》

박동무는 큰 희생이라도 감수하듯이 한숨을 쉬었다.

《들어들가?》

《옛날에 돌들이 성쌓는다는 소식을 듣고말예요. 성쌓는데 한몫 하겠다고 길을 떠났대요.》

《길을 떠났다… 가만, 누가말이요?》

《아이참, 돌말이예요. 이런 돌…》

운전사는 하늘을 쳐다보며 웃었다.

《오- 돌이 길을 떠났단말이구만.》

《예, 그래요.》

《그것 참! 돌이 길을 떠났다구? 별일이 다 있는걸.》

처녀는 조용해지기를 잠자코 기다렸다. 노염을 잘 탈듯한 깔끔한 얼굴과는 다르게 꽤 참을성이 있었다.

《그래서말예요. 떠났는데 글썄 큰 돌들이 저희

끼리만 떠났대요. 조그만 돌들은 못따라오게 하구요. 기본 나쁘다나요? 체면이 깎여서말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만 갔다지요 뭐. 그런데 그만 성을 못 쌓고 도루 돌아왔대요. 왜 그랬겠어요?》

《흠!》

《조그만 돌들이 없었기때문에였대요. 큰 돌만 엉성하게 놓아서야 쌓아지나요? 자꾸 무너지지요 뭐. 우리 일도 그래요. 큰 돌만 가져다 쌓으면 빠를것 같지만 든든히 못쌓아요. 큰 돌과 작은 돌을 함께 쌓아야 어떤 장마에도 끄떡없는 다락발을 만들수 있어요. 보기도 아주 좋구요.》

박동무는 감탄하는 소리를 질렀다.

《동문 이제 보니 선동원이구만!》

《어마나! 내가 무슨 선동원이나요? 난 그저 돌격대원이에요.》

얼음을 걷어낸 불도젤은 길옆으로 물러났다.

운전사는 차에 올라서 처녀에게 물었다.

《동문 어느 기관이요? 이름은 어떻게 부르요?》

《그건 왜 물어봐요?》

웃음이 반짝거리는 처녀의 꼬집는듯한 물음에 운전사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운전사들이란 언제나 말이 막히지 않는 축들이다.

《옛말을 마저 해주려구 그러오. 큰 돌들은 작은 돌들을 데리고 다시 가서 성을 아주 잘 쌓았대요. 알겠소? 교양됐거든!》

그는 차를 앞으로 내몰며 뭐라고 또 소리쳤다. 잘 들리지 않았으나 입술림과 손짓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짐작할수 있었다.

《오늘은 다락밭에서… 혁신…》

돌쌓는곳도 채석장처럼 경쟁의 분위기였다. 더 치열하였다. 여기는 채석장에서 시작된 경쟁의 결승점이었다. 처음은 20미터 쌓은 조가 만세를 불렀다면 다음은 28미터, 어제는 34미터, 오늘은 40미터의 목표에 올라섰다.

40미터를 마무리짓는 돌쌓기조현장에 막돌차가 나타났다. 일욕심 많은 07 호였다.

적재함 문짝을 열어제끼자 돌쌓기공들은 환성을 올렸다.

《돌이 좋-구만!》

《잘 생겼다!》

크고 사나운 돌은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튼튼하게 쌓을수 있고 자리가 폭폭 나서 좋았다.

큰 돌밑에는 작은 돌들이 깔렸다.

누군가 실망한듯 탄하였다.

《작은 돌은 왜 자꾸 가져와?》

박동무는 그를 흘려보았다.

《내 옛말을 하나 할가?》

《옛말?-》

그러나 상하차공들은 벌써 돌을 다 부려치웠다 박동무는 발판에 올라서며 물었다.

《이젠 됐지? 40미터!》

《그럼! 마지막 마무리야!》

《1 등이구나!》

하고 박동무는 만화책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두 손을 쳐들고 웨쳤다.

《만세! 만세! 만세!》

때아닌 만세 삼창에 아래우 시선들이 집중되었다. 다음은 웃음이 터졌다. 질투와 부러움에 찬 눈길들이 사진기처럼 겨누어졌다. 그것은 박수와도 같은 것이었다.

차는 웅-하고 떠났다.

《가만 어-07 호! 07 호!》

그러나 차는 벌써 먼지를 뽀얗게 일구며 달려 내려갔다. 몇분후에는 벌써 채석장앞의 개울가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돌쌓기조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차 세척하려는게 아니야?》

《10 메터를 더하자고 말해야 했는걸.》

《말해줄 사이나 있었나. 만세를 부르군 냅다 뺐은걸.》

07 호차는 얼마후에 개울가언덕으로 기우뚱거리며 다시 기여나왔다. 그런데 물에 씻겨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먼지와 감탕을 뒤집어쓴 그대로였다. 복데기속에서 낮잠을 자고 나오는 곰갈았다.

달라진 점이란 적재함에 파란 목수건을 감은 처녀를 한명 태운 것이었다. 다음은... 적재함에 막돌을 가득 실었다. 개울가에 모아놓은 막돌이었다.

여기까지는 일이 괜찮았다. 그런데 07 호차는 울리막길 중간에서 힘이 진한듯 멈칫거리더니 옆길로 굴러들어갔다. 뜻밖에도 차는 막돌을 기다리는 그곳의 돌쌓기조에 막돌을 부리우기 시작하였다.

경쟁의 적수라는 것밖에는 인연이 없는 곳에 그는 막돌을 주고있는 것이었다.

우에서는 모두들 열썬썬했다.

《머리가 잘못되잖았어?》

적재함에서 파란 목수건이 상하차공들과 함께 땀이처럼 돌아치며 돌을 부리고있었다.

《저런! 처녀한테 넘아갔구만.》

《눅았어. 젠장!》

《07 호가 눅다니?》

돌쌓기조장은 탄식조로 말하였다.

《어찌겠나. 세상리치가 그런걸.》

《묘한 일이거던.》

그러나 돌쌓기공들은 조장의 《세상리치》에 찬동할수 없었다. 아래에 대고 입을 모아 소리쳤다.

《07 호- 07 호-》

《왜- 거기다 부려? 정신나갔어?》

박동무는 대뜸 경충 뛰여오르더니 손으로 상앗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그의 말이 거의다 거리와 소음에 삼키우지 않았더라면 술한

비난이 전해왔을 것이다.

《거기야... 많지... 혼자만 리기주의-야-》

푸른 수건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왔다. 마치도 《리기주의! 리기주의!》하고 통통 뛰며 놀러대는 것 같았다.

처녀에게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었다. 그 역시 07 호운전사처럼 그 돌쌓기조와는 관계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옛말군처녀-청년돌격대원일뿐이었다.

하나 그들은 돌과 돌, 큰 돌과 작은 돌이 합쳐서야 든든한 돌뚝을 이루듯이 다락발건설에서 서로 떨어질수 없는 사이였다. 서로 이끌고 보충해주며 함께 있어야만 웃음이 있고 사는 보람을 느끼는 다정한 경쟁자들이었다...

이것은 상원군 장항리 다락발건설전투장에서 한 두시간동안에 목격한 일이다. 전투장에는 자동차, 트랙트르들이 무수하다.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있는지 어찌 다 알라. 기동예술훈동대가 노래를 부르는 채석장에서, 경쟁으로 들썩이는 돌쌓기장에서 그리고 속보원과 방송원이 북바디처럼 드나드는 모든곳에서!...

다락발건설에 펼쳐나선 사람들속에서 박동무는 극히 평범한 운전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물방울에도 하늘은 지평선까지 비칠수 있다.

다락발만들기운동-여기에서 다듬어 지고 새로와 지는것은 평만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지고있다. 또 생겨나는것은 새발만이 아니다. 새로운 성격,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결의...

나는 어느 봄날, 한마을에서 좁은 뜰안을 이리저리 돌아가며 호미로 땅을 호비작거리리는 아이를 본적이 있다. 그 애는 줄당콩 심을 구멍을 파고 있었다. 줄당콩이 구름까지라도 올려썬는듯 년출이 오르는데 지장없을 곳을 골라서 파다. 똑똑한 아이였다. 줄당콩농사는 하늘농사이니까. 그러니 그 애는 학자들이 무한하다고 확인한 하늘에서 새땅을 얻어내고있는셈이였었다. 손바닥만한 뜰안에서 그 애는 100 포기나 심을 자리를 찾아냈다. 찾는 사람에게는 생기는 법이다. ...

한가지 잊은것이 있다. 그때의 장항리는 겨울이였다는 묘사이다. 그런데 겨울풍경이라고 해야 할 모닥불도 없었고 솜동복을 입은 사람도 보기 어려웠다.

《날이 춥지 않았던게지.》

하고 말할수도 있다.

사실 그랬다. 조금도 춥지 않았다.

그러나 압축기와 불도젤운전수들은 얼어붙은 기관을 녹이느라고 때로는 두세시간씩 불을 피워야 했다. 기계에게만은 혹한이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더 말할게 없다. 기계에게는 고동치는 심장이 없었기때문이다!...

미래의 숨은 영웅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함경남도 퇴조군 삼호인민학교를 찾아서-

리준길

어떻게 되어 퇴조군 삼호인민학교를 찾게 되었는가 하는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두달전 일이었다. 현지체험을 마치고 귀로에 오른 나는 열차와 더불어 동해선을 달리고있었다.

차창밖으로는 시원스레 넓은 바다가 춤추듯 흘러져나갔다. 요란스러운 열차의 기적소리에 잠이 깬듯 바다는 이른새벽부터 설레었다. 놀란 갈매기들은 무리를 지어 먼 수평선쪽으로 너울너울 날아갔다.

오래간만에 보는 바다풍경에 한껏 취해버린 나는 곁에 앉았던 길손들이 바뀐것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야! 정말 훌륭하지요?》

이렇게 묻는 웬 녀성의 말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바로 나의 앞자리에 두 처녀가 앉아있었다.

《훌륭하다뿐이겠소. 바다란건 아무리 보아도 싫증을 모르지요.》

내가 열결에 이렇게 대답하자 별안간 두 처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자꾸만 웃었다. 무엇때문일까? 나는 영문을 알수 없어 혹시 얼굴에 무슨 점쟁이라도 묻지 않았는가 하여 손거울을 꺼내보고싶은 생각까지 일어날지경이었다.

나의 처지가 이쯤된것을 동정했던지 그중의 한 처녀가 재빨리 웃음을 거두며 미안한듯 사과를 했다. 그제서야 나는 그 물음이 나에게 준것이 아니라 자기 동무에게 건넨것이었고 또 바다와는 전혀 관계없는것이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알고보니 그들은 함흥시에 있는 인민학교 교원들인데 퇴조군 삼호인민학교에서 있는 도적인 방식상학에 참가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이 훌륭하다고 한것은 바로 퇴조군 삼호인민학교를 두고 한 말이었다.

《허, 그런걸 난 또...》

나는 허거픈 웃음을 짓고나서 무엇이 그리도 훌륭하던가고 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좀 수집어하는 기색이었으나 내가 글쓰는 사람이라는것을 짐작하자부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겨끔내기로 이야기를 해대는 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체제를 관철하는 길에서 그 학교 교원들은 정말이지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야기해드렸으면 좋겠는지...돌산우에 꾸러진 교재원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

나는 장쾌한 동해의 해돋이를 구경할것도 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교원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계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질적상대가 결정된다. 교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서만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직업적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빛내어나가기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사회주의교육체제관철에 모든 힘을 다 바치고있는 교원들의 숨은 노력을 엿볼수 있었다.

후에 삼호인민학교에 가보고서야 더 잘 알게 되었지만 사실 그 학교가 자리잡은 지대로 말하면 걸 흠충도 별반 없이 거의 전부가 암반으로 되어있다.

하기에 이런 돌산우에 교재원을 꾸릴것을 의논할 당시 몇몇 교원들속에서는 막연해하는 눈치도 없지 않았다. 학교를 벗어나 적당한 다른곳에 꾸리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의견을 쫓을수는 없었다. 학교를 벗어나면 그것은 벌써 교재원일수가 없는것이다.

이때 리순극교장이 말했다.

《동무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재원 하나 똑바로 꾸려놓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산림 및 원예독본>과목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돌산우에 흙을 올립시다!》

그리고는 먼저 삼을 둘러메고 학교로부터 퍼그나 떨어진 공지로 갔다.

교장이 나서자 모든 교원들이 따라나섰다.

교원들이 나서자 어린 학생들까지 나섰다.

이 사실은 곧 마을에 알려졌고 이튿날부터는 학부형들까지 떨쳐나섰다.

《이런 일쑤이야 우리 학부형들이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어서 들어가 교수준비나 하십시오.》

학부형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단 며칠사이에 산더미같이 많은 흙을 파올렸다. 삼호수산사

업소에서는 자동차들을 동원시켜 그 흙을 잠간사이에 실어 날랐다.

그리하여 이 《돌산》우에 두께 1미터가 넘는 흙층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꾸러지기 시작한 그 교재원에 지금은 숲이 우거졌습니다. 그 숲한 나무들을 키우기 위하여 바친 이 학교 교원들의 수고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아쉽게도 열차는 함흥역에 멎었다. 이야기를 더 듣지 못하는 것이 서운했으나 나는 그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마저 하지 못한 것이 자기들의 잘못이기도 한 것처럼 미안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언제든지 한번 그 학교에 찾아가보라고 나에게 부탁까지 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뒤의 이야기가 하도 궁금했던만큼 나는 그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

이 학교를 찾게 된 동기는 대체로 이러하다.

그때로부터 두달이 지난 오늘 나는 마침내 삼호역에서 열차를 내렸다. 석양무렵이었다. 노을빛을 받아안은 바다의 풍치는 자못 볼만한 것이었으나 그보다도 나의 생각은 이제 가닿게 될 학교에 쏠려있었다.

어떤 교원들을 만나게 될까? 그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들을 더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고 바다가를 따라 얼마쯤 걸느라니 나지막한 둔덕우에 우뚝 솟은 학교가 보였다. 바로 삼호인민학교였다. 처음 보는 학교였지만 두달전 열차안에서 들은 이야기탓인지 전혀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았고 2층으로 된 정갈한 교사는 마치 구면인듯 반가움을 자아낼 뿐이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학교는 비어있었다. 교원들은 모두 강연회에 가고 직일을 서는 한 녀교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남선숙교원이었다.

우리는 어둑기전에 교재원을 돌아보고싶은 마음을 금할수 없어 그와 함께 교원실을 나섰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운동장 한구석에 서있는 버드나무 한그루뿐이었다던 이 학교가 오늘은 무성한 숲속에 파묻혔다. 290여가지의 수중에 모두 1만 3천여그루! 하나의 작은 식물원을 방불케 하는 무성한 숲이 저녁노을을 받으며 가볍게 설레인다. 그것들이 《산림 및 원예독본》교과서의 장, 절 체계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심어져있다는 사실은 더우기 나를 놀라게 했다. 함흥의 녀교원들이 그렇듯 흥분해서 이야기할만도 한 그런 훌륭한 교재원이었다.

《이 나무 한그루 한그루마다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깃들어있답니다. 특히 우리 교장선생의 숨은 노력이 컸지요...》

선숙교원은 먼저 호두나무림을 가리켜보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리순극교장이 한 교원과 함께 강원도 세포군에 출장갔을 때의 일이다. 순극교장은 그

곳 도시경영사업소에 호두나무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찾아가보니 그것은 불과 30 그루뿐이어서 그곳 일꾼들도 이만저만 아끼는것이 아니었다.

순극교장은 늘 간수해가지고 다니는 《산림 및 원예독본》교과서를 그들에게 보이면서 호두나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가꾸어보시기까지 한 좋은 기름나무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아직 이 나무가 없다, 이 나무 한그루를 가져다 학생들에게 산 교육을 주면 멀지 않은 앞날에 수천수만의 호두나무가 생기지 않겠는가고 절절하게 이야기했다.

후대들을 위한 한 교육자의 지성에 감동된 그곳 일꾼들은 마침내 두그루의 호두나무를 떠주었을뿐 아니라 함흥까지 가는 자동차편을 알아가고 그것을 실어주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함흥까지 자동차를 타고온 그들은 거기서부터는 걸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날뛺기를 기다렸다가 이튿날 아침에 짐차편에 부칠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때 그런 마음은 한시바삐 그것을 교재원에 옮겨심고싶어 건디기 어려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짐차편에 부쳤다가 그 어떤 부주의로 하여 교육용으로 써야 할 귀중한 나무에 작은 흠집이라도 생길까보아 그것이 두렵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흥에서 100리나 되는 먼길을 그것도 홀몸이 아니라 나무를 지고 걸었다.

학교에 다달았을 때는 아침이었다. 아직 그 누구도 출근하기전이었다. 몹시 시장기가 났으나 순극교장은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무부터 심었다. 바로 그날밤이었다.

수직을 서다가 잠시 밖으로 나왔던 남선숙교원은 교재원한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어떤 인척기를 느끼고 걸음을 멈추었다. 다가가보니 그는 다름 아닌 리순극교장이었다. 나무를 지고 밤새껏 100리 길을 걸어오느라 피곤도 이만저만 아니련만 교원들의 권고에 못이겨 들어간줄로 알았던 그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나온것이다.

《교장선생님, 저희들이 아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선숙교원은 안타까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나무를 살리는데 자정때 물을 주면 좋다가에 잠간 나왔습니다.》

그때 순극교장이 한 말은 이렇듯 짧았으나 거기에는 후대들을 위한 그의 뜨거운 지성이 담겨있었다.

이러한 지성을 자양분으로 하여 호두나무는 키를 솟구고 아지를 펼쳤으며 오늘에 와서는 무성한숲을 이루었다...

우리는 포도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포도원도 사실 쉽게 꾸러진것이 아닙니까...》

선숙교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리순극교장이 통강군 애원고등중학교를 견학하고 돌아온것은 제작년 5 월말이었다. 다른 학교에 가보는 기회가 있을적마다 무엇이든 한두가지씩 꼭꼭 배워오는것을 습성화하고있는 순극교장은 이번에도 빈걸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애원고등중학교의 포도원을 락도로 그려가지고 왔다.

그는 돌아온 즉시로 협동농장 과수작업반을 찾아갔다.

《이제 포도나무를 심겠다구요?!》

그곳 작업반장과 기술지도원은 입을 딱 벌렸다. 벌써 꽃이 다 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포도나무를 살리겠느냐는것이다.

물론 순극교장자신도 포도나무를 심는 절기가 지났음을 결코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서는 그 좋은 일을 한해씩이나 뒤로 미룰수가 없었다.

《작업반장동무, 학생들에게 배워줄수 있는것을 앞당기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뒤로 미루기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식으로 일하면 교육테제관철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낼테니 녀려말라고 이야기했다.

작업반에서는 아니아니한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그의 열정을 믿고 마침내 90 여그루의 포도나무모를 내주었다.

며칠이 지나서 작업반장과 기술지도원은 궁금한 생각을 안고 일부러 학교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90 여그루의 포도나무가 하나같이 잎 하나 시들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었던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을 살리기 위하여 바친 교원들의 노력은 그 얼마나 컸으랴!

《놀라운 일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때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한그루도 죽이지 않고 살린 이 자체가 바로 교육이라고 봅니다.》

작업반장은 진정 감동어린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선숙교원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야속하게도 벌써 어둠이 깃을 내렸다. 하기는 1 만 3 천여그루의 나무들에 깃든 하많은 이야기를 다 들을수는 없을것이며 설사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여기서 다 옮길수는 더우기 없을것이다.

우리는 발길을 돌려세웠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정말 볼만합니다. 가지각색 꽃들이 피구, 록음이 우거지구, 열매가 무르익구...》

선숙교원은 내가 겨울철에 찾아온것을 무척 아쉬워하는 기색이었으나 나는 바로 그 꽃들과 록음과 열매들을 눈앞에 보는데만 족하다. 아니 그보다도 이 교재원에 바친 교원들의 숨은 노력으로 하여 더더욱 싱싱하게 자라날 우리의 꽃봉오리들, 한결 더 곱고 더 탐스럽게 피어날 미래의 꽃송이들이 나의 눈앞에 춤추듯 안겨왔다.

이윽고 검푸른 바다우로는 크고 둥근 보름달이

등실 솟아올랐다.

나는 마침내 강연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리순극교장을 만났다. 내가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그는 아직은 해놓은 일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교육테제관철에서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는데 불과 하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받아안은지 벌써 두해반이 되어오는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일을 좀 한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얼마전 숨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다음부터는 모두 생각들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우리 교원들모두가 숨은 영웅들처럼 살며 일한다면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지 않아 술한 숨은 영웅들이 태어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 6 차대회를 앞두고 학교의 교육수준을 한층 높일 결의들을 새롭게 다졌답니다. 미래의 숨은 영웅들을 키워내기 위해 숨은 영웅들처럼 살며 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원들의 열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교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모든 교원들이 자기들의 자질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해 앓으나 공부에 여념이 없다는것, 하여 얼마전에 있는 국가시험에서 모두가 최우등, 우등의 성적을 쟁취하였다는것과 군적으로 진행된 문답식학습경연에서 1 등을 한 사실을 나에게 들려주는것이였다.

잠시후 나는 그의 안내를 받으면서 학교를 돌아 보기 시작했다. 학교의 교육적환경과 물질적토대는 참으로 훌륭했다. 《김일성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을 비롯하여 소년단실, 수학학습실, 산림및 원예학습실, 자연실, 도화공작실, 글짓기 및 글씨 학습실, 음악무용 및 영화보급실, 도서실, 체육기재실 등이 그뿐하게 꾸려져있었으며 그밖에 분과별로 되는 직관물실이 네방이나 되였다. 복도에 걸린 직관물들도 나무랄데없이 좋았다.

더우기 나를 놀라게 한것은 이 학교에 직관물과 실험기구들이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이 많다는 것과 그것들이 하나같이 교육적가치가 있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하기에 자연실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나는 어떤 방에 있다는 느낌보다도 신비로운 대자연속에 들어왔는듯한감을 느끼였다. 여러가지 동식물표본들과 땅과 물, 공기, 땅속자원들, 천체와 전기 등 모든 자연현상들을 한눈에 굽어볼수 있었다. 자연을 정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원리들을 쉽게 파악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갖가지 실험기구들과 모형들은 어찌나 정교하고 알뜰하던지 만져보지 않고는 그저 지나치기가 아쉬우였다. 모든것이 또한 자동화되어있어서 단추만 쳐 누르면 자동차, 기차, 배들이 달리고 비행기가 날았으며 실험기구들이 저절로 동작했다. 인민학교 자연과목에 바다에 대한것

은 없으나 바다를 끼고있는 지역적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는 여러가지 고기배들과 어구들의 모형이며 갖가지 물고기들과 해초들의 표본까지 빠짐없이 갖추어놓았다.

리순극교장의 말에 의하면 세해전까지만 해도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위한 학교의 물질적토대는 그리 튼튼치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 교육체제를 받아안은 뒤부터 교원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모든 교수내용을 인민학교 학생들의 인식활동의 특성에 맞게 직관화하며 그 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매 교원들에게 제목별로 되는 연구과제를 주었다. 수시로 연구토론회도 가지었다. 어느 한 교원이 새로운 직관물도 안을 만들어내놓으면 모두가 달라붙어 자기들의 지혜를 보태었다. 그리하여 교육적가치가 있는 실험기구들과 직관물들이 한점 또 한점 태어나기 시작했다.

하여 오늘에 와서는 574종에 모두 2만 4200점!

그 하나하나의 직관물들에도 교재원의 나무들에 깃든것과 같은 그러한 숨은 노력이 수없이 깃들었을것이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 6차대회를 앞두고 학교의 교육수준을 한계단 더 높일 새로운 전투목표를 세웠다니 이제 이들이 바쳐갈 숨은 노력은 또 얼마나 클것인가!

노력은 언제든지 열매를 맺는법이다.

오늘 이 학교 학생들이 굳적인 학과경연에서 매번 10점최우등을 하여 언제나 1등의 자리를 놓지 않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닐것이다.

이러한 미더운 교원들의 숨은 노력에 떠받들려 우리의 후대들은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더욱 믿음직하게 자라날것이며 오로지 알아 그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큰일을 할 숨은 영웅들이 나올것이라는것은 나는 확고히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밤은 어느덧 깊어갔다.

나는 래일 더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순극교장과 함께 학교를 나섰다.

밤하늘에는 못별들이 총총했다.

작가결의

혁명임무에 대한 생각

김우협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 이름을 알수 없던 사람들이 숨은 영웅으로 이 땅에 널리 알려져 지금 온 나라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설레이고있다.

백설희, 김상련, 박영철, 장재산동무들이 당과 인민을 위해 바친 그 귀중한 노력은 시인인 나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흔히 사람들은 당과 혁명에 바치는 참된 삶을 두고 여러가지로 이야기하고있다. 나 역시 그런 사람들중의 한 사람이였다.

그러나 나는 《로동신문》에 실린 숨은 영웅들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참된 삶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그 고귀한 정신, 그 누가 보든 말든,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기의 신념으로 된 당과 혁명임무에 대한 그 충실성은 나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입니다. 그러므로 혁명가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 붙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를 생활과 투쟁의 신조로 삼고 실천활동에 옮긴 사람들이 숨은 영웅들인것이다.

지금 나의 머리속에는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자, 숨은 영웅들에 대한 가지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떠오른다.

한 숨은 영웅은 자기의 일기장 첫머리에 《땅과 종자+정열》이라고 썼다.

이 단순하면서도 뜻있는 생활철학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것을 이야기해주고있는가.

거기엔 그 어떤 말로도 다할수 없는 혁명임무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끝없는 충실성이 깃들어있는것이다.

나는 원고지를 펼칠 때마다 그 숨은 영웅이 쓴 일기의 첫장도 함께 펼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좋은 종자를 잡고 좋은 시를 쓸 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현실속에서 훌륭한 종자를 골라 거기에 열정을 합쳐 성과작을 내놓겠다.

갈매기

황영도

그날아침 선희네 집은 명절날 기분에 싸이었다. 막내딸이란 언제나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자라게 되는지...

선희는 벌써 스물다섯살에 잡히었지만 부모들은 아직도 그를 유치원에 다니던 때처럼 옷가지며 음식구미에 마음썼고 선희의 일신상에서 벌어지는 자그마한 일에도 온 집안이 관심을 돌리며 서성거리곤했었다. 선희는 그럴 때마다 즐겁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눈빛으로 아버지의 얼굴부터 쳐다 보곤했었다.

그러나 선희는 오늘아침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관심돌릴 사이가 없는듯 책상앞에 앉아 무엇을 그리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면서 얼굴조차 들지 않았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분주히 나들며 기름내를 풍기고 풀먹인 앞치마에 입으로 물을 추기며 다림질을 하고있는것도, 할머니가 닭알지집을 부치면서 머느리가 파를 너무 크게 썰었다고 혼자소리로 나무리는 말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마도 할머니는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먹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것을 은근히 밝히고싶었던 모양이다.

인민학교 교장인 선희의 아버지만은 거울앞에서 턱수염을 밀며 수북이 쌓아놓은 종이장들을 마주하고있는 막내딸의 모습을 넋지시 넘겨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음식상에 나왔던 아침밥을 같이 먹을 때에는 어느 양어공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선희는 입맛이 당기지 않았던지 몇술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의아하게 바라보는것도 느끼지 못한듯 서두르며 집을 나섰다.

신선한 아침이었다. 멀리 산봉우리들을 감췄던 젖빛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눈부신 아침해빛이 강변의 탑식아파트들이며 철다리며 길나무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는데 방직공장으로 뻗은 포장길에는 갖가지 꽃무늬가 돋친 달린옷을 산뜻하게 입은 처녀들이 웃고 떠들며 무리지어 걸어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낯선 처녀들이 가끔 눈에 띄었다. 새 고장에 처음 온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 처녀들은 명롱한 빛을 뿜으며 조용히 흐르는 강변이며 구름발을 휘감고 높이 솟은 첩탑이며 아름답리 가로수들에 눈을 팔며 틀지게 천천히 걸었다. 선희에게는 그들이 류달리 어른스러워보였고 옷차림도 자기네 공장 처녀들보다 더 품위

있게 느껴지었다.

서북지구 직포경기대회에 참가하려고 온 처녀들이었다. 오늘부터 수많은 방직공장들에서 뽑혀온 우수한 직포기능공들의 생산경기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선희네 방직공장에서도 열사람이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크게 기대를 거는것이 선희였다. 선희가 오늘아침 흥분된 심정을 목새기지 못하고 서두른것도 그때문인지 올랐다.

공장에서는 선희에게 기대를 걸만도 했다. 다기대공으로서 이미 달포전에 제 2차 7개년계획의 6년분과제를 해낸 선희였다. 대당 천생산실적에서나 직기의 멈춤시간을 줄이는데서 선희를 따를 직포공이 없었다. 빨간 머리수건에 하얀 앞치마를 차려입고 직기사이를 누벼나갈 때면 아닌게아니라 정말 푸른 바다우를 날아에는 갈매기를 편상시켰었다.

선희가 공장정문앞 언덕길에 올라섰을 때였다. 공장구내안에서는 벌써 《모두다 속도전 앞으로!》라고 쓴 구호를 허리에 두른 선전차가 경기참가자들을 환영하는 방송을 하고있었다. 어느 영화에 선가 주제곡으로 나오는 행진곡조의 맑은 선율이 출근길에 오른 처녀들의 발걸음을 다그치게 했다.

선희는 누구인가 자기를 부르는것 같아 등뒤로 고개를 돌렸다. 낯모르는 처녀들의 앞으로 팔소매가 긴 흰사쓰를 입고 윤기나는 밤색의혁구두를 신은 한 청년이 선희옆으로 성큼성큼 다가섰다. 운전공 최광호였다. 명석한 두뇌와 직기수리작업에서 막히는데가 없는것으로 하여 직포공들의 존경을 받고있는 청년이었다. 직포공들은 광호가 자기의 기대들을 맡아주었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광호는 선희와 가지런히 서서 걷게 되자 걸음을 짧게 내디디었다. 그는 선희에게 무슨 말인가 먼저 하려고 하는것 같았으나 입은 열지 않았다. 선희가 경솔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으며 필요없는 군말은 더욱 싫어한다는것을 알고있는 광호였다.

선희의 생활에서 역시 가장 의의있고 빛나는 나날로 기록될지도 모르는 직포경기를 앞두었다는 생각이 광호를 더욱 심중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한동안 말없이 걸던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광호동무, 동문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될것 같어요? 전 이런 경기에

처음 참가하는게 아니에요?...》

광호는 선희한테서 이런 물음을 듣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눈시울을 치프기까지 했다. 그러나 다음순간 선희가 지금 경기를 앞두고 긴장된 마음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끼자 얼굴빛을 달리하였다.

《힘들게요. 1등을 하기엔...》

광호는 선희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그는 다른 공장에서 온 직포공들의 숙련된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20 년이상의 경험을 쌓은 오랜 직포공들이 많이 왔다는데 대해서 이미 알아낸 경기참가자들의 장점들에 자기의 속생각까지 덧붙여 말했다.

《그래요?! 모두 나이가 젊어보이던데요...》

선희는 저도모르게 놀라면서 언뜻 광호를 바라보았다.

《삼포방직에서 온 한 직포공은 마흔다섯에 난답니다. 열일곱살에 직기앞에 섰는데... 씨실이 끊어지는 소리까지 가려듣는다고 합니다.》

광호는 선희가 자기 말에 공감하는것이 더 흡족했던지 흥이 나서 계속했다.

《씨실이 끊어지는 소리라니요? 그게 정말이에요?!》 선희는 광호의 말을 못미더워하면서도 기가 꺾인 음성으로 되물었다. 그러나 몇걸음 걸어가던 그는 마음을 다잡은듯 광호의 곁으로 바투 다가섰다.

《그런데 내가 그 직포공들을 다 떨궈놓고 앞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1등을 한다면?... 내 성을 갈던지...》

광호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그러나 선희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다. 그럴만한 마음의 여유가 선희에게 정말 없었다. 광호의 말이 아니라도 선희는 이번 경기에 참가하는 직포공들이 자기보다 모두 우수한 사람들과라고 믿고있었다.

《걱정 마오.》광호는 방금전과는 달리 선희에게 고장난 직기의 수리법을 대줄 때처럼 자랑겨운 표정을 지었다.

《어제밤 종합분과에 들렀었는데 내 이름이 5 조에 들어있더라말입니다....》

《그래요?! 정말 똑똑히 봤어요?》

《벌써 그렇게 다 짜놓았더군요...》

광호는 태연스럽게 말했다. 그는 자기가 선희네 조의 기대를 말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한데 대해서는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 때문에 선희로서는 자기가 은근히 바라던 일이 절로 이루어진줄 알고 흐뭇해질수밖에 없었다.

한편 광호는 자존심이 강한 선희가 그렇게 조가 짜진것을 달가와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것인데 뜻밖에도 선희의 눈빛이 빛나는것으로 하여 은근히 즐거운 기분에 젖어들었다.

《어쨌든 선희동문 1 등을 해야 하오. 이것이 내 개인의 생각이라고만 여기지 마오. 동무자신이 온 공장의 기대를 두어깨에 걸머지구있다는 영예를 순간두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의 말에는 이번의 직포경기가 단순한 생산 경기로 되어서는 안되며 선희가 지금까지 창조한 기록보다 더 높은 새 기록을 꼭 창조해야 한다는 절절한 부탁이 어려있었다.

오늘아침 선희의 가슴도 실은 그때문에 더욱 높뛰었다. 그때문에 새로운 직기순회방법을 종이상에 수없이 그려보고 또 그려보며 책상앞에서 새날을 맞았었다.

공장정문안에 들어서며 마주 바라보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치교시판에서 눈길을 멈춘 선희의 눈앞에는 감격도 새로운 그날의 일이 삼삼히 그려지는것이였다.

여섯해전, 중학교를 마치고 희망도 크게 공장에 들어선 선희네들은 바로 여기서 선배언니들로부터 아버지수령님께서 며칠전에 공장을 찾아주신 이야기를 들었던것이다.

자나깨나 뵈옵고싶던 아버지수령님을 자기들의 기대들앞에서 만나뵈옵게 되는 순간 언니네들은 너무도 큰 감격에 북받쳐 인사말도 변변히 드리지 못했었다. 나이 몇살이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가 하나하나 다정히 물어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언니네 할머니들이 시집을 때 그전부터 입고있던 삼베치마를 기워입고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안색을 흐리시였다지 않는가. 나라 없던 지난날 입을것을 못입고 살아온 우리의 부모들에게 질 좋은 천을 더 많이 짜서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로 랑불을 적셨다는 언니네들, 더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않는가.

《앞으로 일들을 더 잘해서 꼭 다시 만납시다.》

이리하여 자기자신도 역시 꼭 언니들과 함께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왔으며, 앞으로도 일을 잘하여 꼭 수령님을 만나뵈울것만 같은 심정으로 하루와 같이 일해오는 선희였다.

그때로부터 여섯해, 선희는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새로운 기대순회법을 머리속에 그려보았고 실이기숙련을 쌓았다.

그는 하루일을 끝내고는 실 1,000 오리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이어보곤했는데 선희의 할머니는 손녀가 매일 저녁실을 잇는것을 바라보게 되자 어느하루는 돋보기를 끼고 선희앞에 다가앉으며 자기가 좀 도와주겠노라고 하였다.

《할머니, 이 실은 제가 다 이어야 해요. 돕지 않아도 돼요.》

선희는 자기가 직장에서 일감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내가 이어놓은 실을 늘어놓으면 삼천리를 감고 돌아와도 남을게다...》

이렇게 직심스럽게 실잇기숙련을 쌓은 보람으로 선희는 누구보다 먼저 다기대공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그러나 선희는 자기가 하고있는 일에 만족을 느낄수 없었다. 천짜는 미립이 트이면 트일수록 직기들이 벗어나는 시간을 더욱 줄이고싶었다. 어떤 때에는 1, 2 분이면 간단히 고칠수 있는 순간 고장도 운전공을 기다리느라고 20 분, 30 분을 흘러 보내곤했었다.

선희는 어느날 광호를 찾아갔었다.

《저 좀 부탁할게 있어서...》

《무슨 부탁이기에... 힘든 부탁이요?》

《네... 좀...》

《값을 단단히 받아내도 좋겠소?》

《좋도록 하세요. 직기 순간고장퇴치법만 다 배워준다면...》

이렇게 되어 선희는 다기대운동을 벌리면서 운전공이 하여야 할 직기고장퇴치법까지 하나하나 익혀나갔다.

그러는 사이에 광호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와 가까워지게 되었다.

직포경기를 앞두고 광호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걷는 선희의 가슴은 더욱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집에서도 공장에서도 모두 자기에 대한 기대가 류달리 크며 이 경기에서 자기가 꼭 1등을 할것을 바라고있었다.

(어쨌든 이겨야지... 광호동무의 말이 옳아. 나는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란 새세대 직포공이 아닌가...)

직포종합직장에 들어선 선희는 문득 세면기생각이 떠올랐다.

광호에게서 직기수리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선희는 세면기에 물을 떠다놓고 일하는데 습관되었었다.

기계부속을 만지던 손으로 실을 이을수는 없었던것이다.

선희가 하룻밤 비닐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써붙인 직기앞으로 다가올 때였다. 낯선 한 직포공이 얼굴에 상냥스러운 웃음을 담고 다가왔다.

《랑선희라구 하지요? 내 이름은 강진옥이라구 해요. 삼포방직에서 왔어요. 알구 지내자요...》

그 얼굴을 바라보던 선희는 바로 이 직포공이 씨실이 끊어지는 소리도 가늠한다는 20여년의 경험을 쌓은 여자라는것을 인차 알아보았다. 균형이 잡힌 자그마한 몸매에 윤기흐르는 머리칼이며 정기있게 빛을 뿜는 두눈을 얼핏 보면 아직도 20대의 나이를 넘지 못한 여자같이 보였으나 실주

름이 건너간 이마살은 그 여자가 이미 40이 넘는 여자라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처녀에게 무뎠없이 말을 건네며 선배다운 너그레움과 자기자신의 기능을 숨기려 하지 않는 도고한 음성에서 선희는 그 어떤 위압감을 느끼었다.

(경기에서 이길 자신이 만만한게로구나...)

《그런데 이 물은 무엇에 쓸려구 해요?》

선희는 진옥이의 인중에 난 기미를 다시 언뜻 쳐다보고나서 천을 짜다가 손에 땀이 나든가 어지러워지면 씻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래요?! 참 좋은 생각이군요.》

진옥이의 두눈에 갑자기 떠오른 놀라는 빛을 보면서 선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여자의 어쩔수 없는 공감과 함께 그런 발기를 선손을 써서 하지 못한데서 오는 아쉬운 기색까지 엿보는데싶었다.

《그 생각은 참 훌륭해요. 전 아직 경기에 참가하면서 그런것까지는 미처 생각못했는데...》

보매 진옥은 자기의 숙련된 직포기능을 자부하면서도 상대방의 장점을 평가하는데도 린색한 여자같지는 않았다.

《다기대명수라더니 다르긴 다른데요...》

진옥은 경기시작예비종이 울리자 앞으로 서로 좋은 경험을 나누자고 상냥하게 말하며 다가오던 때처럼 날렵한 걸음걸이로 자기 기대쪽으로 향했다. 선희는 직기를 에돌아 가벼운 툄동으로 걸어가는, 기미가 있는 직포공의 뒤모습을 지켜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후 선희는 어설피져오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지난밤 어머니가 새로 지어준 하얀 천신발을 신고 어깨다리가 있는 앞치마에 팔소매를 꿰다.

직포경기를 한다고 해서 직포현장에 류다른 변화가 있는것은 아니었다. 경기라고 하지만 어느때처럼 기술규정대로 기대인계인수가 있었고 작업준비를 하여야 했다. 다른것이 있다면 높다란 천정밑에 《직포경기에 참가한 직포공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가로쓴 붉은 글발이 나붙어있었고 직포공들의 앞치마 가슴에 번호를 붙이였을따름이었다.

정각 8 시, 눈길에 모자라게 줄지어 늘어선 수백대의 직기들에서 거의 같은 순간에 기관총의 련발사격소리를 련상시키는 금속성이 울렸다. 그것은 복침편이 복을 때리는 소리였다. 힘있고 박력있게 울리는 그 동음은 다른 모든 음향을 삼켜버렸다. 마치도 직포현장에서는 오직 하나의 음향, 복소리만이 울려야 한다는것처럼...

직포공들은 그 경쾌하게 끝없이 반복되는 음향의 선들에 몸을 맡긴듯 기대사이를 누벼나갔다. 어떤 직포공들은 나는듯이 뛰어다니는가 하면 어떤 직포공들은 발끝으로 사뿐사뿐 걸으면서 어깨

를 좌우로 몹시 흔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직포공들은 허리를 약간 굽힐사하고 고개만 랑쪽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직포공마다 손놀림이며 걸음걸이의 룰동이 각이했고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곡선미와 절제있는 동작이 어울려지는 직포경기장이었다. 선희는 처음부터 인중에 기미가 있는 직포공의 기대쪽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했지만 저도모르게 그쪽으로 자주 눈길이 향해지는것을 어쩔수 없는 선희였다. 선희는 지기가 것처럼 익히고 익혀온 그 모든 하나하나의 동작들이 그 인중에 기미가 있는 직포공의 거침새 없고 자연스러운 동작과는 대비할수도 없이 설익은것 같이 생각되었다. 진옥이앞에서는 직기들이 그의 말없는 룰동에 순순히 복종하는것만 같았다. 직포공이 끊어진 날실을 찾아다니는것이 아니라 기대들이 진옥이가 다가오면 《바디실을 꿰주시오.》하고 주인을 기다리고있었던듯 모든것을 내맡기는것 같이 여겨졌다.

선희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여준것은 광호였다. 그는 자기가 담당한 직포공들의 기대들을 돌아보면서 선희와 마주서게 되면 눈웃음을 지어보이든가 고개를 끄덕이군했다. 그 눈빛이며 얼굴표정은 《신심을 가지시오. 진옥이의 직포기능이 아무리 세련되었다 해도 동무를 따를수 없소. 안심하오.》하고 고무해주는것 같았다. 선희는 말없는 광호의 고무를 믿었고 더욱 분발하였다. 그는 진옥이쪽을 더는 보지 않았다...

경기가 시작되어 5일째 되는 날 아침 직포종합직장의 중앙복도에는 《대당실적에서 새 기록 돌파!》라는 속보가 나붙었다. 그앞에 모여선 처녀들이 두손을 모아쥐며 기쁨을 금치못해했다.

《...난 선희언니가 경기에서 새 기록을 세우리라구 생각했어. 이제 두구 봐, 더 높은 기록을 내지 않나... 지금까지야 우리 공장에 선희언니와 견줄 경쟁자가 어디 있었니?》

《참 그렇기두 해... 그런데 언니네 어머니는 언니한테 천신발을 밤새워 지어주었다더구나... 빨간 실로 수까지 놓구... 난 보지 못했니?》

《할머니는 매일아침 닭알지집을 지진대... 호호...》

모두 선희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그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모두들 응당 일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들 왔기때문이다.

했으나 선희자신은 조금도 마음을 놓을수 없어 하였다. 자기의 뒤를 바짝 따라서는 우수한 직포공들의 숨결소리를 등뒤로 듣기때문만이 아닌것 같았다. 진옥이는 선희보다 대당실적이 한대이상이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실망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첫날경기부터 선희처럼 세면기에 깨끗한 물을 떠다놓고 손이 더러워질 세라 씻고는 실을 이었고 처음 만나던 때처럼 의

젓하게 고개를 든채 이야기를 했다. 선희는 진옥이가 자기네 공장 직기들보다 더 마음에 든다고 웃으며 말할 때에는 고개를 떨구기까지 했다.

《선흰 새발톱매듭으로 실을 잇는것 같은데... 단추매듭이 더 간단하구 빠르지 않아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동작이 없어두 되니까...》

선희는 진옥이가 그 면에서 언제 자기의 실잇는 손놀림까지 가늠했는지 놀랍기만 했다.

《그러나 난 선희가 꼭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야...》

진옥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선희의 방법을 무시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선희는 진옥이의 말을 고맙게 받아들일수밖에 없었다.

《그리구 이 직기는 <ㄷ>형순회방법이 적합치 않은것 같구나...》

《그래요. 언니... 저두 처음에는 그 방법을 해보았는데 10대이상 말아볼 때에는 불합리해요.》

《그러니 넌 벌써 다 해보았구나...》

《그래요.》

선희는 저도모르게 대답하면서 얼굴을 붉히었다. 벌써 진옥이에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줄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진옥이와 헤어져 다시 오후경기에 들어선 선희의 머리속에는 방금전과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것쯤이야 무슨 경험으로 되겠다구. ...일반화할것두 못되는걸 말하지 않길 잘했지...)

선희는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위안했으며 지금까지 몸에 밴 순회동작대로, 말하자면 푸른 바다우를 날아에는 갈매기처럼 두팔을 엇비스듬히 벌려 손바닥으로 두 기대의 천필을 가볍게 스치면서 날렵하게 기대사이를 누버나갔다.

그때 나사틀개를 들고 마주 다가오던 광호가 손을 들어 자기의 눈을 가리키었다. 주위를 집중하라는 일깨움이였다.

(공연한 걱정두...)

이런 생각에 가벼운 걸음으로 광호와 어기고 지나려는데 앞의 직기가 갑자기 멎었다. 선희는 한발 내디디려던 발걸음을 문득 멈추고 급히 운전공을 부르는 푸른 신호대를 올리면서 광호를 불렀다. 직기소리에 자기의 목소리를 인차 가려듣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광호는 용케도 선희의 음성성이 울리기 바쁘게 몸을 획 돌리였다.

바로 그 순간, 선희의 가슴은 느닷없이 툭툭 뛴뛴했다. 광호가 걸어가던 그쪽에 이미 운전공을 부르는 푸른 신호대가 오른 직기가 눈앞에 확 안겨지였다. 선희는 자기가 혹시 노란색을 푸른색으로 잘못보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금 눈여겨 찬찬히 살펴보았다. 푸른색이 틀림없었다.

선희는 못볼것을 보거나 한듯 인차 고개를 돌렸다. 광호가 그 직기에 먼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속에서 번개쳤으나 이미 그것은 돌이킬수 없

었다. 선희는 자기의 등뒤로 진옥이의 시선이 계속 쫓리고있는것 같이 느껴져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광호는 선희가 신호대를 올린 직기에 달려오자 복집안에서 팔랭이를 꺼내고 복털을 갈아끼우더니 제격 나사를 조이였다. 정말 숨쉴수있었다. 광호는 선희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내에 밋었던 직기를 되살려냈다. 그러나 선희에게는 그 시간이 하루맛잡이로 길게 느껴졌다.

광호가 방금 선희의 직기를 수리하고났을 때였다. 복도 출입문쪽에서 붉은넥타이를 맨 인민학교 학생들이 복과 팽과리를 치며 들어섰다.

《직포경기에 참가한 직포공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켜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라!》

오색기발들과 구호들을 든 학생들이 꽃뭉음을 흔들며 직기사이로 지나갔다.

직포경기장은 소년예술선전대의 출현으로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런데 학생들의 대렬뒤로 뜻밖에 안경을 낀 선희의 아버지가 따라오고있지 않는가. 몇몇 녀생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다가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선희의 눈빛이 밝게 빛났다. 고장인 아버지로서는 담임교원들을 시켜서 선전대를 인솔하게 하면 되련만 직접 학생들과 함께 나온 것이였다. 선희에게는 이 직포경기에 대한 아버지의 각별한 관심이 헤아려졌고 경기가 시작되던 날 아침 양어공에 대한 말을 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려왔다. 그러나 아무리 되새기려고 해도 그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하필이면 양어공에 대한 말을 했는지 가슴이 안갔다.

녀교원들과 함께 걸어가던 아버지는 선희의 인사를 고개짓으로 받으며 얼굴에 웃음을 담고 지나갔다.

선희가 자기 말은 직기들을 한돌기 돌아왔을 때였다. 지나갔으리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뜻밖에도 선희의 직기옆에 놓여있는 세면기를 허리를 약간 굽히고 한동안 유심히 들여다보는것이였다.

바로 진옥이가 《참 좋은 생각을 했군요.》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 세면기였다. 선희에게는 아버지가 모처럼 물을 떠다놓고도 온전히 리용할 생각을 않는다고 나무람을 한것 같이만 여겨졌다. 그래서 소년예술선전대가 경기장을 떠난 후에도 선희는 세면기앞에 섰던 아버지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그날저녁 선희는 공장뜨락 꽃밭속에 놓인 긴의자우에 점도록 앉아있었다. 하루 일을 끝내고는 늘 동무들과 모여앉아 웃고 떠들며 기쁨을 속삭이던 꽃밭이였다. 하나 지금은 금련화와 삼색제비꽃의 진한 향기도 선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

못했다. 무엇인가 야속하고 참을수 없는 피로움이 그의 가슴을 저미는것이였다.

오늘이야말로 선희로서는 현혹할만큼 높은 기록을 세운 날이였다. 하루의 생산실적을 종합하는 기록공들이 기대마다 돌아다니며 대당실적을 수첩에 적을 때 경기에 참가한 직포공들은 선희의 손목을 잡아흔들며 축하했고 부러움을 금치 못해했었다.

그랬음에도 어째선지 진작부터 자신에 대해 언짢은 생각이 들었던 선희는 진옥이가 다가와 《오늘 기록은 정말 대단해.》하고 부드럽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엔 얼굴이 더욱 화끈 달아올랐다. 선희는 진옥이가 푸른 신호대에 대한 말을 먼저 꺼낼 줄 알았다. 그러나 진옥은 선배다운 너그러움을 얼굴에 담고 선희에게는 아직 그 어느 직포공도 따르지 못할 직포기능을 소유하고있다고 꾸밈없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희가 손바닥으로 천필을 스치면서 순회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고 상냥한 웃음을 띠우며 물었다.

그때까지 그런 방법이 진옥이의 관심을 크게 끌게 되리라고 생각못했던 선희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몇마디로 간단히 설명했다.

《좀더 자세히... 그러니 천에 생긴 흠두 제격 알아내게 되겠구나, 두손바닥의 동작이 눈을 대신한다구? ... 알만해... 알만하다구...》

광호가 기름 묻은 손을 씻으려 세면기쪽으로 다가왔기때문에 선희는 잠시 말을 그치였다.

《응 그렇구나... 그래서 선힐보구 갈매기, 갈매기했구나. 그건 정말 손색이 없는 갈매기순회방법이다. 갈매기, 새로와!...》

진옥은 예지로운 눈을 빛내이며 환성조로 말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희의 마음은 지금 무겁기만 했다. (진옥이는 왜 푸른 신호대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을가...)

이때 선희의 발바리에 긴 그림자가 어리더니 광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축하합니다, 선희동무!》

광호는 정말 만족해하였다.

《선희동무, 동무의 아버지가 여기 없는게 유감이군요.》

광호는 경기장을 떠나면서 선희의 아버지가 무엇때문이었는지 얼굴을 흐리였던 일이 떠올랐지만 그런 이야기를 선희앞에서 하고싶지는 않은 모양이였다. 광호는 지금 선희가 직기옆에 물을 떠다 놓은 세면기때문에 피로와하고있는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있었다.

《진옥이라는 직포공은 나이가 어지간하면서도 승벽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광호는 선희의 옆에 앉으며 이런 말까지 하였다.

《선희동무가 오늘 세운 기록이 속보에 나붙자 얼굴빛이 달라지는게 아니겠소…》

《아니예요!》

선희는 광호의 말을 중증무이하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예요! 진옥언니는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경기에 참가한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말하진 마세요…》

광호는 열오른 선희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자기의 굳어지기 시작하는 얼굴표정을 선희가 알아보는것 같아 당황해하였다. 그 어느때인가 선희와 처음으로 사귀게 되던 때 광호는 《선희동무의 장점은 정확하고 예지로운것이라구 할수 있을거요.》라고 말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광호는 그런 말을 선희에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것을 인차 느끼게 되었다. 자기의 말을 좋게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했던 광호는 찌르는듯한 선희의 눈길을 의아하게 바라보며 급기야 얼굴을 붉히고야말았었다. …

그후부터 광호는 선희에게서 받아안게 되는 데 바르면서도 순진한 행동에 대해서 경솔하게 속생각을 내비치지 않았고 필요없는 롱말도 주저하게 되었다.

《오늘 저와 광호동문 량심없이… 땀땀치 못했어요…》

《…?!》

광호의 붉어진 눈시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물론 제 잘못이 더 많아요.》

선희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푸른 신호대에 대한 말을 꺼냈다.

《이건 결코 간단히 생각할수 없는 문제예요… 오늘 세운 기록은…》

선희의 음성은 동강이 나기 시작했다.

《뭘 그런것 가지구 그렇게 심각해하오. 허 참 그런 일때문에 날 만나자구 했다면…》

광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느사이언가 벌써 공장변두리의 백양나무그림자들이 프락을 메워버리고 울타리를 기어넘고있었다.

《광호동무!》

선희는 자리를 뜨려고 하는 광호를 다시 의자에 앉히었다.

《동문 아직도… 전 지금 광호동무가 저의 직기들을 맡게 된것을 후회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 생각 못했어요. 우린 량심이 없이… 원칙 두 없이… 깨끗한 심정으로 경기를 못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것처럼 왜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오… 그리구 난 다른 기대에 오른 푸른 신호대를 보지 못했소…》

광호는 선희의 말을 시답지 않게 여긴다는듯

래연하게 말했다. 오히려 그는 진옥이의 기대에 오른 푸른 신호대를 먼저 보았다고 생각하고있는 선희가 못마땅스럽게만 했다. 광호는 정말 진옥이의 기대에 오른 푸른 신호대를 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먼저 보았다고 하자, 그렇다고 가까운 기대의 고장을 먼저 좀 고쳐주었던들 무슨 큰 잘못이 있단말인가…

《광호동무! 전 물론 동무의 말을 믿을수 있어요. 광호동문 못볼수도 있었을거예요. 그런데 왜 응당 먼저 보아야 할것을 저보다 먼저 보지 못했을까요?》

광호는 더 할말이 없었다. 선희의 말이 옳다면 자기는 진옥이의 직기들에 대한 관심보다 선희의 기대들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수가 없었다.

광호는 신호대에 대한 말을 더 하고싶은 생각이 없는듯 다시 의자에서 일어섰다.

《어쨌든 선희동문… 이 경기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는걸 잊지 마시오. 모든 사람들이… 동무의 아버지까지도 이 경기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광호는 꽃발사이로 난 길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선희는 광호가 자기의 심정을 리해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선희는 광호가 공장고등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시간이 없어 찢찢 매면서도 자기에게 운전공의 기술을 배워주려고 애쓰던 그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소중히 간직하고있었다. 그리고 광호가 자기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주려고 있는 힘과 재능을 다 바쳐왔다는것도 알고있었다.

200여가지가 넘는다는 직기의 순간고장이 생기는 원인을 광호는 도면을 하나하나 그려가며 설명해주었고 직기를 분해해놓고는 밤깊도록 그 조립법을 익혀주었다. 선희가 40 대공으로 자라나기까지 광호의 숨은 노력도 한몫 단단히 있다고 말할수 있었다.

《선희동무가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게 될때 저의 노력도 헛되지 않았다는것을 느끼게 되겠지요…》

어느날밤 광호는 이렇게 말하며 선희가 앞으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될 날을 눈앞에 그려보았던것이었다.

하다면 정말 어떻게 일해야 한단말인가. 경기에 참가한 내가 할수 있으면서 아직 하지 못하고있는것이 무엇인가?…

이튿날부터 선희는 광호가 될수록 자기의 기대를 멀리서 바라보며 다른 직조공들의 기대쪽에 더 자주 가있는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선희의 기대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도 눈길이 마주치면 인차 돌아서는것을 보았다. 광호도 괴로와하고있으며 자기에 대해서 고까와하고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자 선희는 지난밤 너무 지나친 말을 하지 않았

는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경기를 마무리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직포공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직포현장에서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안겨지었다.

진옥이의 천생산실적은 시간이 다르게 선희의 실적을 바짝 따라왔다. 이따금 기대를 돌다가 선희와의 거리가 가까와져 어길 때에는 뜻있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처음에는 선희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인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진옥이가 두팔을 엇비스듬히 내려드리우고 손바닥으로 천발을 가볍게 스치면서 직기사이를 누벼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갈매기순회방법의 경험을 넘겨준 자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옥이뿐이 아니었다. 다른 조에 속한 직포공들도 선희의 순회방법을 받아들여 익혀나가고 있었다. 선희의 실적보다 50 메터, 30 메터이상 떨어졌던 수많은 직포공들이 모두 선희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실적의 차이는 점점 더 좁아져 2.1 메터 1, 8 메터 차이를 두게 되었다.

광호는 선희앞으로 다가오면서도 그전처럼 손을 들어 눈을 가리키거나 고개짓을 하지 않았다.

《동무는 후회하게 될거요. 자기에게 차례지는 영예를 뿌리친것으로 하여 후회하게 될거란말이요.》

선희는 광호가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선희의 예지로 빛나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마를 사이가 없었다.

《어쨌든 동무는 이 경기에서 승리해야 하오. 이 경기를 단순한 생산경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오.》

또다시 광호의 이런 말이 귀에 쟁쟁히 울려왔다.

그때였다. 특! 하고 복침편 가죽띠가 맥없이 끊어졌다. 돌아가던 직기는 멎고 복이 실꼬리를 길게 달고 땅바닥에 나떨어졌다.

선희는 직기옆으로 달려가 푸른 신호대손잡이를 재빨리 잡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신호대손잡이를 쥔 그의 손목이 가늘게 떨리었다. 그는 신호대를 들어올리지 못한채 허리를 뒀다. 그의 눈앞에는 며칠전 진옥이의 기대쪽으로 달려가다가 자기에게로 되돌아서던 광호의 얼굴모습과 진옥이의 기대에 올랐던 푸른 신호대가 엇갈리며 안겨지는 것이었다.

(신호대를 올려선 안돼. 내 힘으로 고쳐야 돼.)

선희가 이런 생각을 굴리고있을 때였다. 마침 선희쪽으로 다가오던 광호가 진옥이의 기대쪽으로 부리나케 달려가는것이 보였다. 진옥이의 기대에 푸른 신호대가 올라있었던것이였다.

선희는 경기에 참가하기전부터 생각하여왔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일, 직기를 순회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순간고장을 퇴치하고싶었던 일을 당

장 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충동을 느끼었다. 직포경기를 한다고 자기 개인의 실적만 높이려고 손을 대기 주저했던 일이 아닌가...

선희는 경기에서 진옥이처럼 서로 경험을 나누려고 생각못했던 자신이 미워졌다.

1 등의 영예도, 새 기록의 창조도 더 많은 천을 짜내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깨끗한 직포공의 마음이 깃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선희는 물을 담아놓은 세면기옆에서 나사틀개며 칼, 송곳 등을 집어들고 끊어진 가죽띠를 재빨리 풀어내기 시작했다. 광호는 가죽띠를 바꿔끼우는 작업을 1~2 분안으로 해치우곤했었다. 그런데 선희는 손쉽게 수리하리라고 생각했던 가죽띠 교체가 막상 손을 대고보니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가죽띠를 고정시켰던 나사가 잘 풀리지 않았다. 헛 돌기만 했다. 선희는 광호가 하듯 손타사머리를 나사틀개로 잡아주고 겨우 한개를 풀었는데 1 분이 걸렸다. 1 분이면 직기들을 절반이상이나 순회할 시간이였다. 등골에 땀줄기가 흘렀다. 그런데 얇친데접친격으로 가죽띠구멍이 작아서 나사를 끼울수 없었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서 비틀어 맞추려고 해도 종시 들어가지 않았다. 가죽띠구멍을 넓혀야 했다. 선희는 칼끝을 구멍에 넣고 도려내려고 애쓰면서 자기가 왜 이런것을 미리 맞춰보지 못했단가 하는 자책에 잠겼다. 좋은 발기만 해서 무엇하랴. 알심있게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무슨 은을 낼수 있겠는가...

선희는 자기가 순간고장을 퇴치함으로써 직기의 가동시간을 더 높이려고 했지만 아직도 너무 준비가 부족하고 서툴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가쁜 숨을 토퍼쉬며 다가선 광호가 선희의 손에서 나사틀개를 앗아쥐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여놓으라고 했소? 이게 무슨 직포경기요? 수리경기요?》광호의 두눈에서는 불꽃이 튀겨나가는것 같았다.

《경기에서 새 기록을 세우겠다구 하구선. 내가 이러라고 눈곱을 췌뜰으면서 직기수리를 배워준 줄 아오?! 그래, 직포공자신이 순간고장을 고쳤다구 누가 알아주거나 평가해줄줄 아오?》

《광호동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누가 알아주면 하고 평가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해요?!》

선희는 정색한 얼굴빛을 띠우며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광호의 얼굴빛이 흐려지는것을 보면서 이마의 땀을 훔치었다.

《저쪽에 푸른 신호대가 올랐어요! 어서 가보세요. ...전 아직 수리작업에 서툴어요. 광호동무에게서 더 배워야겠어요. 광호동무 이 경기가 무엇을 위해 하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순 개인기록을 세우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때문에 자기 공장에서도

할수 있는데 우수한 기능공들을 뽑아왔겠어요? 우리 직포공들이 창조한 훌륭한 경험들을 일반화해 서 더 많은 천을 짜내자는게 아니예요? …》 광호는 선희의 말을 더 듣지 않고 자리들 뗐다.

그는 어깨바람을 일구며 걸어가는 광호의 넓은 등을 바라보다 말고 세면기에 다가서서 손을 깨끗이 씻고 벗었던 기대의 시동대를 잡아당기었다. 고동을 멈췄던 직기가 경쾌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선희는 가죽띠를 교체하는 시간이 이외로 길어진데서 잃어버린 실적을 만회해보려고 더 긴장된 마음을 안고 기대를 순회하였다. 그러나 이미 자기를 앞선 직포공들을 따라잡을수 없었다. 이 순간 그는 자기가 창조한 순회방법이 그처럼 큰 예비를 가지고있었다는것을 알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했다. 기실 선희가 창조한 갈매기순회방법이 경기에 참가한 직포공들의 몸에 점점 더 익숙되어 은을 내고있었다.

그리하여 선희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인중에 검은 기미가 있는 직포공을 비록 아주 적은 차이를 두고서나마 끝내 따라앞서지 못하고말았다....

직포경기는 끝났다. 갖가지 크고작은 여러가지 음향을 제압하며 박력있게 울리던 바디복소리가 몇자 드넓은 직포현장은 격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 해진듯 조용히 설레이었다. 여기저기에서 처녀들의 맑고 즐거운 웃음소리와 다정하고 친근한 말소리들이 들릴뿐이었다.

선희는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들듯 전신의 맥이 아운하게 풀려 한손으로 기대 모서리를 전체 잡시 서있었다. 고개를 떨군 그의 눈에는 천신발에 빨간수를 놓은 《경기》란 두 글자가 안겨지었다. 어머니의 다심한 손길이 어린 신발이었다.

(어머닌 좀 서운해하실지두 몰라...)

이때 출입문쪽에서 동그런 꽃목걸이를 든 처녀들과 함께 사진기를 멘 기자가 들어섰다. 그뒤로 경기종합본과의 지도원들이 따라섰다. 그들은 진옥이쪽으로 밀려갔다.

선희가 광호를 만난것은 경기총화가 진행될 교양실 출입문앞에서였다. 어깨를 떨어뜨리고 선희 앞으로 다가오던 광호는 선희의 얼굴을 언뜻 쳐다 보는것 같더니 앞만 바라보면서 성큼성큼 널마루를 칸 층층계를 내려서서는 어데론가 급히 사라졌다.

이날저녁 경기총화에 참가한 사람들중에서도 선희는 광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경기에서 1등을 한 진옥이가 상기된 얼굴로 《...제가 경기에서 이길수 있었던것은...》 하고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선희는 그의 말을 새겨들을수 없었다.

밝은 형광등아래 더욱 윤기흐르는 진옥이의 머리술이며 인중의 기미가 더 돋보여 직포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한 직포공에게는 그 모든것이 더 어울리는듯싶었으나 선희의 눈앞에는 고개를 쳐들고 자기앞을 지나가던 광호의 성난것 같은 얼굴표정이 떠오를뿐이었다. 의젓하고 세련된 몸가짐을 한 진옥이의 입에서 무엇때문에 탁 트이지 못한 목소리가 울려나오는지도 선희는 이해하지 못했다.

《...저는 저보다 20 년이나 나이가 어린 직포공이 직기옆에 맑은 물을 떠다놓는것을 보면서... 그때 벌써 저는 그 처녀와의 경기에서 졌다는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구 갈매기순회방법, 기대공이 순간고장을 퇴치하는 방법에는 깨끗한 심정으로 비단천을 짜려는 직포공의 마음이 깃들 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당당한 승리자는 자기자신의 명예보다 경기참가자들이 더 많은 천을 짜도록 숨은 노력을 기울인 량선회 동무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순간 요란한 박수소리가 방안에 차고넘쳤다. 그런데 선희는 자기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손뼉을 함께 쳤다...

선희는 강변길을 혼자 걸었다. 어두운 밤이었다. 언젠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기전 광호와 함께 보람찬 로동생활을 눈앞에 그려보며 거닐던 그 유보도였다. 그날밤처럼 조용한 강물우에 전등불이 어리였고 나무잎들이 설레이었다.

선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자기의 심정을 이해해주려고 하지 않은 광호가 안타까웠다.

(왜 광호동무는 경기에서 반드시 1 등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할까?)

선희가 이런 생각에 깊이 잠겨 걷고있는데 문득 등뒤에서 발걸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더니 선희의 등에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지였다. 선희는 《광호동무.》 하고 입밖으로 터져나오는 음성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등뒤로 다가선 사람은 광호가 아니었다. 안경알을 번뜩이며 바투 다가선 사람은 뜻밖에도 아버지였다. 서류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던 아버지는 《수고했다.》 하고 한마디 했을뿐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다.

선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강변길을 걷기 좋아하였다. 해방직후부터 교편을 잡은 아버지는 성실하고 량심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신비스러운 바다동물들과 날짐승들, 수림속에 길든 네발가진 산짐승들에 대한 동화이야기도 자주 해주었는데 부지런한 곰과 성실한 다람쥐와 자기 동무들을 위해서 험한 파도를 뚫고 싸우는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선희의 머리속에 생생하였다.

《아버진...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줄 알았어요?》 선희는 아버지곁에서 천천히 걸었다.

《너야 어렸을 때부터 이 강변길을 걷기 좋아하

지 않았니?)

하면서도 아버지는 오늘저녁 직포공경기를 알아보려고 공장에 전화를 건데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강건너 철길에서 기관차의 기적소리가 울렸다. 평양에서 들어오는 급행열차였다. 불빛이 어린 기다란 열차의 차바퀴소리가 가까와지자 강물은 쇠물빛을 띠고 흘렀다.

《아버진 경기가 처음 시작되는 날 아침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응?!》

《면도를 하시면서말이에요. …》

아버지는 뜻밖의 물음에 약간 놀라며 그건 왜 묻는가고 했다.

《그저요. 무슨 양어공이야기를 하신것 같은데… 전 새겨듣지 못했어요.》

선희는 아름답디 버드나무밑에 놓인 긴의자로 아버지의 손목을 끌고갔다. 아버지는 그제야 딸이 무엇때문에 그 이야기를 또 듣고싶어하는지 헤아린듯 안경테에 손을 가져가며 다시 양어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란 몇해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한 처녀가 어느 협동농장에 배치되어 산간지대의 새 양어법을 창조한 이야기였다. 선희의 눈앞에는 맑고 깨끗한 샘소강변에서 칠색송어를 기르는 처녀의 감실감실한 얼굴과 자기가 창조해낸 새 양어법을 전국에서 모여온 양어공들에게 설명하는 사랑스러운 모습이 안겨왔다.

《…그 처녀는 그후에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받았더라… 어느 한 청년은 사진까지 넣어 보내오구…》

《그런데 전 왜 그날아침 아버지의 이야기를 새겨듣지 못했을까요?》

《그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버지는 서류가방우에 두손을 올려놓고 가볍게 다독이었다. 《네가 경기에 참가하면서 너무 흥분했기때문이겠지… 내 보기엔 네가 경기에서 이길 생각만 하는 것 같더구나.》

《아버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희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경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그래 넌 후회하느냐?》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채 방금전에 급행

열차가 지나간 강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아니예요! 후회하긴 좀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딸의 말이 끝나기전에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선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어렸을 때처럼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티없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후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올 때두 아주 떳떳할수가 있지.》

선희는 가방우에 놓여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감촉되는 부드러운 손이었다. 5년전 선희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올 꿈을 안고 집에 돌아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에도 선희는 아버지의 그런 손길을 느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더 많은 천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시려고 찬비 내리는 늦가를 굶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방직공장을 찾아주시고 이 고장 사람들이 지난날 토스레웃 한벌 변변한것 없이 살아온 기막힌 정상을 깊이 헤아려주시지 않았니…그러니 너도 경기에 참가하면서 마음의 차림새를 옹골게 가져야 했을게 아니였겠니…이젠 어떻게 일해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니 나두 기쁘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그치었다가 다시 막내딸의 손을 꼭 쥐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네가 창조한 경험이 직포경기에서 일반화되었다는것을 아시면 만족해하실게다. 너두 알겠지만 우리 나라에는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그 어떤 공명이나 영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건 말건 성실하게 일하는 숨은 영웅들이 얼마나 많니…》

《아버지, 아버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희는 아버지의 어깨에서 머리를 들며 정말 희열에 북받친 음성으로 말했다.

《전 꼭 1등을 해야만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 전 아직… 어려워요…》

선희의 두눈에서는 이슬방울이 어려 반짝이었다.

《깨달았으면 됐다. 난 광호도 네 심정을 이해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아버지, 아버진 정말 좋아요…》

강물속에 어린 불빛들이 더욱 아름답게 빛을 뽐기 시작했다.

새벽길

전세창

1980년 1월 1일 흰눈 덮인 누리에 해돋이의
빛발이 퍼져가는 새벽이었다.

긴팔을 하늘높이 드리운 탑식기중기들이 숲을
이른 평양미립부재공장은 전에없이 조용했다. 밤
이고 낮이고 지심을 울리며 블록생산을 다그치
던 진동기소리도, 건설장마다에서 달려온 수백대
의 자동차들이 구내가 들썩하도록 봄비던 발동소
리도 언제 그랬더냐싶게 가뭇없이 사라진 고요한
이른새벽, 성애가 두렵게 깔린 구내길로 한사람
이 걸어가고있었다. 뻘뻘 날씨건만 맨머리바람으
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짚는 그의 사색어린 눈길
은 공장의 구석구석에 주의깊게 가닿았다.

그가 바로 이 공장의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였
다. 해마다 설명절이면 이른 해돋이의 구내길에서
지나온 한해를 더듬어보기도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할바에 대
해서 다시한번 신중히 생각해보는 그였다.

날에날마다 눈부시게 번영하는 평양, 해마다 새
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며 웅장화려한 건설물
들이 분조를 다루어 일떠서는 그 모든 건설장들
에 기초블록으로부터 지붕판에 이르기까지 각종
블록들을 생산보장해야 하는 부재생산현장에서
당일군으로서 갖추어야 할 풍모에 대해서 생각
해보는 그의 걸음걸음은 결코 가벼운것이 아니었
다.

평양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
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부재생산자들의 충성의
열도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아가는 부재생
산 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게끔 했다. 그럴수록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자만함이 없이 더욱 높은
고지로 내달리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 더더구나
올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를 위
대한 승리자의 대회로 맞기 위해 더욱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한참 걸음을 옮기던 그는 청년직장 부재생산현
장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철근과 세멘트혼합물을 쏟아붓기만 하면 당장
이라도 블록공장들이 척척 밀려나올수 있게 정갈
하게 꾸러진 생산현장, 진동기며 천정기중기, 어
제 생산한 블록들을 꺼내느라고 뜨거운 증기를
피여 올리는 양생로들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는 어느 때없이 감회깊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부재생산을 다그쳐대던 인상깊
은 얼굴들이 사진첩을 번져가듯 안겨왔다. 숨은
영웅들의 위훈으로 하여 더욱 의의깊은 1979 년은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 근로자들

이 새로운 비약과 혁신으로 줄달음쳐온 자랑스
승리의 한해였다. 바로 그 년륜우에 려년에 없이
년간계획을 근 두달이나 앞당긴 부재생산자들의
위훈도 깃들여 있는것이다.

박인호동무는 그들속에서 일해온 자신의 사업
도 다시금 총화해보았다.

...삼복더위가 한창인 7 월말경이었다. 숨이 쉴
씩 막히도록 찜뭉구는 날씨건만 부재를 실으려
밀려드는 자동차들은 구내가 메이도록 꼬리를 물
고 늘어서있었다.

생산현장들을 돌아보던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
는 자동차들을 미처 뽑지 못하는것이 이상하여
블록을 싣고있는 탑식기중기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그는 3 번선 탑식기중기에 채 못미쳐
우뚱 걸음을 멈추었다. 부재를 접수하러 온 인수
원들과 자동차운전사들이 그 누구인가를 겹겹이
둘러싼채 저저마끔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듣게
하느라고 목청들을 돋구고있었다.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짐작되는바가 없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로 바투 다가갔다. 아니나다를
가 사람들로 울타리를 둘러친 그속에 판매지도원
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들을 설복하느라고 무진
애를 쓰고있었다.

《좀 가만들 있으라고요. 동무네가 억지를 쓴다
고 건설장에 보낼 부재를 무턱대고 떼줄수야 없
지 않소.》

저으기 음성이 높아진 판매지도원이 사람들을
헤집으며 빠져나가려고 했다.

《아니 그럼 빈차로 가야 한단말이요. 동무, 나
도 하루일을 끝마친 저녁이면 산원건설을 지원하
는 지원자의 한사람이요.》

코마루가 성깔져보이는 운전사가 또다시 판매
지도원의 앞을 막아나섰다.

《차, 그렇게 떠들지만 말구 순차대로 이야기하
자구요. 판매지도원동무도 안타깝겠는데 자-한대
피우시우.》

그 어느 체육단의 력기선수같이 우람찬 몸집에
머리가 벗어진 인수원이 격에 맞지 않는 친절한
어조로 담배를 꺼내들며 말하였다.

《판매지도원동무, 계단판 두장만 떼달라고요.
지금 우리 건설장에서는 그것때문에 건설자들이
손을 털고 나았을 정도란말이요.》

판매지도원의 손에 억지로 담배를 쥐여주는 인
수원의 얼굴은 부재를 주지 않으면 금시 울어버
릴것 같은 표정이었다.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능청스러운 그 인수

원과는 이미 구면인터였다.

며칠전 문수거리에 새로 건설되기 시작한 어느 기업소의 주택건설장에 들렸을 때였다. 다른 주택건설장들에 비해 근 두배나 되는 부재를 실어다 쌓아놓은 그 건설장에서 우람찬 몸집을 점잖게 굽히며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다.

《초급당비서동지, 마침 잘 왔습니다. 부재공장에서 제때에 부재를 생산해주어 우린 벌써 2층을 올리는중입니다. 이 기세대로 나가면 금년중으로 12층까지는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그는 이러면서 부재공장이 일을 제킨다는 찬사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었다.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그때 그의 《외교술》을 두고 웃었다. 그러나 지금 판매지도원을 둘러싼채 자기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는 그앞에서 무엇인가 죄지은것 같은 자책감이 들어 그대로 서있을수 없었다.

한장의 부재라도 더 빨리, 더 많이 가져가 건설을 앞당기려는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줄수는 없단말인가. 아니 그것은 그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평양시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수도건설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인것이다.

하지만 현재 부재생산은 공장조업이래 최고기록을 올리고있었다. 산원건설과 목욕탕건설을 비롯한 시내 모든 건설장들에 한장의 부재라도 더 많이 생산해보내려는 로동자들의 들끓는 열의는 지난해 같은달에 비하여 1.2 배의 생산을 내게 하였다. 아름다운 계획이라고 우려하던 7 월계획도 10 2 프로로 넘쳐수행했다. 그랬어도 판매지도원은 린색한 사람으로 인수원들의 말밖에 오르고있다. 물론 그것은 부재가 인수원을 기다리기보다는 좋은 일이라 해야겠다. 바로 여기 부재생산현장에서도 나날이 새로운 속도를 창조해가는 건설장의 모습을 읽을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그러지 않아도 이즈음 여러 건설사업소들에서 전화를 걸어오거나 찾아오는 일들이 찾아지곤했다. 그저께 저녁에만도 건설기관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두세명이나 찾아와서 《탄약만 제대로 보장되면 사수들은 용기백배하여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말까지 남기고 갔었다.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판매지도원을 둘러싼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부재를 신속히 보장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결코 나무람할수는 없는 일이었다.

오직 방도는 자동차들이 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부재를 싣고가도록 생산량을 높이는것이였다. 그래서 어제저녁에도 부재생산량을 더 높일수 있는 예비를 찾아보려고 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열었었다.

하지만 당장 생산량을 높일수 있는 이렇다할 대책은 세워지지 못했었다. 일부 생산지도일군들

은 현재 만가동을 하고있는 기대들이 다음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보수사업이나 잘하는것이 지금으로서는 첫째가는 방도라고들 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고있는 조건에서 생산적과동만 없으면 년간계획도 근 한달가량 앞당길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년간계획을 일주일 앞당겨 완수한데 비하면 그 설비, 그 로력을 가지고 1.2 배나 장성한 올해 계획과제를 한달이나 앞당긴다는것은 기적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건설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야 어찌겠습니까? 우선 중요대상 건설에다 모를 박으면서 일반대상들은 점차적으로 푸는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듯 무릅없이 자기 심중을 터놓는 일부 생산 지휘일군들의 발언을 두고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공장앞에 부파된 국가계획을 넘쳐한다고 하여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판매지도원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인수원들과 자동차운전사들을 바라볼수록 새삼스레 어제저녁에 그처럼 태연한 자세로 말들을 주고받던 일부 생산지휘일군들의 모습이 불만스레 눈앞에 밝혀왔다. 그들도 건설자들의 저 절절한 목소리를 몇번이고 들었을 것이였다. 언제인가 생산과에 들렸을 때 공장문화회관 관장이 새로운 악기들을 구입하지 못해 안달아하는걸 보고 부재를 쥐고있는 우리가 노력만

하면 해결하지 못할게 없다고 으시대던 생산지도원의 퉁말도 지금에 와서 음미해보면 우연한 말이 아니었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그럴수록 초급당비서인 자신이 생산지휘성원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한 일보를 받아들이고 만족한 웃음을 짓기전에 그 수자앞에서 일군들의 립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것이 생산현장에서 당일군이 취해야 할 자세일것이였다.

이날 초급당비서 사무실은 하루종일 텅 비어있었다. 그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생산현장에 나가있다는 교환수의 대답으로 끝나곤했다.

그는 밤이 퍼그나 깊었는데도 청년직장부재생산현장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진동기결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의 어글어글한 눈에는 심사숙고하던 끝에 그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발견한 사람에게서만이 찾아볼수 있는 밝은 빛이 어리여있었다.

그는 옆에서 허물없이 열변을 토하는 로동자들을 바라보며 머리속을 청신하게 밝혀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구절구절을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보고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기술을 배워 경

제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 밤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가슴뿌듯이 체득하며 노동자들속에서 사업했다.

오후 한것을 부재생산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땀을 흘린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실참에 사람들을 모여놓고 부재생산을 더 높일수 있는 방도를 토론했다.

《비서동지, 천정기중기운전공 한중선동무가 지금보다 더 많은 부재를 생산할수 있는 예비가 자기한테 얼마든지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작업반에서 익살군으로 소문난 진동기운전공이 익살조로 하는 말이였다.

《예비는 얼마든지 있다... 거 귀맛이 있는 말이 요구만. 중선동무 어디 말해보라구.》

초급당비서는 소탈한 웃음을 머금으며 중선의 어깨에 손을 얹어 가까이에 앉히였다.

중선은 초급당비서의 눈치를 살피며 어줍음을 금치 못하다가 무엇인가 결심한 입을 뗐다.

《사실 그건... 저, 제가 본 소설의 주인공처럼 달라붙으면 예비는 얼마든지 있다고 한 말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처럼... 허... 좋아, 어디 말해보라구.》

중선은 제탄에도 웃음을 금치 못하겠는지 입이 벌글췌해지더니 느슨한 미소를 짓고있는 초급당비서의 눈길을 대하자 정색한 어조로 뒤말을 이었다. 그가 읽은 소설의 내용인즉 그 어느 건설장에서 탑식기중기가 지내 육심스레 물동을 들다가 허리가 휘어든 문제를 둘러싸고 젊은 제대군인 주인공과 지배인간에 충돌이 있었던 이야기였다. 지배인은 어차피 기중기를 보수하자면 보름은 잘 걸리겠는데 월말까지 조립하자던 5 층건물을 부득불 뒤로 미루는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주인공은 지배인이 계산한것처럼 순차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꺼꾸로 계산하자고 생각했다. 이를테면 월말까지 5 층건물은 반드시 조립해야 한다. 그러자면 3 일내로 기중기가 돌아가야 한다. 때문에 3 일동안에 기중기보수를 끝내야 한다는것 이였다. 문제를 그렇게 고찰하고보니 3 일동안에 끝낼수 있는 방도란 기중기를 해체하지 않고 굵어든 허리를 펴는것이였다.

그제서야 지배인은 기중기를 해체하지 않고 보수할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결국 주인공의 착상대로 권양기를 리용하여 단 이틀동안에 기중기를 보수하여 5 층건물을 조립했다.

《중선동무, 그러니 바로 그 소설의 주인공처럼 모든 일을 시작하고 생각만 하면 예비는 얼마든지 있단말이지. 이게 바로 숨은 영웅들의 일본새

요.》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의 신중한 말이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겁니다.》

중선동무가 말을 맺기 바쁘게 옆에 있던 양생로 조작공이 자기들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실례로 우리가 기대당 생산능력을 한배반으로 올리자 하면 당장 양생로가 걸립니다.》

《양생로야 넓히면 되지만 그 많은 부재를 진동기에서 양생로까지 옮기자면 기중기의 속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거야 감속기를 빠른걸로 바꾸면 될걸 가지구... 문제는 부재를 칠수 있는 형판이 모자라는 거야.》

운전공들은 저저마끔 자기들이 다루고있는 기대들과 련관공정들의 부족점을 밝혀내기도 하고 방도를 찾아내기도 하면서 신이 나서 열변을 토하는것이였다.

(참 얼마나 진실한 동무들인가. 그래 모든 문제를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면 예비는 얼마든지 있구말구.)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믿음에 가득찬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며 넋지시 입을 열었다.

《그러니 양생로를 개조하고 기중기속도를 높이고 형판만 해결하면 지금보다 기대당 열립방은 더 할수 있단말이지.》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의사를 것처럼 지지해주는 초급당비서를 존경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한결같이 대답했다.

《비서동지, 칸칸을 막은 저 양생로의 간벽만 다 터쳐버려도 하루에 수십립방의 부재는 더 양생할수 있습니다.》

한중선동무가 어느결에 양생로결으로 달려가 중기배관이 열기설기 얹혀들어간 로를 가리키며 흥분을 금치 못해하는 말이였다.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가슴그들먹이 뜨거운것이 치밀어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마음같아서는 그들을 한품에 끌어안고 우리 힘을 합쳐 꼭 성공하자고 얼굴이라도 비벼주고싶었다.

《웁소. 나도 동무들과 똑같은 생각이요. 자 덤비지들 말구 좀 더 구체적으로 타산해보자구.》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자정이 넘어서야 사무실을 향해 발길을 옮기였다.

(물론 이것은 한점의 불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불꽃이 온 공장에 퍼진다면 모든 건설장들에서 새로운 혁신이 창조된것이다.)

이튿날아침이였다.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출근하자바람으로 공장책임군들을 모이게 했다.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그중 나이많은 직맹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출입문을 닫아서야 협의회

에서 토의할 문제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아침에 동무들을 긴급히 부른것은 다름아니라 청년직장 로동자들속에서 부채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는 막대한 예비를 찾아낸 데 대해서 이야기하자는겁니다.》

이렇게 허두를 댔 그는 저도모르게 어제밤에 생산현장에서 가슴부풀어오르던 흥분이 되살아올라 점차 열기띤 음성으로 다음말을 이어나갔다.

협의회에 참가한 책임일군들은 금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중에서도 남달리 키가 큰 기사장은 그게 정말이냐는듯이 초급당비서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리니 내 생각에는 우리 책임일군들부터가 맡겨진 과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로동자동무들의 그 발기를 적극 지지해주고 떠밀어주기만 한다면 이달중으로 부채생산을 더 높일수 있다고 봅니다.》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의미심중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는 책임일군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다.

방안에는 잠시 이렇다할 말 한마디 없이 침묵이 깃들고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신중한 자세로 생각을 더듬는것이였다.

《제 생각에는 그 문제만은 좀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한참이나 공리를 더듬고있던 기사장이 좌중을 둘러보며 말머리를 뗐다.

《현재조건에서 양생로와 기중기를 개조하는것과 함께 수신크의 형판을 동시에 만들어내자면 여간만 품이 들지 않을것입니다. 당장 형판만 만들자 해도 수신크의 철판과 산형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불과 다섯톤의 강재가 있을뿐입니다. 더우기는 하나의 설비도 아니고 세네가지의 설비를 동시에 개조하자면 그에 필요한 로력도 로력이거니와 어차피 생산에 지장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생각을 허심하게 털어놓는 기사장의 얼굴에는 로동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싶어도 어쩔수 없다는 표정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기사장동무, 만일 우리에게 오늘중으로 형판 열개를 만들라는 과업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소. 아마 기사장동무는 강재가 다섯톤밖에 없기때문에 나는 못하겠수다 하고 물려서겠소.》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너그러운 웃음을 지은 채 다음말을 이어나갔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협의회를 하고있는사이에 청년직장 로동자들은 벌써 형판 두개를 만들어 놓았소.》

그것은 사실이였다. 초급당비서가 출근길에 현장에 들렀을 때였다. 어제밤에 분명 집으로 들어간 로동자들이 오늘새벽에 벌써 두번째형판을 만

들고있었다. 초급당비서에게서 고무적인 힘을 얻은 그들은 더는 쓸수 없다고 파철더미에 쌓아둔 형판들중에서 테두리가 성성한것들을 골라다가 본래 철판을 대었던 한복판을 뭉쳐 들어내고 철판근공크리트로 미끈하게 해놓은것이였다. 그렇게 만든 공크리트형판우에다가 ब्ल록을 치면 철판에 비해 면이 끊지 못할수는 있으나 미장만 잘하면 그것도 능히 극복할수 있을것이였다.

《나는 오늘아침에 그 동무들을 다시 보면서 실로 많은것을 생각했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일수 없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혁명과업수행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없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는 청년직장 로동자들속에서 일어난 그 발기를 온 공장에 지퍼울리기만 하면 빠른 시간내에 부채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다고 봅니다.》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우선 책임일군들부터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이신작작의 모범을 보일데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한후 해당하는 분공조직을 했다.

그리하여 이날저녁 초급당비서의 참가밑에 참모회의가 열리였고 그와 때를 같이하여 비서들의 협의회와 선동원모임이 있었다.

조직별, 단위별 협의회가 있는 이틀후였다.

청년직장 부채생산현장은 불도가니마냥 들끓고있었다. 경제선동대가 북통을 울리고 기중기의 종소리가 댕가당거리는 드넓은 현장안의 여기저기에서 용접기들마다에서 불보라를 날리고있었다.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가 양생로안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함마를 휘두르며 간벽을 터치고있을 때 부비서 권병국동무는 공무직장 수리공들과 함께 천정기중기의 감속기 이바퀴들을 교체하고있었다. 때를 같이하여 각 직장 수리작업반의 수리공들과 전기용접공들이 형판들을 제작하고있는 조립현장에서는 미장칼을 손에 든 기사장과 함께 공장에서 한다하는 미장공들이 공크리트를 다져넣은 형판을 미끈하게 미장해나가고있었다.

어느결에 부채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혁신의 불길이 온 공장에 활활 타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동차운전사들과 인수원들의 입과 귀를 건너 시내 건설장들에 메아리쳐갔다.

미구하여 건설장들에서는 산울림마냥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앉아서 부채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부채가 벽돌처럼 쏟아져나오도록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자.》

그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자동차적제한이 넘치도록 철판을 싣고온 문수거리건설자들이며 기계설비에 지원로력까지 싣고온 주력건설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들을 하며 부채생산현장에 뛰어

들었다. 더우기는 부채를 싣으러 온 자동차운전자들까지 부채싣는 째시간마저 그대로 앉아있을수 없다고 삽과 망치를 들고 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다보니 일은 예견했던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척척 자리가 났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것은 아니었다. 양생로간벽을 해체하다보니 어차피 이삼일동안은 블록을 양생할수 없게 되었다.

《초급당비서동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삼일만 지나면 부채가 광광 쏟아나오겠는데 봉창이야 하고도 남을겁니다.》

단 하루라도 건설장에 지장이 있을세라 근심겨워 하는 초급당비서를 본 기사장은 이런 말을 하며 생산일보를 펴보이였다.

그러나 초급당비서의 눈길은 생산일보가 아니라 결에 서있는 인수원의 얼굴을 지켜보고있었다. 산원건설장에서 달려온 인수원은 이미 자기들이 실어간 벽돌블록으로 일주일엔 일할수 있을것이라고 타산했었는데 하루 이틀사이에 거의 축조해버렸다는것이였다.

《기사장동무, 우린 어떻게 하나 하루이틀사이에 산원건설에 필요한 벽돌블록을 보장해야 하오.》

초급당비서의 음성은 단호하였다.

《그렇다고 양생로보수를 중지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렇소, 양생로보수도, 벽돌블록도 다 해야 하오.》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그길로 대보수작업반을 찾아갔다.

그날 오후였다. 공장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던 기사장이며 생산지휘일군들은 의외의 광경에 금시 눈이 휘둥그레졌다.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를 중심으로 한 직장장들과 부문당비서들이 운동장같이 넓은 청년직장 앞마당에서 철관으로 만든 휘틀을 가지고 벽돌블록을 찍고있었던것이다.

《아니 초급당비서동지!...》

기사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금시 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라 말문을 메운것이였다.

이런 당일군이 앞장에 서있는 한 그 무슨 일인들 못해내랴! 기사장도 생산지도일군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가만, 동무들은 어제밤에도 설비보수를 지도하느라고 뜬눈으로 세웠는데 조금이라도 눈을 좀 붙이고 나오라구.》

《초급당비서동지, 누가 할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장은 이렇게 말하며 혼합물을 미쳐 날라오지 못할 정도로 벽돌블록을 찍어나갔다. 그들이 이렇듯 흐르는 땀을 씻을 겨를없이 운동장 가득히 벽돌블록을 찍어내고있을 때였다. 뜻밖에도 공장주변에 있는 가두녀성들이 작업복차림에 손에 손마다 공구들을 들고 작업장으로 달려나왔다.

세대주들과 아이들을 통하여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소식을 듣게 된 그들은 한결같이 생산현장으로 달려나온것이였다.

《공장에서 큰 혁신을 이룩하고있는데 우리라고 가만있겠나요. 우리도 남편들 못지않은 수도건설자라는 인식을 옳게 가지고 일거리를 맡겨주세요.》

가두녀성들은 저저마끔 벽돌블록휘틀을 뺏어들며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저녁무렵에는 하루일을 끝마친 로동자들까지 급히 만든 휘틀을 하나씩 둘러메고 벽돌블록을 만드는데 떨쳐나섰다.

하여 이날 하루동안에 찍어낸 벽돌블록은 무려 3 천여매나 되였다. 한점의 불꽃을 온 공장에 지퍼올린 정신, 바로 그로 하여 건설장에 보낼 부채를 지장없이 보장하면서도 설비개조를 성과적으로 끝마친 부채생산자들은 년간계획을 근 두달이나 앞당기였다.

이처럼 부채생산이 늘어가니 건설장들마다에서 건설물의 조립속도 또한 나래돈친듯 쭉쭉 뻗어 올라갔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아침,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봉긋이 솟아오른 아침해를 바라보며 구내길의 한복판에 이윽도록 서있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려면 당일군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어 혁신과 비약의 앞장에서 내달아야 한다. 그러자면 현실적요구에 맞게끔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더더욱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내밀어야 할것이다.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이 그러했던것처럼 군중속에 더 깊이 들어가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해체꺼야지.》

초급당비서 박인호동무는 온몸을 따사롭게 덥혀주는 해빛을 받으며 공장정문으로 천천히 발길을 옮겨갔다.